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2022년 10월 6일(목)
10:00 ~ 16:50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생중계•

외솔길 (외솔회 유튜브)

https://youtu.be/pa_oGDT06mA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합니다.

인사의 말씀

“배달말(한국어, 한어, 조선어)은 배달 겨레의 상징이며 배달 정신의 표현이며, 배달 문화의 총 목록이다. 우리는 겨레를 사랑하며, 또 그 문화를 사랑하며, 따라 그 말을 사랑한다.

우리가 배달말을 사랑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사람되기 위하여, 다음엔, 제조상의 문화 창조의 역사적 생활을 받아잇기 위하여, 다음엔, 자손에게 정당한 문화 재산을 끼쳐 주며, 아울러 문화 창조의 바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영구한 발전과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겨렛말을 사랑하는 것이다.”(『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머리말 중에서)

한글 반포 576돌을 기념하여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 시기에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한글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에 기여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 백성들의 말글살이가 어떠했는지,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온 힘을 기울여 한글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연산군 시절 박해가 있었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에서 한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 연구와 교육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이 우리 백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달리 말해 어떻게 민주화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자유 민주 생활은 모든 국민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고, 또 생활화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쏟은 덕분입니다. 일부 특권층만 문자 혜택을 누리던 봉건 시대를 지나, 모든 공용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교과서의 내용도 한글로 기록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한 것은 민주화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 4차 산업 시대, 다매체 시대, 인공 지능 시대가 되어도 한글의 중요성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 다가올 통일 조국 시대

에 민족의 번영과 각 사람의 복락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글을 더 아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여러 바쁜 일정 불구하고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연구자 여러분, 대회 지원을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여러분, 발표 장소와 장비를 지원해 주신 한글 박물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선생님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22. 10. 6.

(재) 외솔회 회장 이창덕

2022년

때: 2022년 10월 6일(목) 10:00 ~ 16:50

곳: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 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6돌 한글날 기념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00 ~ 0:10	개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10 ~ 0:20	축사	김영수(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우리 글 탄생과 언어 민주화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20 ~ 10:50	훈민정음 이전 한국의 말글생활	장윤희(서울대학교 교수)
10:50 ~ 11:20	훈민정음 창제와 백성들의 언어생활 변화	김유범(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조 중세기 한글 민주화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1:50 ~ 12:20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어 및 한글 연구에 관하여	김병문(연세대학교 교수)
12:2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우리 말글 성장과 진단	사회: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3:30 ~ 14:00	국어 순화의 참된 뜻	김일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4:30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문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4:30 ~ 15:00	갈등의 말, 협력의 말	신유리(연세대학교 강사)
15:00 ~ 15:30	일간지의 한글 표기 확대 양상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5:30 ~ 16:30	종합토론	사회: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6:30 ~ 16:5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차 례

주제 :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제1부: 우리글 탄생과 언어 민주화

훈민정음 이전 한국의 말글생활

장윤희(서울대학교 교수) 9

훈민정음 창제와 백성들의 언어생활 변화

김유범(고려대학교 교수) 29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조 중세기 한글 민주화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55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어 및 한글 연구에 관하여

김병문(연세대학교 교수) 70

제2부: 우리 말글 성장과 진단

국어 순화의 참된 뜻

김일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92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문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08

갈등의 말, 협력의 말

신유리(연세대학교 강사) 127

일간지의 한글 표기 확대 양상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42

종합토론

분과발표

주제 1

제1부

우리글 탄생과 언어 민주화

사회 :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훈민정음 이전 한국의 말글생활

장윤희(서울대학교 교수)

1. 서론

한국의 말글생활의 역사, 곧 어문생활사¹⁾에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로는 우리의 말을 하면서도 글로는 우리말과는 질서가 다른 한문이나 한자를 빌린 차자표기로 불완전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의 어문생활사, 특히 문자생활사에서 획기적인 일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가 미친 영향은 문자생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언어 그 자체에도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문자생활의 주체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훈민정음의 창제가 문식층을 확대하여 일반 백성까지 문자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다소 막연한 인식에 그쳐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훈민정음 창제가 어문생활의 주체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가 지닌 언중들의 말글 생활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 전의 어문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말글’ 가운데, ‘글’은 적은 양이긴 해도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 글과 관련된 생활을 살피는 일이 가능하다. 반면 당시의 ‘말’과 관련된 언어생활을 살피는 일은 상황이 다르다. 훈민정음 이전의 언어생활을 알 수 있는 주된 자료는 문자로 기록된 글, 곧 문자 생활의 결과

1) 이전에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생활을 ‘언어생활’, 특히 국어과 교육에서 대상이 되는 국어를 이용한 생활을 ‘국어생활’로 부르기도 했다(장윤희 2009 등). 이때의 ‘언어’, ‘국어’는 말과 글, 곧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어문생활’이라는 용어로 가리키는 일도 있었다.(백두현 2010) 이 두 용어가 서로 넘나들면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전 시기의 경우는 후술할 바와 같이 구어 생활과 문어 생활을 포괄하는 ‘언어생활’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말글생활사’보다는 ‘어문생활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여 ‘어문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의 ‘말’, 곧 음성언어를 통한 생활에 대해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다른 한국어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말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생활을 살피는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훈민정음 창제 전의 어문생활 가운데, 말하기 생활에서 말하는 ‘구어’는 기록 자료 가운데 당시의 음성언어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제 음성언어, 곧 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당시의 구어로 보아 이를 통해 당시의 말하기 생활을 추론하는 셈이다. 또한 본고에서 말하는 ‘구어’는 일반적으로 ‘구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어는 문어의 대립 개념으로서 일상적인 말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가리키는 데 비해, 본고의 구어는 문어와 대립되기보다는 당시 말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 전체를 가리킨다. 한편, 본고가 당시 한국어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자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훈민정음 창제 전의 한국어 문자언어, 곧 ‘문어’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훈민정음 창제 전의 글은 한국어와는 질서가 다른 한문이거나, 아주 좁은 사용역을 지녔던 향찰을 제외한 나머지 차자 표기 자료에는 한국어가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기록에서 한국어의 문자언어, 즉 문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²⁾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말하는 문자 생활이란 당시 한국어의 문자언어, 곧 한국어 문어를 표기하는 생활이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여 사고 내용을 표기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 전체가 한국어 요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훈민정음 창제 전 우리의 어문생활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어문생활을 국어교육의 국어과 하위 영역 분류를 참고해서 ‘말하기 생활’, ‘읽기 생활’, ‘쓰기 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각각의 생활상을 살핀 뒤, 이러한 어문생활 가운데 특히 문자 생활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 훈민정음 창제가 지닌 어문생활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2. 훈민정음 창제 전의 말하기 생활

훈민정음 창제 전 한국의 어문생활 자료 가운데 말하기 생활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2)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말하는 ‘음성언어’ 역시 일반적인 ‘구어’와는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어’는 ‘문어’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일상적인 말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가리키는데, 본고의 ‘음성언어’는 ‘문어’와 대비되는 ‘구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당시 말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를 가리킨다.

수 있는 자료로는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고유명사 차자 표기 자료, 신라~고려 시대의 향가 표기 자료, 그리고 고려 속요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고유명사의 차자 표기 자료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三國史記》 권37(지리지)의 “買召忽縣一云彌鄒忽”, “十谷縣一云德頓忽” 등의 고구려 지명, “馬突郡一云馬珍” 등의 백제 지명은 물론, “居柒夫或云荒宗 <삼국사기 권44(열전)>”, “赫居世王…或作佛矩內王 <삼국유사 권1>”,³⁾ “厭髑 或作異次 或云異處 <삼국유사 권3>” 등의 신라 인명에 대한 다양한 복수 차자 표기 자료이다. 이들은 음차나 훈차 표기법으로 당시 삼국에서 각각 불려지던 동일한 하나의 지명, 인명을 다양하게 표기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 시대에서 경덕왕 16년(757년)의 한자어식 지명 개명 이전에는 고유명사들이 모두 당시의 고유한 구어로 지어지고 통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당시의 말하기 생활의 한 단면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경덕왕 16년(757년)의 주, 군, 현의 고유어 지명에 대한 한자어식 개명은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아지게 된 첫 번째 계기로 언급되는 사실이다. 어문생활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지배층의 인위적인 변개로 인해 전체적인 어문생활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경덕왕의 지명 변개는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의 고유어 지명에 대한 통일된 차자 표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지명이 다양한 표기형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집권층의 행정, 특히 문서 행정의 방해 요소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복잡한 차자 표기보다는 고유어의 의미를 반영하면서도 대부분 두 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식 지명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덕왕의 한자어식 지명 개명은 무엇보다도 문서 행정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 이전에 중국의 예를 따라 국왕의 권위를 높이하고자 왕의 칭호를 한자어식으로 바꾼 일도 있다.

- (1) “또한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 또는 ‘왕’이라고 칭하였습니
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부터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신라의 말[방
언]로만 부르고 존귀한 호칭으로 바로 잡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
뜻으로 삼가 ‘신라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립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又觀

3) 이렇게 ‘一云, 或作’ 등으로 제시된 복수의 지명 표기 가운데에는 복수의 차자 표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삼국사기》 권 35의 경우와 같이 경덕왕 15년(757년)의 한자어 개명의 결과가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기문 2003: 44쪽)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수의 차자 표기인 경우이다.

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4, 지증마립간 4년 10월>

- (2) 신라 왕 중에 ‘거서간’으로 불린 사람이 1명, ‘차차웅’으로 불린 사람이 1명, ‘이사금’으로 불린 사람이 16명, ‘마립간’으로 불린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신라 말의 명유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지으면서 모두 아무개 왕으로만 쓰고 ‘거서간’ 등은 쓰지 않았는데 어찌 그 비속한 말로 조야함을 칭하기에 부족하겠는가? 『좌전』, 『한서』 등은 중국 역사서인데도 오히려 초나라 말 ‘穀於菟’, 흉노의 말 ‘撐犁孤塗’ 등을 보존하고 있으니, 지금 신라 사실을 기록함에 그 방언을 보존함 역시 마땅하다.(新羅王 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歷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野 曰左漢中國史書也 猶存楚語穀於菟 匈奴語撐犁孤塗等 今記新羅事 其存方言亦宜矣)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사론>

(1)는 지증마립간 4년(504 년) 국호를 ‘신라’로 바꾸면서 왕의 칭호 역시 ‘왕’으로 바꾼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데, 개칭의 이유로 중국의 임금들이 ‘제(帝)’, ‘왕(王)’이라 불렸음을 들어 ‘존귀한 호칭’으로 바로 잡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말 최치원과 같이 한문에 밝은 문식층에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의 고유어 칭호보다 한자식 칭호인 왕이 보다 선호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2)이다. (2)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사론 부분으로서 명유인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쓰면서 고유어 호칭을 모두 ‘왕’으로 바꾸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경덕왕의 한자어 개명은 단순히 집권층의 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점차 한문에 익숙해져 한자어식 명칭에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었던 당시에, 선진적인 것으로 인식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난 지명, 관직명, 칭호 등의 한자어식 개명의 결과 말하기 생활에서 점차 고유어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당시의 말하기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나마 당시의 말하기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들은 발견된다.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유어로 이루어진 속담 등의 관용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4) 이렇게 고유어 관직 명칭을 한자어식으로 개명하는 일은 고려 초까지도 이어진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보여준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연 처음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청을 세우고 관직을 나누어 모든 업무를 조화시켜 나갔다. 그렇지만 그 관의 이름에 혹 우리말이 섞여 있기도 했는데, 대개 개국한 초창기여서 고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2년(919년)에 3성, 6상서, 9시, 6위를 두었는데 대개 당나라 제도를 본뜬 것이다. (高麗太祖 開國之初 參用新羅泰封之制 設官分職以諧庶務 然其官號或雜方言 蓋草創未暇革也 二年 立三省 六尙書 九寺 六衛 略倣唐制) <고려사 76, 지 30>”

- (3) 가. 여종은 초저녁에 다 찢고는 절에 가서 염불하기를[우리말에/속담에 ‘내 일 바빠서 큰 집 방아 서두른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듯하다].(婢一更舂畢 歸寺念佛[俚言 己事之忙 大家之舂促 盖此出乎]) <삼국유사 권5, 감통, 육면비념불서승>
- 나. 유숙은 태연하게 “공은 서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우리말/속담을 써서 위로해 말하기를, “어찌 앞의 부러움만 알고 뒤의 부러움은 위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淑怡然曰 公不要忙 因以俚語慰之曰 安知先之羨 不爲後之羨也) <고려사 권112, 열전 25, 제신, 유숙>

(3)의 한문 본문의 ‘이언(俚言), 이어(俚語)’는 장윤희(2015: 388)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속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3가)는 경덕왕 대의 ‘육면’이라는 여종에 대한 기사이지만 ‘이언’ 운운은 일연의 주석으로서 고려 시대에 사용되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담은 한 시기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사용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렇게 보면 (3나)에서 공민왕 대의 인물 유숙(柳淑)이 말한 속담 역시 고려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회자되던 속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속담은 모두 ‘이언’, 곧 “항간에서 쓰이는 우리말”(장윤희, 2015: 389쪽)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속담들이 우리말로 회자되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기문(2003)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듯이 “忽(*홀) <고구려>, 己/只[*기] <백제>, 城叱[*жат] <신라>”이나 “𪛗/呑/頓[*단] <고구려>, 谷[*실] <신라>”, “買[*미] <고구려>, 勿[*물]” 등과 같이 삼국의 말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삼국의 언어 차이는 말그대로 국어의 차이인지 방언의 차이인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른 어형의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못지 않게 한 나라 경계 안에서도 지방에 따른 어형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 (4) 가. ‘厭𪛗’은, 혹은 ‘異次’라고도 하고, 혹은 ‘異處’라고도 하는데 지역 음이 다른 것이다. ‘𪛗, 頓, 道, 觀’ 등은 모두 글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 곧 조사이다. (厭𪛗 或作異次 或云異處 方音之別也 𪛗頓道觀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삼국유사 권3>
- 나. 왕의 성은 부여 씨로서 어라하라고 부르는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르니 중국 말로는 모두 왕이다.(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韃吉支 夏言並王也) <주서 (636) 이역전 백제>

5)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번역 자료에 대한 주석(주 087)에서도 이 속담이 육면 이후 고려 시대까지 널리 회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

(4가)는 이차돈으로 알려진 인물 “厭觸”의 ‘厭’에 대한 윽차 표기가 ‘異次’, ‘異處’로 달라진 것이 “方音”, 즉 지방 소리의 차이에 따른 것, 곧 ‘異次’로 발음하는 지역과 ‘異處’로 발음하는 지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발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언이다.⁶⁾ (4나)는 백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가 달랐음을 말해 주는 진술로 널리 알려진 기록이다. 백제의 지배층이 남하한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마한 정착민이었으므로 이 역시 고구려 지방과 백제 지방의 방언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러한 방언 차이가 백제의 계층 방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훈민정음 창제 전의 말하기 생활, 곧 구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특히 당시의 고유어로 음악을 즐겼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노래는 대부분 가사가 고유어로 지어졌던 듯하다.

(5) 가.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음악을 고려에서 함께 사용하고 그것을 악보에 편입시켰으므로 여기에 덧붙여 적는다. 가사는 모두 이어이다.(新羅百濟高句麗之樂 高麗並用之 編之樂譜 故附著于此 詞皆俚語) <고려사 악지, 악2, 삼국 속악>

나. 그러나 한시는 중국말로 글을 짓되 5언 7자로 다듬고, 향가는 우리 말을 배열하되 3구 6명으로 가다듬는다.(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 <균여전 권8, 역가공덕분 중 최행귀 서문>

(6) 속악은 곧 그 말이 비루한 언어가 많아서 심한 것은 단지 그 노래 이름과 가사의 의미만 기록한다.(俗樂則語多鄙俚 其甚者 但記其歌名與作歌之意) <고려사 악지, 악1, 서문>

(5)는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의 노래에 대한 기록이다. (5가)은 삼국의 ‘이어’, 곧 삼국 각 국의 언어로 된 속악이 존재했고, 그것이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원래 고려 속요가 평민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삼국의 ‘속악’ 역시 당시 평민들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속악이 모두 ‘이어’로 지어졌던 것이다. (5나)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의 ‘향가’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향가가 ‘우리 말’[향어]로

6) “스스로 원효라고 부른 것은 대개 처음으로 부처의 해를 빛냈다는 뜻이니, 원효 역시 신라의 말이다. 당시인들도 모두 신라 지방의 말로 그를 불렀으니 ‘始旦’이다 (自稱元曉者 蓋初輝佛日之意爾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皆以鄉言稱之 始旦也) <삼국유사 권4>”의 “鄉言”을 ‘지역의 말’ 정도로 보아 이 역시 방언의 존재를 암시하는 진술로 볼 수 있을 듯도 하다. 그러나 문맥상, ‘元曉’가 한자어 인명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방언, 곧 신라어를 차자 표기한 것임을 밝히고, 당시 신라 사람들도 신라의 말 ‘始旦’으로 그를 불렀다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결국 여기의 “鄉言”은 앞의 “方言”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향가의 향유층은 화랑이나 승려였으나 이들이 즐기던 향가 역시 고유어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되는 일이다. 물론 통일신라 이전에 한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시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으로는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증문시〉(612년), 진덕여왕이 지었다고 기록된 〈오언태평송〉(650년), 통일신라 말 최치원의 한시 등 극히 소수만이 전해질 뿐이며, 그 작자층 역시 매우 한정된 유식층일 뿐이다.

현전하는 고려 속요 작품을 통해서도 고려 시대 평민들의 노래인 고려 속요가 우리말로 이루어진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조선 초에 증언해 주는 것이 (6)이다. 통일신라 이전에 비해 고려 시대에는 한시가 활발하게 창작되고 질적으로도 발전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의 민중들은 여전히 우리말로 된 노랫말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사》의 〈악지〉에 고려 속요를 수록하고자 하지만 가사가 ‘이어’여서 실지 못하는, “사리부재(詞俚不載)”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장윤희, 2015: 391쪽)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의 말하기 생활의 대부분은 고유어로 이루어졌으며, 삼국 시대 이후 점차 확대된 한자, 한문의 영향으로 구어에도 한자어가 점차 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훈민정음 창제 전의 읽기 생활

훈민정음 창제 전 독서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한문 서적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고려 시대까지 가장 널리 읽힌 것은 불경 등 불교 관련 한문 문헌이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의상 등이 당으로부터 들여온 불경 등은 당시 불교 사상의 전파 과정에서 널리 읽혀졌음은 물론일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원효의 《화엄경소》, 《대승기신론소》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주석서의 편찬은 당시 주요 문식층인 승려들의 치열한 독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훈민정음 창제 전, 삼국 시대는 물론 특히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유학서도 독서의 대상이 되었다.⁷⁾ “설총은 … 우리말로 9경을 읽었다.(聰性 … 以方言讀九經) 〈삼국사기 46〉”, “설총은 나면서부터 명민하여 경서와 역사서에 두루 통달하니 신라 10현 중 한 분이다.(聰生而睿敏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삼국유사 4〉” 등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게 해 준다.⁸⁾ 고려 시대에는 광종의 과거제 시행과 성종의 유학 숭상⁹⁾

7) 최근 ‘정사년(丁巳年)인 597년 또는 657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 조성터에서 《논어》〈학이편〉 등의 구절을 쓴 목간이 출토된 사실은 당시 백제에서 유학서를 읽었음을 증명해 준다. 특히 구절을 띄어 쓴 경우도 있어 당시의 본문 이해 정도도 나타나 있다.

등으로 유학서가 보다 널리 읽혀졌다.

불교서든 유학서든 한문 문헌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구결을 달아 읽었는데,¹⁰⁾ 고려 중엽인 13세기 중엽까지는 한문 원문의 모든 요소들을 한국어 문장으로 풀어 읽는 방식인 석독구결을 달아 한문을 읽었다. 석독구결은, 한국어의 어순과 다른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풀어 읽으면서 원문 사이에 주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토를 넣어 읽되 필요할 경우 한문 원문의 한자를 음이 아닌 석(釋)으로 읽기도 함으로써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한문을 풀어 읽는 방식이다.¹¹⁾ 석독구결에 의해 읽기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간행된 한문 불경의 행간 등에 직접 붓으로 석독구결을 단 자토석독구결 자료와 한문 원문의 한자 주변에 약속된 구결자에 해당하는 점, 선 등을 각필(角筆)로 찍어 표시하거나 붓으로 기입한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있다. 현전하는 석독구결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들 자료는 모두 고려 시대 이후의 자료들이다.

[표 1] 자토석독구결 자료 목록(안대현, 2019: 15쪽)

서명	권차	소장처	추정 현토 시기	소개 시기
석화엄교분기원통초	권3	월정사 등	10세기	1987년
화엄경소	권35	대구 개인	12세기 초기	1994년
주본 화엄경	권14	대구 개인	12세기 중기	1993년
합부금광명경	권3	청주고인쇄박물관	13세기 중기	1994년
자비도량참법	권4	기림사박물관	13세기 중기	2015년
구역인왕경	권상	수덕사박물관	13세기 후기	1973년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국립한글박물관	13세기 후기	1993년

8) 이 밖에 삼국 시대에 특히 백제에서는 도교서도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에 고구려군을 추격해 수곡성(水谷城)까지 이르렀을 때 막고해 장군이 태자를 설득한 “장군 막고해가 간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워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백제 본기 2, 근구수왕>”라는 기록에서 <노자> 제44장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1993년에 발견된 백제 사비 시대의 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에 신선상이 새겨져 있는 사실 역시 당시 도교서가 읽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9)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더욱 유학을 숭상하여, 지난날 편찬하던 책은 이어서 편찬하고 당년에 보충하던 것은 계속해서 보충하게 하였다.(寡人自從嗣位 益以崇儒 踵修曩日之所修 繼補當年之所補 <고려사 권3 22, 성종 9년(990년)>)

10) “동지사 조계상(曹繼商)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구결을 붙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득이 구결이 있는 다음에야 문리가 통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습관이 되었으므로 지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同知事曹繼商曰 中原之人 其言語皆是文字 故不爲口訣矣 我國之人 不得已有口訣 然後可解文理 此已成習 今難變矣) <중종실록 24년 5월 25일(기미)>”라는 기록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한문을 독해할 때는 우리말과 한문의 차이로 인하여 구결을 달아서 읽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1) 석독구결의 의미와 현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장윤희(2003)를 참조할 수 있다.

[표 2] 점토석독구결 자료 목록(안대현, 2019: 18쪽)

서명	권차	소장처	추정 현토 시기	소개 시기
진본 화엄경	권20	성암고서박물관	9~10세기	2001년
주본 화엄경	권6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22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31	호림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34	호림박물관	11세기 초기	2001년
	권36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57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호림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5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8	성암고서박물관	11세기 초기	2000년
	권8	일본 남선사	11세기 초기	2005년
	권53	가천박물관	11세기 초기	2011년
	권61	개인	11세기 초기	2018년
	권66	국립한글박물관	11세기 초기	2018년
법화경	권1	연세대학교도서관	11세기 이후	2000년
합부금광명경	권3	청주 고인쇄박물관	13세기 중기	2004년

그러나 석독구결로 한문 문헌을 우리말에 가깝게 풀어 읽는 방식의 읽기 생활은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가. 설총은 명민하여 나면서부터 도와 학문을 알았고 우리말로써 9경을 읽었다.(聰性明銳 生知道待 以方言讀九經) <삼국사기 46>

나. 설총은 나면서부터 명민하여 경서와 역사서에 두루 통달하니 신라 10현 중 한 분이다. 우리말로 중국과 외이의 각 지방 풍속과 물명에 통달하고 6경 문학을 풀어 해석했다.(聰生而睿敏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삼국유사 4>

다. 설 한림(설총)이 힘써 한문을 우리 문자로 바꾸려 했으나, 결국 쥐꼬리를 만들어 불러들인 장벽이 아니겠는가?(薛翰林強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 <균여전, 역가현덕분>

(8) 다만 당시 편찬자가 문체가 좋지 않아 장구가 비야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섞여 있어 ... 장차 군자가 마땅히 윤색을 가해야 한다.(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

野 雜以方言 … 將來君子 宜加潤色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

(7가, 나)에서 보이는 설총이 9경(또는 6경 문학)을 ‘우리말로’ 읽었다는(또는 풀어 해석했다는) 기록은, 한문 경전을 석독구결로 풀어 읽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장윤희(2015: 398쪽)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7다)는 석독구결로 한문을 읽는 데에서 더 나아가 풀어 읽은 결과인 석독구결문을 써서 유통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7다)는 최행귀가 균여의 향가 11수를 한역하면서, 설총의 석독구결문이 정통적인 한문이 아니어서 중국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장윤희, 2015: 398쪽), 설총의 석독구결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표 1]에서 보인 <석화엄교분기원통초>(약칭 <석교분기>)이다. 이는 균여가 우리말로, 즉 석독구결로 경전을 풀이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방대한 양의 저술 가운데 일부인데, 석독구결문으로 기록된 것을 13세기 천기와 그 제자들이 여기에서 방언 요소, 곧 석독구결 등을 제거하고 원문을 한문으로 돌려 놓는 작업을 하면서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 옛 방언본의 모습대로 남은 것이다.(안병희, 1987/1992: 317쪽) 한편 (8)은 의천이, 의상의 강의를 그 제자가 기록한 『요의문답』 2권, 『일승문답』 2권에 대하여 평한 것인데, 이들 기록에도 <석교분기>와 같이 우리말 요소가 포함되어있음, 곧 석독구결문이었음을 당시 한자를 중시하는 문자관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남풍현, 1989: 80-81쪽; 장윤희, 2015: 396-397쪽)

이상의 기록들은 적어도 의천이 활동하던 시대인 11세기까지는 한문 문헌의 원문을 석독구결을 달아 읽었으며 그 결과인 석독구결문을 써서 유통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석독구결에 의한 읽기는 13세기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음독구결에 의한 읽기로 그 방법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한문 원문을 일일이 풀어서 읽지 않아도 의미를 충분히 독해할 수 있을 만큼 한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4. 훈민정음 창제 전의 쓰기 생활

훈민정음 창제 전의 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주로 정통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신라 및 고려 승려, 학자들의 유명한 저술이 모두 그러하다. 이러한 글쓰기는 아주 극소수의 상위 문식층에서 가능한 일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통 한문에 의한 글쓰기가 당시 쓰기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에도 여기에서는 이를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시에 작성된 정통

한문 속에는 우리말 요소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어문생활을 살피는 우리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은 우리말을 표기에 반영한 쓰기 생활인 셈이다.

앞서 2장에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나 관직명, 호칭 등은 고유어로 소통하는 말하기 생활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유어들이 글로 쓰여질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 문서나 역사서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이때에는 당시의 유일한 문자인 한자를 이용한 차자 표기 방법으로 기록되는 일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통 한문으로 작성되는 역사서에도 고유어 요소들이 차자 표기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차자 표기된 고유어 지명, 인명 등에서도 그 실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9) 신라 때 고구려와 백제가 함께 정립하는데 이르러 각각 국사를 두어 그때의 일을 말아 기록하게 했으나, ... 또 방언을 많이 섞어 써서 말이 단아하지 못한 데가 많다. 고려의 문신 김부식이 이것을 모아 정리하여 『三國史』를 만들었는데, ... 방언이 어를 다 없애지 못했는가 하면(遼新羅氏與高句麗百濟鼎立 各置國史掌記時事 ... 且多難以方言 辭不能雅 前朝文臣金富軾輯而修之爲三國史 ... 方言俚語未能盡革) <권근, 양촌선생문집(15세기 초) 19, 삼국사략 서>

(9)에서는 삼국이 모두 ‘국사’를 두어 역사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 ‘방언’ 또는 ‘방언이어’가 많았으며 이를 정리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이러한 요소가 남아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때의 ‘방언, 방언이어’는 차자 표기되어 들어간 우리말 요소이다.(장윤희, 2015: 400쪽)

이들 고유어 명칭이 정통 한문 속에 차자 표기되어 들어가면 이들은 나머지 부분과는 이질적인 요소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한자와 한문으로 자국어 표기하는 중국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식층에서는 정통 한문 속에 차자 표기되어 들어간 고유어 요소를 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이어(俚語), 이언(俚言)’ 등의 부정적 명칭으로 이들을 가리켜 부르게 되었다.(장윤희, 2015)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유어 요소를 정규 한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한자식으로 수정되는 일이 많았다. 저 앞 (2)에서 통일신라 말의 최치원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의 고유어 칭호를 버리고 한자식 칭호인 왕으로 통일하여 표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한문 기록에 나타나는 고유어 요소를 정규 한문에서 통용되는 한자로 바꾸는 일은 통

일신라 이후 조선 중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난다. 조선 중기 이준(1560~1635)의 《창석집》에서 볼 수 있는, ‘油淸’, ‘田畚’, ‘一千同’ 등을 각각 ‘油蜜’, ‘田土’, ‘五萬匹’로 바꾸자는 제안(장윤희, 2013: 60쪽) 역시 이러한 한자식 수정과 통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석독구결문, 곧 한문 원문을 구결을 달아 우리말 문장으로 풀어 읽은 문장이 통일신라는 물론 11세기까지 널리 유통되다가 이들이 변칙적인 한문이어서 중국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원래의 한문으로 돌려놓은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훈민정음 창제 전에 한국어 문장을 반영한 글쓰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두문이다. 이두문이 처음에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변형한 일종의 변격 한문에서 출발하여 점차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정밀하게 표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8세기 중엽 본격적인 이두문이 나타났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 고려 시대 중엽부터는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 이전의 이두자 ‘之’ 대신에 ‘齊’가 쓰이고, 주제 높임 선어말어미로 ‘賜’가 쓰이지 않고 한문의 어휘 부분을 표기한 한자를 혼독하는 일도 줄어드는 등 이두자의 변화가 생기고, (장윤희, 2004: 51쪽) 점차 문서에 정형화한 이두문 양식이 쓰였다. 삼국 시대 이후의 이두 자료는 대부분 금석문 자료이고, 문서 이두 자료는 8세기 이후, 특히 고려 시대에 일반화된다.¹²⁾ 그런데 이두에 의한 한국어 문장 표기의 변화, 특히 고려 시대에 발견되는 이두문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 (10) 987년(고려 성종 6년) 가을 8월 을묘일에 이몽유에게 명하여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리는 주(奏)와 장(狀), 관청끼리 주고받는 공문 양식을 상정하도록 하였다. [(丁亥) 秋八月乙卯 命李夢游 詳定中外奏狀及行移公文式] <고려사 권3, 10-11쪽, 성종 정해(성종 6년)>

(10)은 왕명에 의해 이몽유(李夢遊)가 각종 행정 문서 양식을 상정(詳定)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에서도 11세기를 전후하여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문서 양식을 새로 정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이두자도 규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¹³⁾

애초에 이두는 머릿속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한 차자 표기이다. (장윤희, 2004: 54쪽)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전에 한문¹⁴⁾을 번역한 번역문 작성에도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번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풍현(2000), 이승재(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남풍현 선생님께서 시사하신 바 있다. 필자의 과묵한 탓으로 이 내용이 담긴 글을 찾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만을 밝혀 둔다.

14) 《대명률》은 정통적인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의 ‘한문’은 선진 시대에 형성된 고전적인 정통 한문만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중국의 기록 전체를 가리킨다.

역은 한문 원문에 구절을 달고, 이를 바탕으로 원문 한자의 자석을 고려하여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인데, 그 결과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을 ‘언해’라 함에 비해, 이두로 표기한 것은 ‘직해(直解)’로 이름 붙이는 일이 많았다.¹⁵⁾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두로 한문을 번역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명률직해》이다. 그런데 이두로 한문을 번역한 책들은 조선 건국 초기에 주로 간행되었는데, 이들은 법률, 농사 등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책이다.

(11) (전하께서) 대명률을 우리말[방언]로 번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다. 무릇 처결할 때에는 모두 이 법률을 이용한다[(今殿下) 將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 凡所斷決皆用此律] <조선경국전(1394) 헌전, 총서>

(11') (우리 전하께서)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몰라서 금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주무 관청에 명하여 대명률을 우리말[방언]으로 번역하게 해서 대중이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今我殿下) 又慮愚民無知觸禁 爰命攸司將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 <삼봉집(1397) 8, 헌전, 총서>

(12) 원 왕조의 『농상집요』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서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서 알기 어려우니, 원컨대 우리나라의 말[본국 이어]로 번역하여 방방곡곡의 소민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元朝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雅 人人未易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鄉曲小民無不知之) <태종실록, 14년(1414년) 12월 을해(6일)>

(11)은 조선 개국 직후 명의 《대명률》을 ‘방언’, 곧 우리말로 번역하여 시행했음을 말해 주고 있는 정도전의 증언이고, (12)는 태종 대에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의 《농상집요》를 농사서를 ‘본국 이어’, 곧 우리말로 번역해 알리기를 주청하는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의 주청이다. (11)에서 ‘방언[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 이듬해인 1395년(태조 4) 1~6월 사이에 《대명률직해》가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¹⁶⁾ 이두문으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고, (12) 역시 한상덕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1415년(태종 15) 5월에 《양잠경험촬요》가 이두문으로 간행되었으므로¹⁷⁾, 여기에서 ‘본국 이어[우리말]로 번역’한 것 역시 이두문으로 번역

15) 그렇다고 ‘직해’가 이두로 번역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춘추좌전》을 고전 한문으로 풀이해 놓은 책의 서명에도 ‘직해’가 들어간 《춘추좌전직해》이므로 ‘직해’는 원문을 자세히 풀어 해석한 책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처음 지정한 것은 ‘안병희(2003), 『대명률직해』의 서명,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에서이다.(장윤희, 2003년: 275쪽)

16) 김지(金祇)가 쓴 《대명률직해》 발문이 ‘홍무 을해년’, 곧 1395년(태조 4)에 쓰여졌고, 이 책의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 조에 ‘양광도(楊廣道), 서해도(西海道),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등이 나오는데, 이들 지방 명칭이 태조 4년(1395년) 6월 13일(을해)에 각각 ‘충청도(忠淸道), 풍해도(豐海道), 강원도(江原道)’로 바뀌었으므로, 《대명률직해》는 1395년 1월~6월 13일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장윤희, 2003년: 276-277쪽)

17) 《양잠경험촬요》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현재 16세기 이후의 중간본만이 전하는데, 중간본의 간기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심각할 수 있는 법률과 형벌과 관련된 책, 경제적 생활과 밀접한 양잠 등 민생에서 긴요한 문제들과 관련된 책들이 이두로 번역되어 전파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두로 번역한 민생 관련 문헌들의 간행 목적이 (11), (12)에서 보듯이 모두 ‘위민’, 곧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1)에서는 백성들이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12)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마치 이들 이두 번역서의 독자로 백성들을 상정한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일반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문식층이 아니었으므로 직접적인 독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런 문헌을 펴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책이 이두문으로 번역된 사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두문에 익숙한 계층은 실제 문서 작성 등에서 이두를 사용하던 계층인 하급 관리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1), (12)에서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했으나 이는 백성들이 직접 이들 문헌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들로 하여금 이들 문헌을 이해해서 백성들을 계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문헌의 독자로 백성을 상정하고는 있으나, 백성들은 직접적인 독자가 아니라 이들 문헌을 이해한 하급 관리에 의해 일깨워지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앞서 우리는 차자 표기한 고유어들이 통일신라 시대 말 이후 정규 한문에 어울리는 한자어로 대체되었으며, 한문 원문의 사이에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구결을 달아 원문을 우리말 순서대로 풀어 읽은 석독구결문이 작성되어 유통되다가 11세기 이후 석독구결을 제거한 한문으로 다시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우리말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글이나 한문 속의 우리말 요소를 한문식으로 수정하는 일은 이두문에서도 나타난다. 남풍현(1989: 81쪽)에서는 의천의 시대인 11세기 이후, 오래 전하기 어렵고 쉽게 읽기 어려우며 중국인 등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자 표기로 기록된 문장보다 한문을 더 높게 여기는 인식이 나타난 사실의 근거로 이규보가 1225년에 쓴 〈왕륜사 장육금상 영험수습기(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에서 ‘유기(遺記)가 방언으로 기록되어 길이 전할 수 없어 한문으로 다시 썼다’고 말한 사실, 〈오대산 사적(五臺山寺迹) 발문〉에서 민지(閔漬)가 ‘이 절의 기록들이 신라 시대의 향언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고 중국 사신에게도 보일 수 없

“영락 13년(1415년, 태종 15년) 5월에 우대언 한상덕이 양잠서를 번역하여 간행해 반포하라는 왕의 교지를 받들었는데 도관찰출척사 안은이 명을 이어받아 기술자들을 모아 새겨서 이달에 작업이 끝났음을 보고했기에 모든 군에 반포하고(永樂十三年五月日 右代言臣韓尙德 奉教王旨 翻譯蠶書刊行頒布 都觀察黜陟使臣安騰 承命募工鋟梓 是月告訖業 頒諸郡)”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한상덕의 주청을 받아들여 만든 책이 《양잠경험촬요》임을 알 수 있다.(장윤희, 2015: 392쪽)

어서 이를 한문으로 고쳐달라는 청을 받아 한문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사실을 든 바 있다. (장윤희, 2015: 397쪽) 이들 기사는 모두 이전에 이두문으로 작성된 글을 정규 한문으로 바꾸어 썼음을 말하는 것으로, 11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이두문과 같이 우리말 요소가 포함된 글쓰기가 하급 관리들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용적 목적 이외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핀, 이두를 이용한 우리말 표기는 주로 통일신라 시대 이후 고려 시대까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이른 시기, 특히 삼국 시대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목간 자료들이 속속 출토되고 이에 대한 한국어학적 관심이 기울여지면서 그동안 삼국 시대 금석문만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던 삼국 시대의 언어나 글쓰기 양상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최근 출토된 6세기 말~7세기 초의 신라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과 6세기 경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 7세기 초 백제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나주 복암리 고분군 주변 출토 목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의 경우는 백제 시대의 지방에서도 철저하게 토지 경작 형태 등이 기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신라 지역과 백제 지역의 목간을 비교하여 신라에서는 고유어 중 수사어 표기가 '一等(*헝든), 千隱(*즈믄)'과 같은 이른바 '훈주음종' 방식으로 표기된 데 비해, 백제의 미륵사지 목간에서는 고유어 수사가 '伽第𪛗(*가듭: 하나), 日古𪛗(*닐곱)'과 같이 한음자(韓音字) 표기법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기도 하였다.(이승재, 2017: 419-420쪽)

이 밖에 훈민정음 창제 전의 글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라와 고려의 향가를 적은 향찰 표기이다. 차자 표기법에서 향찰 표기는 우리말을 가장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발전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유독 향가의 표기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사실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가 표기를 위해 고안된 표기법이 향찰이므로 향가의 쇠퇴와 함께 향찰 표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일이 일반적이다.¹⁸⁾ 그렇다면 향찰 표기는 이두 표기와 그 사용역을 달리하여 존재했던 글쓰기 방식이었던 셈이다.

18) 그러나 향찰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향찰 표기 방법 자체가 지닌 성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장윤희, 2017: 95-96쪽) 향찰 표기에서는 우리말 문장의 실사를 표기할 때 매번 훈차나 음차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훈차든 음차든 수많은 한자 가운데 하나를 서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열린 표기법이었다. 이렇게 서사자는 편하게 적을 수 있지만, 독해자에게는 항상 '해독'을 해야 할 정도로 편하지 않은 표기법이 향찰 표기였으므로 이러한 표기법의 특성상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5. 어문생활의 주체와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지금까지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전 우리의 어문생활을 살피면서 어문생활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앞서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말하기 생활의 경우, 지명, 인명, 관직명 등의 명칭, 호칭은 물론 노랫말 등이 고유어로 지어지는 등 고유어를 말하기가 일반적이었는데, 경덕왕의 지명 개명, 통일신라 시대 이후 점차 한자와 한문 사용에 능숙해지면서 말에서도 점차 한자어가 늘어났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이 저 앞 (2)에서 살펴본 김부식의 사론이다. 이러한 말하기 생활은 일반 민중에서 문식층까지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식층의 경우 보다 이른 시기부터 한자어의 사용이 빈번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분명히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말하기 생활과는 달리 읽기, 쓰기 생활은 극히 제한된 계층, 곧 당시의 문식층만이 그 주체였음은 당연하다. 독특한 것은 11세기 이전까지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읽으면서 원문의 한자 중 일부를 석으로 읽기도 하는 석독구결문으로 읽고 이렇게 한문 원문을 석독구결을 달아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읽은 결과를 글로 써서 유통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문식층의 독자를 상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어 고유어로 읽기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문식층의 한문에 대한 이해도나 능숙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특히 11세기 이후 우리말 요소가 포함된 석독구결문, 곧 우리말 요소가 포함된 읽기 결과 문장은 점차 사라지고, 한문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둔 채 원문의 한자를 음으로만 읽으면서 의미 단위의 전후 문법적 관계만 구결로 표시하는 음독구결을 다는 방식으로 읽기 방법이 바뀌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문 원문을 읽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읽는 주체, 또 읽은 결과를 다시 읽는 독자는 모두 문식층이었다.

쓰기 생활의 경우도 우리말 요소가 포함되기 어려운 한문으로 글을 쓰느냐, 우리말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이두문으로 글을 쓰느냐 하는 차이점은 있었으나, 쓰기의 주체가 소수의 문식층이었음은 물론이다. 삼국 시대의 목간에 《논어》 구절이 포함되었다든지, 많은 목간이 꼬리표 목간, 곧 하찰(荷札) 목간이라든지 하는 사실들은 삼국 시대 이후 쓰기 생활의 주체가 한문의 소양이 있는 계층이나 적어도 한문에 대해 알고 있는 하급 관리 이상의 지배계층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승려와 학자 등의 쓰기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전 어문생활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당시의 쓰기 생활이 말하

기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앞서 우리는 문식층의 쓰기 생활이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문 속에 고유어 요소가 들어갈 때 차자 표기되는 요소를 정규적인 한문을 망치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여 11세기 이후 이러한 ‘이어’들을 정통 한문의 요소로 바꾸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쓰기 생활의 주체들이 한문이 당시 동아시아의 공통문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따라서 한문 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그러나 애석한 것은 우리나라의 재주 있고 이름난 사람들은 한시를 이해해서 읊조리는데, 중국의 큰 선비와 석학마저 우리나라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문[당문]은 제석천의 보배로운 망이 얹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향찰은 범자가 계속 펼쳐진 것 같아서 중국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 … 而所恨者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鄉謠 矧復唐文如帝網交羅 我邦易讀 鄉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 <균여전 권8, 역가공덕분 중 최행귀 서문>

(13)은 저 앞 (5나)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최행귀가 균여의 향가 작품을 한역한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시 등 한문[당문]은 우리도 읽을 수 있는데, 향찰은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인들의 한문을 일종의 공통문어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수 문식층 뿐이었으니, 이러한 인식은 당시 문식층의 인식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식층의 한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이전의 기록 속에서 고유어 요소는 글 속에서 대폭 사라지게 되었다. (14)는 이렇게 글 속에서 고유어 요소가 사라진 일이 조선 세종 대에까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쓰기 생활에서 고유어 요소를 한문에 어울리도록 바꾸는 일은 비단 쓰기 생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유어 요소를 삭제하거나 한문화한 기록이 유통되어 이러한 명칭, 용어 등이 점차 문식층, 그중에서도 지배계층에서 일반화되면 이러한 말들은 정치, 문화, 행정을 통해서 점차 피지배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모든 계층의 말에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 등 한문화한 표현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문식층의 쓰기 생활에 의해서 전계층의 어문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전 우리의 어문생활, 특히 쓰기, 읽기 등의

문자생활에서는 문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 주체로 인식되거나 고려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자생활의 주체로 일반 백성이 전면적으로 고려된 것은 세종에 와서 처음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어문생활사에 있어서 세종이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14) 만일에 말하기를, 형 집행과 옥사의 말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글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 차이로 혹시 원통함을 당할 수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바로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세종실록 26년(1444년) 2월 20일조>

(15) 지혜로운 자는 아침이 가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도 10일이면 배울 수 있다.(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정인지 서>

(14)는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으로서, <정인지 서>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의 효용성으로 언급한 “송사”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사에서의 글을 훈민정음으로 썼을 때의 효용성에 대한 당시의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¹⁹⁾ 이를 통해 “우민(愚民)”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우지인(至愚之人)”도 글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우민’이 세종의 <어제 서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愚民]’과 다를 수 없는데, (15)의 <정인지 서>에서는 훈민정음이 ‘어리석은 자[愚者]’라도 쉽게 깨칠 수 있는 문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어문생활사에서 처음으로 비문식층인 일반 백성들이 문자생활의 주체로 고려되었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문식층의 인식으로 글에서 고유어 요소를 한문화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언어생활에서도 고유어가 사라지는 일이 나타났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훈민정음의 창제는 이와 정반대

19)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형옥과 관련하여 초서를 ‘향언이어’로 작성하는, 곧 이두문으로 작성하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영의정 황희가 계하기를, ‘중외의 죄인을 신문할 때 향언이어로 초사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알 만한 곳이 있더라도 헛수가 오래 되면 알 수 없으니, 형조로 하여금 법을 재정하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領議政黃喜啓 中外罪人推考時 以鄉言俚語取招 其辭專未知會 雖有可知之處 年久則不知 令刑曹立法禁斷何如) <세종실록, 16년(1434년) 10월 무진(25일)>”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형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이두로 부정확하게 기록되는 등의 문제가 이때부터도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당시의 문해력을 가진 지배층에서 훈민정음을 한문과 대등한 문자로 인식하는 일이 드물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었으나, 이후 ‘본국 이어(本國俚語)’가 글 속에 표기되어 들어갈 수 있는 ‘언어(諺語)’로 인식되고(장윤희, 2018) 실제로 표기됨으로써 훈민정음 창제는 이후 우리의 어문생활사에서 고유어가 다시금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전 우리의 어문생활은 어떠했는지를 말하기 생활, 읽기 생활, 쓰기 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어문생활 속에서 그 생활의 주체는 어떠했으며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살핀 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 창제가 갖는 또 다른 의의를 구명해 보았다. 이 내용은 어쩌면 상식적일 정도로 일반화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로 해당 시기의 언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문생활에 초점을 두고 그 속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찾는 논의를 드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훈민정음 창제 전의 상황에서 문식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어문생활의 전면에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이 시기 말하기 생활에서만 일반 백성들이 고유어로 생활의 주체로 참여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문식층의 인식에 의한 문식층의 한문화라는 쓰기 생활의 변화가 전 계층의 어문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문생활에서 고유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당시 문식층들은 비문식층인 일반 백성들을 문자생활의 주체로 인식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백성을 문자생활의 주체로 참여시키듯 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오히려 예외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는 이후 고유어가 기록될 수 있는 언어로서 인식되고 표기됨으로써 한자어의 위세 속에서 고유어가 다시금 움틀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어문생활사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신항(2006), 『(수정증보)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권인한(2022), 2021 신라 언어 연구 성과와 과제, 『신라학리뷰』 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07-123쪽.
- 남풍현(1989), 고려시대의 언어·문자관,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76-88쪽.
-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백두현(2004), 우리말[한국어]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 『언어과학연구』 28, 언어과학회, 115-140쪽.
-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41-72쪽.
- 안대현(2019), 차자표기의 기원과 발달(한글 창제 이전 문자생활 전문가토론회 발표 자료).
- 안병희(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41-54쪽. [안병희(1992: 314-327쪽)에 재수록]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기문(2003), 『국어사개설』(신정수정판), 태학사.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이승재(2001), 고대의 '방언'과 그 유사 지칭어,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49-63쪽.
- 이승재(2017),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일조각.
- 장윤희(2003ㄱ), 이두 연구사,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397-426쪽.
- 장윤희(2003ㄴ), 대명률직해의 서지학적 고찰,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265-288쪽.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쪽.
- 장윤희(2008), 향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203-230쪽.
-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87-311쪽.
- 장윤희(2013), 근대 이행기 한국에서의 자국어 인식, 『한국학연구』 3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49-91쪽.
- 장윤희(2015), 자국어를 가리키는 '俚語'와 차자 표기의 관련성,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79-409쪽.
- 장윤희(2017),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적기: 이두, 향찰, 구결, 『동아시아의 문자와 책』(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73-106쪽.
- 장윤희(2018), 『훈민정음』 해례본의 언어 관련 지칭어, 『안병희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역락, 545-562쪽.
- 장윤희(2021),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교육 방안,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21』, 훈민정음학회, 105-116쪽.

훈민정음 창제와 백성들의 언어생활 변화

김유범(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에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편민과 홍학, 실용이라는 창제 의도, 그리고 부수적으로 동반된 백성교화라는 효용성이 존재했다. 새 문자의 창제는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백성들의 새로운 말글살이를 가능케 했고, 이로 인해 한자 학습의 방법과 효과, 그리고 일상생활 속 풍경까지도 달라지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그 배경과 의도 및 그로 인한 효용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야 했고 창제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창제 의도를 여러 기록들을 통해 알아보고 새 문자가 가져온 효용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가 실제로 백성들의 말글살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난 생활 풍경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2.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효용성

2.1. 시대적 요구와 창제 배경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자를 이용한 전통적인 문자 생활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 데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및 요구와 맞물려 현실 개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1. 전통적인 문자 생활의 한계

한반도에 한자가 들어와 쓰인 것은 무척 오래전의 일이다. 한자로 쓰인 기록이 남아 있는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한자가 들어와 그 이후 이를 이용한 문자 생활이 지속되었다. 고립어인 중국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단어 하나하나를 표기할 수 있는 한자는 교착어인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유명사는 물론이고 특히 조사나 어미와 같은 우리말에서 중요한 문법적 요소들을 일반적인 한자 사용으로는 적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통적인 한자 사용이 아닌,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말을 적고자 했다.

- (1)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 이두를 만들어 지금까지 관부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서 쓰는 것이라 사용하기에 껄끄럽기도 하고 막힘이 있기도 하다. 이두는 비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다.(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훈민정음 해례본(1446) 정음해례 27a-b>

이른바 ‘차자표기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원활하고 편리한 문자 생활을 이끌지 못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가져다가 임시방편으로 손을 보아 몸에 걸친 것처럼 억지스럽고 불편한 일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차자표기법은 한자에 대한 지식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자 생활이라고 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2.1.2. 한자음 정비의 필요성

한자를 익혀 책을 읽고 공부해 이로 인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따라서 한자를 정확히 익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로 하나의 한자는 뜻과 음

을 함께 지니고 있어 매 글자마다 익히고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았다. 이때 뜻과 음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반도에 정착한 한자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한자음은 중국 본토와 많은 차이가 생겼는데,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2) 가. 하물며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산하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어 지리와 기후 조건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어음의 발음이 어찌 중국어의 어음과 서로 부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즉, 어음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이거니와 한자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중국의 본토 자음(字音)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발음하고 발음하는 사이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이 또한 반드시 저절로 어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한자음이 역시 따라서 변한 까닭인 것이다.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전과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 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스승이나 일반 선비들이 반절법도 모르고 자모와 운모의 분류 방식도 몰라서 혹은 글자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음으로 하고, 혹은 앞 시대에 임금의 휘자 같은 것을 피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음을 빌리며, 혹은 두 글자를 합해서 하나로 하고,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리고,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거나 덜며, 혹은 중국 본토음을 따르고, 혹은 우리나라 음을 따라서 자모와 칠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矧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關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清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以傳其正, 庸師俗儒不知切字之法, 昧於紐躡之要, 或因字體相似而爲一音, 或因前代避諱而假他音, 或合二字爲一, 或分一音爲二, 或借用他字, 或加減點畫, 或依漢音, 或從俚語, 而字母七音清濁四聲, 皆有變焉.) <동국정운(1447) 서:1b-2b>

나. 세상에서 유학 분야의 스승 노릇하는 이들이 가끔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사로이 스스로 이를 고쳐 가지고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제멋대로 고치는 일이 어려워 옛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이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하니 만일에 한번 이를 크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잘못된 것이 더 심해져서 장차 이를 바로잡지 못할 폐습이 있을 것이다.(世之爲儒師者, 往往或知其失, 私自改之, 以教子弟, 然重於擅改, 因循舊習者多矣. 若不一大正之, 則愈久愈甚, 將有不可救之弊矣.) <동국정운(1447) 서:3b>

특히 (2나)는 한 번 잘못된 것이 오랜 습속이 되어 고쳐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과거에서 운문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한시 작법에 따라

동일 운(韻)을 지닌 글자를 정해진 위치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한자들이 서로 동일 운인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자음의 혼란은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자음을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꼭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2.1.3. 주변국의 문자 제작

문자적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은 고립어인 중국어와 달리 교착어를 사용했으므로 이들 언어를 한자로 적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한계도 분명했다. 따라서 일찍이 여러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 부록에 실려 있는 그의 행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¹⁾

- (3) 임금께서 우리나라 음운이 화어와 비록 다르나 그 아·설·순·치·후, 청탁, 고하가 한어와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 나라가 모두 제 나라 언어음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고 있으나 홀로 우리나라만이 글자가 없다고 하셔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 언문 관계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직접 임금의 재가를 받들었다.(上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其牙舌唇齒喉清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列國皆有國音之文。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設局於禁中。擇文臣撰定。公實承睿裁。) <文忠公行狀(晉山 姜希孟 撰)>

실제로 당시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만든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자들이 있었다.²⁾

- (4) 가. 티베트의 서장(西藏) 문자: 7세기
나. 요(遼)의 거란 문자: 10세기(대자 920년, 소자 924~925년)
다. 금(金)의 여진 문자: 12세기 초(대자 1119년, 소자 1138년)

1) 신숙주의 묘지(墓誌)와 비명(碑銘)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世宗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其五音清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而列國皆有國字。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設局於禁中。擇文臣撰定。公實承睿裁。〈墓誌(門人吏曹參判 李坡 撰)〉
世宗以諸國各製字。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字母二十八字。名曰諺文。開局禁中。擇文臣撰定。公獨出入內殿。親承睿裁。〈碑銘(陽城 李承召 撰)〉

2) 이에 대한 전체적인 언급은 정광(2006)에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정광(2015)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자가 지닌 보다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국립한글박물관(2015)와 Rogers, H(2005)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용 외 옮김(201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라. 몽골의 위구르 문자와 파스파 문자: 12세기 후반과 13세기(1269년)

이 중 (4나)와 (4다)는 각각 거란 대자(大字)와 거란 소자(小字),³⁾ 여진 대자와 여진 소자로 나뉘는데, 이 문자들은 대개 한자를 변형해 만들었으나 일부(거란 소자)는 표음적인 위구르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4가)는 7세기에 인도 문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모음 [a]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나머지 모음들을 적기 위해 자음 글자 위나 아래에 구별 기호를 사용하는 아부기다(abugida) 유형의 문자이다. (4라)의 몽골 위구르 문자[畏兀字]는 아랍 문자로부터 파생된 소그드 문자를 위구르인들이 도입해 사용한 위구르 문자를 몽골인들이 몽골어 표기를 위해 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몽고신자(蒙古新字)로, 또는 사각형의 문자라는 점에서 첩아(월)진(帖兒(月)眞)으로도 불리는 것이 파스파 문자이다. 이는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모음 /a/를 독자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자음과 모음이 구별 기호가 아닌 자소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유형적으로 아부기다와 알파벳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문자이다.

이처럼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를 적을 수 있는 각자의 문자들을 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고금의 서적들을 섭렵하며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세종에게 주변국들이 제작한 여러 문자가 결코 관심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⁴⁾

2.1.4. 자력에 의한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

『고려사』에는 목은 이색의 중국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 (5) 명(明) 황제가 평소에 이색의 명성을 들었으므로 그를 서너 번 불러서 예우하는 것이 매우 후하였다. 황제가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는 원조(元朝)에서 한림(翰林)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아듣겠구나.”라고 하니, 이색이 바로 중국말로 급히 대답

3) 정광(2015: 81쪽)에서는 표의문자인 거란 대자와 표음문자인 거란 소자의 표기 체계가 각각 신라의 향찰과 고려의 석독구결이 보여 주는 표기 체계와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입장을 김완진(1996: 327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종의 눈으로 볼 때 八思巴문자의 창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의 국자 창제의 시범이었다. 내적으로 신문자 창제의 제요인이 성숙된 상황 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의 국자 창제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忽必烈로 하여금 신자 제작에 뜻을 두게 만든 제요인이, 세종이 당면했던 당시의 우리 나라 사회가 내적으로 지니고 있던 요인과 흡사함을 발견하였을 때, 忽必烈의 故事는 세종의 신문자 제정의 작업에 起動的 요소로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본다.

하기를, “친조(親朝)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예부의 관리가 이색의 말을 전달받아 아뢰었다. 이색이 오랫동안 입조하지 않아 말을 많이 더듬었다. 황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의 중국 말은 나하추[納哈出]와 같구나.”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15 열전 권 제28 제신(諸臣) 이색 / 우왕이 이색을 스승으로 예우하다>

이색은 원나라에서 벼슬을 했을 정도로 중국어에 능통했는데, 중국에 거주하며 익힌 그의 중국어 실력은 고려의 귀중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원명(元明) 교체기를 겪으며 공식적인 중국어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북방 중국어를 기반으로 몽골어의 요소가 가미된 원나라의 중국어는 남방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명나라의 중국어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5)에서 이색이 겪은 곤란한 상황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대교린(事大交隣)을 외교의 기본 틀로 삼았던 조선에게 중국어의 학습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특히 변화하는 중국의 상황에 정확히 대처해 효율적인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는 현지의 중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사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자제들을 중국에 파견해 이른바 중국통(中國通)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높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었으나, 조선의 생각과 달리 당시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음의 실록 기사들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준다.

- (6) 가. 임금이 또 말하기를, “자제들을 보내어서 입학하는 일은 내가 매양 생각하니, 부모 처자와 서로 이별하는 정은 진실로 참을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귀는 데에 요긴한 것은 오로지 중국어[漢語]와 이문(吏文)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사가 겨우 자기의 할 말은 할 줄 알되, 중국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아니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날 태종 때에 진작부터 자제들 입학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판부사 변계량(卞季良)이 말리면서 아뢰기를, ‘우리 통사들의 아는 말만 가지고도 중국과 교제할 수 있는데 무엇하려고 번거롭게 청하랴’가 있겠습니까.’ 하여, 그 일이 그만 중지되었는데, 명 태조 황제 때에 유구국(琉球國)이 재상의 자제를 보내어 입학하게 하니, 황제가 그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기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문(吏文)은 우리나라 사람이 비록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문자로 통할 수가 있지만, 중국에 가서는 언어로서 통화하는 일이 펍 많은데, 중국 사람의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언어라는 것은 털끝만한 차이로 만사가 그릇될 수 있으니 진실로 염려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초안을 써서 요동 향학(鄉學)에 입학하기를 청하게 한

것이니, 중국 조정은 외국 자제의 입학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요동에 입학할 것만 청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고, 더구나 북경은 길도 꽤 가까우니 북경의 국자감(國子監)이나 혹은 요동 향학(鄉學)에 입학할 것을 주본(奏本)에다 기재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허조와 신상이 아뢰기를, “가합니다.” 하므로, 즉시 김청(金聽)에게 명하여 주본을 고쳐 쓰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윤8월 29일 기묘 1번째기사 / 임금이 황제가 동맹가첩목아에게 내린 칙서에 관해 말하다>

- 나. 천추사(千秋使) 공조 참판 박안신(朴安臣)이 하전(賀箋)을 받들고 북경에 갔다. 임금이 몸이 불편하여 친히 전(箋)에 절하지 못하고, 모든 관원들이 전(箋)에 절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이어서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어서 입학할 것을 주청하는 글을 보냈는데,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바다 동쪽에 멀리 있어서 인재가 적으므로, 문학 범절이 틀리게 전해 오고, 잘못 이어받아 정통하지 못하여서 매우 미편하옵니다. 삼가 사책(史冊)을 상고하옵건대, 신라와 고려는 동한(東漢) 이래로 당나라·송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자제들을 보내서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닦게 할 것을 청하였고, 또 홍무 5년 무렵에는 고려가 역시 일찍이 주청하여서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승낙을 받자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고려 국왕이 자제들을 시키어 국학(國學)에 와서 독서하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전에 들으니 당 태종 때에도 고려국이 역시 자제들을 시켜 와서 입학하게 하였다 하니, 이것은 장한 일이다. 또 생각하니 자제들이 멀리 와서 학습하는데 혹 반년을 있든지, 혹 1년을 있든지, 혹은 1년 반을 있든지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들을 돌아가게 하되 그 편할 대로 들어 줄 것이다. 다만 본국이 멀리 바다 동쪽에 있어서 경사(京師)132)에 이르게 되려면 수로(水路)로는 바다를 건너야 하고, 육로(陸路)로는 1만여 리에 못지 아니하여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부모 된 자는 반드시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 된 자는 반드시 부모를 생각할 것이니, 그것은 인지사정이다. 이에 중서성(中書省)에서 회답하는 문서를 보내서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그의 신하들과 다 잘 숙의하여서 과연 저 부모 된 자로서 자제를 입학시키기 원하고, 자식 된 자로서 부모의 명을 받아 와서 배우고자 하는 자는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잘 보내오게 할 것이니 그리 알라.’ 하셨사오나, 우리나라에서 남경에 이르기에는 바다를 건너게 되어 내왕하기가 어려우므로 진작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오니 북경의 국자감(國子監)이나 요동의 향학(鄉學)에는 길이 좀 가까우니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시키기를 원하오나,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오라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9월 3일 임오 1번째기사 / 박안신이 하전과 자제들을 중국에 입학할 것을 주청하는 글을 받들고 북경에 가다>

다. 천추사(千秋使) 박안신(朴安臣)이 칙서(勅書) 2통을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와서 먼저 통사(通事)金玉振을 시켜서 치계(馳啓)하게 하니, 그 하나는, “주본(奏本)을 보니, 자제(子弟)들을 보내서 북경의 국학이나 혹은 요동(遼東)의 향학(鄉學)에 나아가 글 읽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또한 선을 힘쓰고 도를 구(求)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짐(朕)이 매우 가상(嘉尙)하게 생각한다. 다만 산천이 멀리 막히고 기후가 같지 아니하여, 자제들이 와도 혹은 오래도록 객지에 편안히 있기 어려울 것이며,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정(情)을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본국 내에서 취학(就學)하여 편의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니, 지금 왕에게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 1책, 《성리대전(性理大全)》 1책, 《통감강목(通鑑綱目)》 2벌을 보내니, 자제 교육에 쓰게 하여 왕은 나의 지성스러운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금 온 칙서에서 자제들의 중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중국의 학교에 입학할 희망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어음(語音)은 사대하는 데 관계가 있는 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자제(子弟)들을 의주(義州)에 보내어 요동(遼東)에 내왕하면서 중국말을 전습(傳習)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요동은 중국의 한 지방으로서 어음(語音)이 바르지 않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전번에 뽑은 자제들을 그대로 사역원(司譯院)에 근무하게 하여 항상 중국 발음으로 된 여러 서적을 익히게 하며, 매년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함께 들여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돌러가며 파견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중국말을 저절로 깨우쳐 능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1433) 12월 13일 임술 1번째 기사 / 안신이 가져온 칙서의 개·인삼의 진헌 문제와 자제들을 중국 학교에 입학 교육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먼저 (6나)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제들을 직접 중국에 보내 중국어를 익히도록 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가)와 (6다)를 통해서는 세종대에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 중국어를 익히게 하려던 계획이 실패해 조선 스스로 중국어 학습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도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통문관(通文館)에서 출발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전문기관이었던 사역원을 통해 중국어를 익히게 하려는 생각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사역원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새로운 중국어 학습법이 필요했다. 이러한 학습법의 기본은 중국어의 발음, 즉 한자 하나하나의 중국식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2. 편민 · 흥학 · 실용의 창제 의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여러 배경들은 실제로 새 문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의도를 편민(便民), 흥학(興學), 실용(實用)이라는 세 키워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1. 편민(便民)_말글살이 일치의 새로운 문자 생활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현재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 아니겠느냐?”(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글쓰기를 위해 한자를 배우고 차자표기법을 익혀야 하는 녹록지 않았던 상황은 이를 통한 글쓰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글로 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와 맞물려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어렵게 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배우기 쉬운 새 문자를 통해 이전까지 말하기와 글쓰기가 일치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랜 시간 문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7) 가. 일상의 말하기: [ərin.bʌjkɯ .s*jəŋ.i.]

나. 기존의 글쓰기: ① 愚民 ② 愚隱 民은

다. 새로운 글쓰기: 어린 백성이

(7가)와 같이 한 말을 (7나)처럼 한자로만 적거나(①) 차자표기법을 사용해 적는 것(②)이 기존의 글쓰기였다면, 새로운 글쓰기는 새 문자 훈민정음으로 (7다)와 같이 적음으로써 실제로 말했던 (7가)에 보다 가까워졌음을 볼 수 있다. (7다)를 그대로 읽으면 (7가)가 된다는 사실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을 글로 쓰는 일이 어려

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해 준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창제는 백성들의 말글살이를 일치시켜 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통치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⁵⁾

2.2.2. 흥학(興學)_한자음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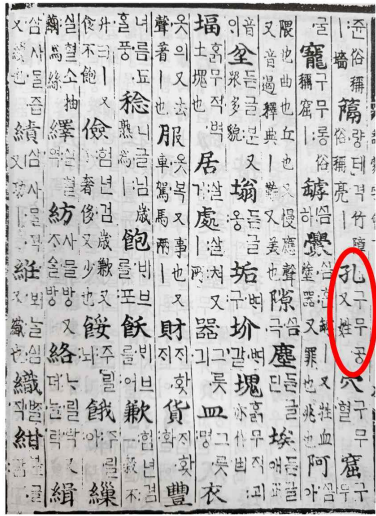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한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세종이 새 문자로 기존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칫 훈민정음이라는 새 문자는 기존의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게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孔子 | 魯人 사림 <정음해례 21나>’과 같이 한자와 훈민정음의 혼용 표기를 제시한 <합자해>의 설명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매 한자마다 한자음을 반복적으로 달아 준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존재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체할 문자인 한자의 음을 한 번도 아니고 한자가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그 음을 달아 준 것은 더 이상 쓰지 않을 문자에 대한 지나친 친절이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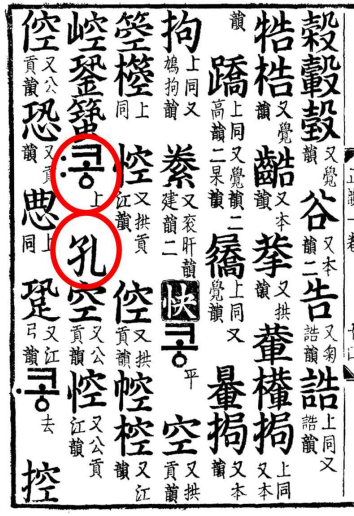
새 문자 훈민정음은 기존 한자음의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해 규범적이고 통일된 한자음을 만들려고 했던 세종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2나)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한자음을 한번 크게 바로잡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비록 세종의 이와 같은 뜻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세종의 남다른 착상과 의지는 마땅히 주목받아야 한다.

5) 남풍현(1997: 824-825쪽)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해 차자표기와 훈민정음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는데, 이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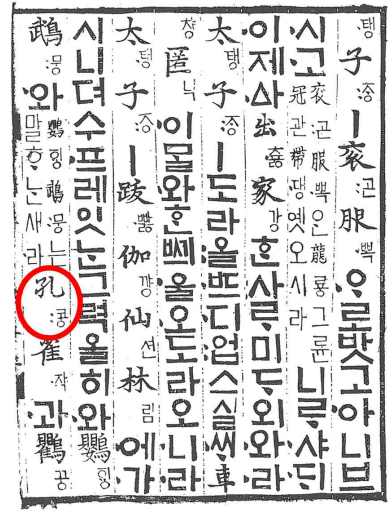
	차자표기	훈민정음
만든 사람	설총	세종
제자 방법	한자를 빌림	모양을 본떠 만들되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함
표기 능력	깔끄럽기도 하고 막힘이 있기도 함	그 음이 칠음과 조화를 이룸
학문 배경	비루하고 근거가 없음	삼재의 뜻과 음양의 묘리를 갖추
비교 결과	만분의 일도 통할 수 없음	28자로 전환이 무궁하며 간단하지만 요긴하고 정밀하지만 소통이 쉬움



〈훈몽자회(초간) 하:8ㄴ〉



〈동국정운 1:14ㄴ〉



〈석보상절 3:32ㄴ〉

위의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 한자음이 ‘공’인 한자 ‘孔’의 한자음을 ‘:공’으로 바로 잡았는데, 이것은 『동국정운』 서문에서 언급했던 이른바 ‘字母之變’을 바로잡은 결과이다.⁶⁾ 이처럼 세종이 새 문자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정비하려 했음을 우리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정제된 결과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자음의 정비는 결국 한자에 대한 올바른 학습을 통해 학문을 진작시키려는 세종의 큰 그림에서 나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2.2.3. 실용(實用)_외국어 학습

명나라 황제가 허락하지 않아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세종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역원에서의 중국어 학습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중국인에게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중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문자 훈민정음을 이용해 중국어의 발음을 적어 발음을 가르쳐 주었던 중국 학자가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러한 정황을 추측해 보게 한다.

6) 가령 아음으로 말한다면, 계모(kh-)에 속하는 글자들이 거의 견모(k-)로 발음되니, 이것은 자모가 변한 것이다.(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大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동국정운 서:2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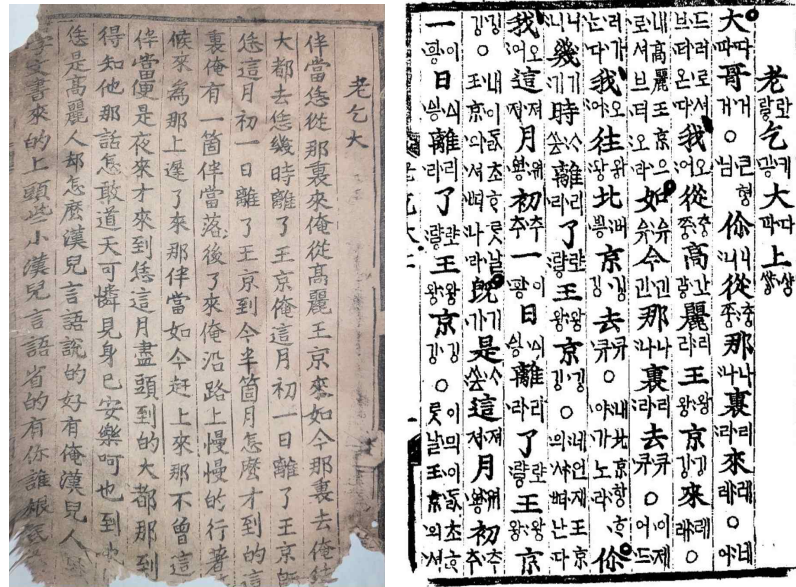
(8) 때마침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귀양 와 있었으므로 (임금께서) 을축년(1445) 봄에 공(신숙주)에게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을 질문하라고 명하였다. 공이 언문자로 중국어의 발음을 옮겨 적어 묻는 대로 척척 깨달아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이를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요동에 다녀온 것이 열세 번이었다.(時適翰林學士黃瓚以罪配遼東。乙丑春。命公隨入朝使臣到遼東。見瓚質問音韻。公以諺字翻華音。隨問輒解。不差毫釐。瓚大奇之。自是往還遼東凡十三度。 <『保閒齋集』 권11 부록 文忠公行狀(晉山 姜希孟 撰)>

『보한재집』 외에도 성삼문과 신숙주가 요동에 귀양 와 있던 명나라 학자 황찬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질문했다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통문관지(通文館志)』 등 여러 곳에서 그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질문 대상은 주로 중국어의 발음, 즉 중국 한자음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의 문물 및 제도와 관련된 글자의 뜻도 질문 대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⁷⁾

자신이 일러 준 중국어 발음을 처음 보는 문자로 적어 정확히 재현해 내는 모습은 황찬에게 매우 신기한 일이었을 것이다. 신숙주가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었던 것은 새 문자가 일종의 발음 기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표음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문자의 뛰어난 표음성은 새로운 중국어 학습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당시 명나라의 흥정문서였던 『홍문정운(洪武正韻)』의 중국어 발음을 옮겨 적은 『홍문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을 간행한 것은 새로운 중국어 학습법 마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렸으므로 세종 당대에 사역원의 중국어 학습서들에 실제로 중국어 발음을 새 문자로 표음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표준 발음을 정리한 『홍문정운역훈』(단종 3년, 1455)과 이를 간략히 만든 『사성통고(四聲通攷)』의 간행 이후에야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국어 학습서들에 새 문자로 표음한 새로운 중국어 학습서는 16세기에 들어서서야 만나볼 수 있다. 이른바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가 그것인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시대에 중국어만 있던 학습서는 이제 중국어의 발음은 물론 중국어 문장의 내용까지도 새 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7) 세종조에 신숙주·성삼문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황찬에게 어음(語音)과 자훈(字訓)을 질정(質正)하게 하여 『홍무정운』과 『사성통고』 등의 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한훈(漢訓)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世宗朝遣申叔舟成三問等到遼東 就黃瓚質正語音字訓 成洪武正韻及四聲通攷等書 故我國之人 賴之粗知漢訓矣)[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1487) 2월 2일 壬申 1번째 기사] 한편, 이때 질문하고 답한 내용들은 『질문(質問)』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고 『노박집람(老朴集覽)』에서 '質問'이라는 이름의 인용 서적으로 그 흔적을 남겼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범(2000: 85-88쪽)을 참조할 수 있다.



〈원본 노걸대 1가〉

〈번역노걸대 상:1가〉

변화된 학습법은 중국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적용되었다. 16세기 이후 사역원의 역학서들에서 외국어의 발음은 물론 단어와 문장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데 새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일본어와 몽골어 학습서들은 물론 여진어를 대신한 만주어 학습서들에서도 새 문자는 외국어 학습에서 새로운 학습법의 중요한 기초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 문자는 외국어 학습을 우리 스스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용성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세종이 새 문자를 창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2.3. 창제가 가져다준 효용성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는 새 문자의 효용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9) 이 글자로써 책을 풀이하면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자로써 송사를 살피면 그 복잡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로써 한자의 음을 적으면 소리의 청탁(淸濁)을 변별할 수 있고, 음악을 기록하면 음악의 율려(律呂)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사용하는 데마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가는 곳마다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비록 바람 소

리, 학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라 하더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清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 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훈민정음 해례본(1446) 정음해례 28ㄱ>

(9)에서는 새 문자로 책을 풀이하고 송사를 살피고 한자의 음을 적고 음악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새 문자가 지닌 효용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용성은 창제 목적이나 의도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러한 효용성이 문자 훈민정음이 완성된 직후 최만리 등이 올린 이른바 갑자상소문의 내용과도 연관된 것이며,⁸⁾ 이미 만들어진 문자의 해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이야기이므로 이를 본래의 창제 목적이나 의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⁹⁾

이와 같은 효용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훈민정음 창제 후 제기된 의견에 따라 획득된 효용성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10)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하였다.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

8)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 준다.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 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한 것이 심히 많습시다. 가령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독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습니다.[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9) 이러한 측면에서 (9)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항목화해 이를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으로 설명한 남풍현(1997)의 논의는 차원을 조금 달리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 하교가 있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10)은 새 문자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해 민간에 반포하면 충신, 효자, 열녀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정창손의 의견을 수용해 이 책의 언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비록 언해의 결과물은 성종대에 나오게 되지만 본래 한문본으로 간행된 『삼강행실도』를 언해본으로 다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세종대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 문자가 백성들의 교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던 또 다른 효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백성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올바른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세종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지금까지도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정본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 6ㄱ>(김유범 외 2022: 534쪽)

3. 백성들의 말글살이 변화

새 문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훈민정음 반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새 문자로 벽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던 사실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새 문자가 보급된 상황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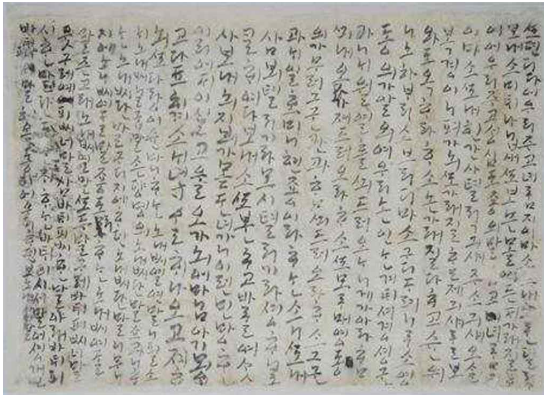
(11) 황희(黃喜)는 재상의 자리에 있기를 20여 년에 지론(持論)이 너그럽고 후한데다가 분경(紛更)을 좋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의 여론을 잘 진정(鎮定)하니, 당시 사람들이 명재상[眞宰相]이라 불렀다. 하연(河演)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쇠하여 행사에 착오가 많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벽 위에다 쓰기를, ‘하 정승(河政丞)아, 또 공사(公事)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1449) 10월 5일 임자 1번째 기사]

이처럼 새 문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선사해 주었다. 말로만 주고받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며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사건들도 많이 발생했다.¹⁰⁾ 이 장에서는 새 문자의 등장으로 백성들의 말글살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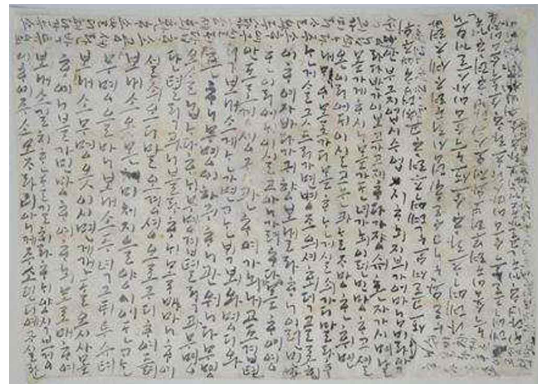
3.1. 꺾춤내 제 쓰들 시러 떠다: 글로 표현된 생각과 감정

새 문자는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일상을 글로 남길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른바 언간(諺簡)이라고 불리는 새 문자로 쓰인 편지는 그 이전까지는 기록되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언간은 149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창맹씨묘출토언간이다.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정리해 집필된 정주라·시정곤(2011)을 참고할 수 있다.



[1번 편지]



[2번 편지]

군관 나신결(1461~1524)이 멀리 함경도[편지에는 영안도(永安道)로 나옴] 경성(鏡城) 군관으로 부임 받아 가면서 부인 신창맹씨(회덕 온양댁)에게 안부와 함께 농사와 소작 등의 여러 가정사를 두루 챙기고 있는 내용의 편지이다. 2점의 편지 중 1번 편지는 여러 가지 옷가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과 세금 관련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2번 편지는 농사일과 관련해 뒤쪽은 주로 논과 밭에 드는 씨의 양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가. 안부 그지업시 수업시 흐뇌 지비 가 어마님미라 아기라 다 반가이 보고 가고저
 흐다가 장슈 혼자 가시며 날 묻 가게 하시니 묻 가 돈녀가뇌 이런 민망하고 설은
 이리 어디 이실고[1번 편지]

나. 쯔 던디 다 어우리 주고 녀름지이 마소 쯔 내 오른 털릭 보내소 미틱나 님새 쯔
 보논 물에 든 디 가래질혀 어우리 주고 칭심도 종의 말 듣고 녀름지이 마소 ...
 쯔 분하고 바를 여섯 사 보내뇌 지비 가 묻 돈녀가니 이런 민망흔 이리 어디 이
 실고 울오 가뇌 어마님 아기 피읍고 다 뎡히 겨소 님년 ㄹ을히 나오고저 흐뇌[2
 번 편지]

(12)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언어 및 표기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당시 중세국어 구어의 모습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부인에게 흐소체의 상대높임 표현을 사용하며 “이런 민망하고 설은 이리 어디 이실고”, “이런 민망흔 이리 어디 이실고 울오 가뇌”와 같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쯔 분하고 바를 여섯 사 보내뇌”와 같이 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새 문자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그리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새 문자를 이용해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마움을 넘어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ㅁ춤내 제 ㅍ들 시러 ㅍ는 노미 하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3.2. 새 문자로 인한 한자 학습법의 변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뜻과 음을 지니고 있어 한자를 학습한다는 것은 한자의 자형과 더불어 그 글자가 지닌 뜻과 음을 익힌다는 것이다. 서당의 훈장이 소리 내어 불러 주는 각 한자의 뜻과 음을 듣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따라 하며 한자를 익히는 것이 전통적인 한자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훈장이 누구냐에 따라 익히는 한자의 뜻과 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뜻과 음이 쉽게 변화된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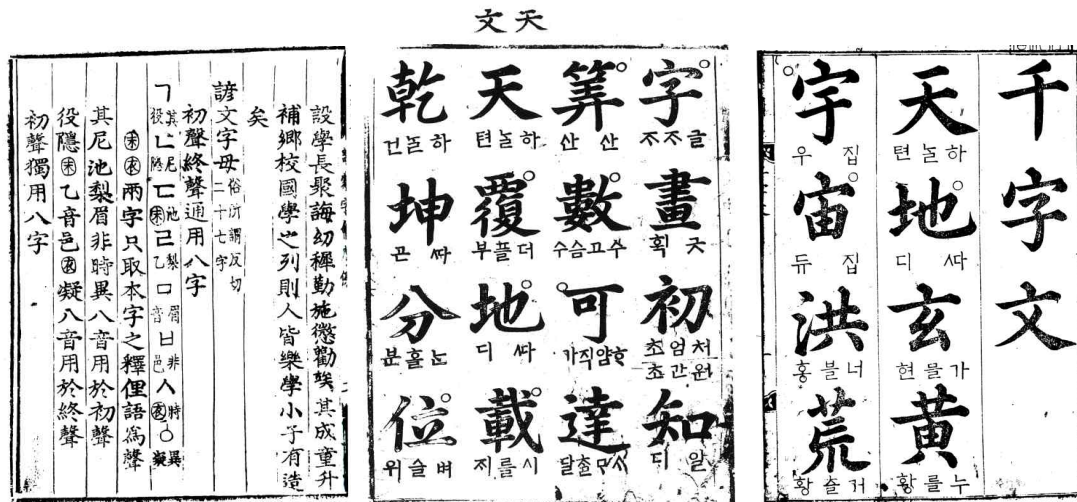
새 문자는 한자를 학습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도 바꾸어 놓았다. 새 문자를 익히면 새 문자로 적힌 한자의 뜻과 음을 익히면 되니까 반드시 훈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자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새 문자로 기록된 뜻과 음이 표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높아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한자 학습서가 왕실 교육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13) (송)준길이 아뢰기를, “삼가 원자께서 행례(行禮)하는 것을 살펴보니 읍양하고 배케(拜跪)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예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자질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힘써 학문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품성을 개도하여 증익시켜야 하는데 강해야 할 글은 의당 《효경(孝經)》으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자음(字音)을 필시 알지 못할 것이니 먼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효경》을 강하면서 겸하여 자서(字書)도 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1665) 9월 5일 무자 2번째 기사]

이를 통해 종종 때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가 원자의 공부에 유용한 기초 학습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¹⁾ 새 문자가 보급되면서 한자 학습서들에 뜻과 음을 표기함으로써 한자 학습법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다음은 새 문자의 등장

11) 새 문자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훈몽자회』 범례의 일부인 「언문자모」의 내용과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부연(2021)을 참고할 수 있다.

이후 조선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한자 학습서들의 모습이다.



〈훈몽자회_초간(1527) 범례 2ㄴ〉

〈신증유합(1576) 상 1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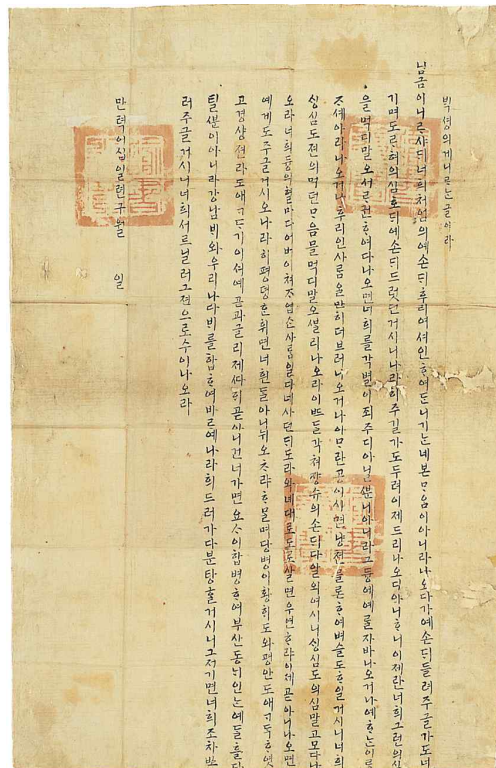
〈석봉천자문(1583) 1ㄴ〉

이러한 책들을 통해 한자 학습은 보다 용이해졌고 새 문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한자를 익히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새 문자는 한자와 경쟁하고 대립했던 관계가 아니라, 한자와 새 문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땅의 말글살이를 풍성하고 활발하게 해 주었다. 한자가 지닌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새 문자가 발휘하는 쉽고 편리한 기능은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글쓰기를 가능케 했다.

3.3. 달라진 말글살이로 인한 생활 풍경

새 문자는 말글살이의 변화를 가져왔고 말글살이의 변화는 생활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1차적으로 새 문자는 백성 상호 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의 공적인 소통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 개인이 국가와 소통하기 위해 각각 새 문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실제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가가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새 문자를 사용한 경우로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작성된 한글 고문서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를 들 수 있다.



〈선조국문유서(1593)〉

흔히 「선조국문교서(宣祖國文敎書)」라고 불려 온 이 자료는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파천(播遷)하여 행재소(行在所)에 있을 때 백성에게 내린 글로서 선조 26년(萬曆 21년, 1593년) 저지(楮紙)에 한글로 작성된 문서이다.¹²⁾ 이 문서는 왜적에게 투항해 복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하루빨리 돌아오도록 종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왜군에게 투항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선조의 불안하고도 다급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김유범 2014).

12) 노인환(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문서를 교서가 아닌 유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始面인 ‘빅성의게 니르느 글이라’는 것이 훈유 유서의 始面과 비슷하다. ‘빅성의게 니르느 글이라’라는 것은 ‘諭百姓書’를 한글로 풀이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훈유 유서의 始面인 ‘諭+수취자+書’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둘째, 본문의 起頭語와 結辭이다. 이 문서의 기두어에는 ‘王若曰’을 한글로 풀어서 ‘님금이 니르샤디’로 기재하였으나 結辭에는 일정한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훈유 유서의 기두어에서도 ‘王若曰’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서로 볼 수 있다. 敎書의 경우에는 국왕이 발급하는 명령서 중에서 가장 공식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문서 형식을 엄격하게 지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만약 교서라면 結辭에서도 교서의 結辭인 ‘故茲敎示 想宜知悉’을 한글로 풀어서 기재하였을 것이다. 셋째, 이 문서에 安寶된 御寶이다. 어보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어보를 安寶하였는데, 교서에는 「施命之寶」, 유서에는 「諭書之寶」를 안보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세 곳에 「諭書之寶」가 안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서로 볼 수 있다.

- (14) 너희 처엄의 예손딕 후리여셔 인하여 돈니기는 네 본 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예손
 딕 들러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딕 예손딕 드럿던 거시니 나라히 주글가도
 두려 이제 드리나오디 아니하니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그 됴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는 이를 즈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름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므란 공 이시면
 양천 물론하여 벼슬도 호일 거시니 너희 싱심도 전의 먹던 마음을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너희가 처음에 왜에게 후림을 당해서 인하여 다니기는 네 본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왜에게 붙들려 죽을까도 여기며 도리어 의심하되 왜에게 들었던 것이니 나
 라가 죽일까도 두려워하여 이제 마구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 그런 의심을 먹
 지 말고 서로 권(勸)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죄주지 않을 뿐이 아니라 그 중
 에 왜를 잡아 나오거나 왜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후림을 당한 사람을
 많이 더불어 나오거나 어떤 공(功)이 있으면 양천(良賤) 물론(勿論)하여 벼슬도 시
 킬 것이니 너희가 절대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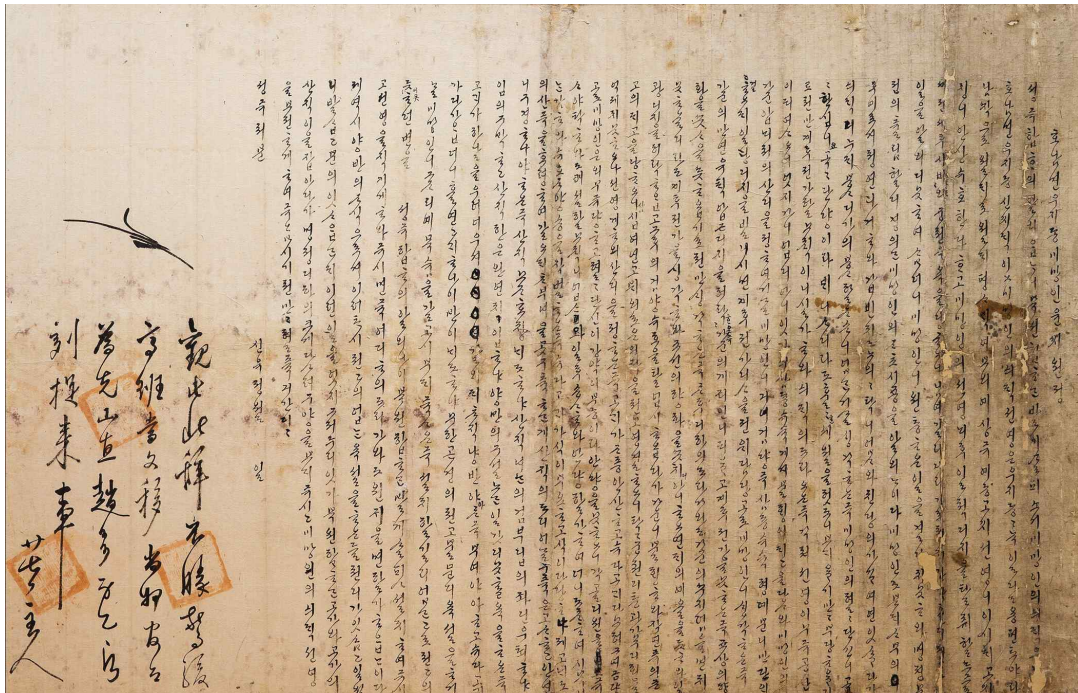
중세국어의 거의 끝 시기인 16세기 말의 우리말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자료는 당시 임
 금이 백성에게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백
 성을 달래는 것은 물론 포상까지도 언급하며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문으로 들리는 말은 모두 믿기 어렵지만, 국가가 유서를 내려 이야기한 내용을
 백성들이 읽는다면 국가의 공신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빠르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록에 의하면 선조는 여러 차례 교서를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 내용
 을 알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새 문자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으며, 당시에 상당수의 백성들이 새 문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문서는 바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생생한 사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이
 처럼 새 문자는 국가가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준 획기적인 메신저였
 다. 이제 누구나가 새 문자만 익히면 국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국가가 한 말이 무
 었이었는지 분명하게 그 근거를 남기고 확인할 수 있는 달라진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백성 개인이 국가와 소통하기 위해 새 문자를 사용한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
 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새 문자가 보급되자 백성 중에는 새 문자로 직접 서장을
 작성해 상언(上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종 4년(1509)에 ‘철비’라는 여
 인이 자신의 천민 신분을 면하게 해 달라는 언문 상언을 올린 일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이흥로가 당쟁으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죽고 집안이 가난해지자 그의 처 기씨가 광해군 2년(1610)에 언문 단자에 그 사정을 적어 상언한 일이 있었다. 관리들은 대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광해군 자신은 새 문자의 보급이나 문자 생활에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백성들의 언문 상소는 조선 후반기에 이르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연도 다양해진다.¹³⁾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새 문자로 적어 직접 국가에 하소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대한 상황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어떠한 언어와 표현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는 보여 주지 못하는데, 이와 달리 다음 자료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해평 윤씨 부인 한글 원정(1861)〉

이 문서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자료인 「해평 윤씨 부인 한글 원정」으로 한글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기증된 문서이다.¹⁴⁾ 철종 12년(1861)에 평산(平山) 신씨 신기회(申箕會)의 처 해평

13) 백성들의 언문 상언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정주라·시정곤(2011: 154-158쪽)을 참고했다.

14) 이 자료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자료 기증 공고를 보고 2014년 12월 24일에 신우철(申禹澈) 씨가 직접 기증한 문서로 소장번호는 '한기7492'이다. 문서의 크기는 79.5×122.0cm이며 반향림체로 쓰인 한글 필사본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본 발표문의 내용은 김유범(2017)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海平) 윤씨가 작성한 것으로 문서의 수취자는 문경현감 유치량(兪致良)이다. 문서는 크게 원정 본문과 제사(題辭)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문은 소송인 윤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총 37행 1,209자의 반흘림체(예사흘림체) 한글로 쓰여 있다. ‘호남면 우지동 미망인 윤씨 원정’으로 시작해 ‘신유정월 일’로 끝난다. 다음으로 제사(題辭)는 문서의 원편 아래쪽에 5행 35자의 행초서체 한자로 쓰인 이두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세 개의 관인(官印)이 찍혀 있다.¹⁵⁾ 또한 이두문의 위쪽에는 관원의 수결[押]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른바 산송(山訟) 관련 원정으로, 산송을 내용상 크게 투장(兪葬)과 투작(兪斫) 문제로 나누어 볼 때, 이 문서는 투작으로 빚어진 옥설 문제가 송사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소송 제기자가 시택 선영을 지키고자 하는 분산수호(墳山守護)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중엽 경상북도 문경에 살았던 윤씨 부인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부인이 지녔던 억울함의 원인과 그에 대한 부인의 감정은 어떠한지를 이 문서는 생생하게 보여 준다. 문서의 일부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15) 가운이 불행하고 작년 추의 존고의 락고을 당호오니 삼십여 년 고부 외로운 의탁을 천고영결호오니탁궤궤천디통과 감구디회를 억제치 못호오니 선영 계호의 산디을 정호온즉 고기가 조풍안산호고 슈다고기 다 모혀 그여 금당 고로 미망인은 외무쥬당호고 혈궤단신이 강약이 부동이라 안당을 못호오니 각골디원을 ■■■쥬스야탁호와도 꽤설할 모척이 업스와 일후 송스호와 안당할가 호여더니 도츠호여 시목이 눈감호와 슈호조양송을 작별호온즉 슈다고기 가식이 부요호고 식이 다 당호야 제고 다투의 산죽을 호령호여 갈오디 츄부녀을 곳 구축호는 게 산직의 도리어늘 구축은 고스호고 안연이 구경호냐야 호온즉 산직 모조 호창니도호야 산직녀는 의검부딪의 좌딘우퇴호야 임의구박호고 산직한은 완연척입호야 양반의 구설노는 일갓디 못홀 욱을 호온즉 고기가 하날을 우러러 우셔 ⊗⊗⊗⊗ 갈외디 츄직냥반야아 츄족부녀야아 호고 슈다고기가 다 가옴더니 홀연 고기 하나이 반이니도호야 무한근정의 천고불문디욕설을 호거늘 미망인이 그 즈리에 목숨을 갈고 시부디 죽스온즉 설치할 길리 업는 고로 천고의 듯디>못호던 변을 성쥬합호의 알외나니 복원 합호는 발게 슬피스 설치호여 쥬시고 선영을 지키게 호와 쥬시면 죽어 디하의 도라가와도 원귀을 면할가 호옵느이다
-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작년 가을에 시어머니 상을 당하니, 삼십여 년 고부의 외로운 의탁을 영결하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지난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억제치 못하나 선영 아래쪽에 뒤편자리를 정한즉, 고가(高哥)가 스스로 안산(案山)을 지킨다고

15) 현재 문서에 보이는 관인의 글자들을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문서 전문가인 김경숙 교수는 아마도 ‘聞慶縣監之印’ 정도의 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떠들어대고 다수의 고가들이 다 모여 금강하므로 미망인은 집안에 살림을 맡아 할 만큼 장성한 남자가 없고 혈혈단신이라 강약이 같지 못해 안장(安葬)을 못하니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원한을 밤낮으로 생각해도 쾌설할 묘책이 없어 훗날 송사하여 안장 할까 하였더니, 도중에 땀나무가 난감해져 보호하며 스스로 길러 오던 소나무를 벌목 한즉, 다수 고가들의 자식들이 부유하고 장성한데 여러 고가들이 몰려와 산지기를 호령하여 말하되, “이 여자를 곧 쫓아내는 것이 산지기의 도리이거늘 쫓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안연히 구경하느냐?” 한즉 산지기 모자(母子)가 큰 소리를 내며 이르러 와 산지기 녀은 옷깃을 붙잡고 이리저리 밀고 당겨 마음대로 구박하고, 산지기 녀은 보란 듯이 즉시 들어와 양반의 시비하거나 혈뜬는 말로는 하지 못할 욕을 하니 고가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말하되, “이것이 양반인가? 이것이 부녀인가?” 하고 다수의 고가들이 모두 돌아갔는데, 홀연히 고가 하나가 돌이켜 다가와 무한히 곤란한 상황에 이 제껏 들어 보지 못한 욕설을 하거늘 미망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치욕을 씻을 길이 없게 되므로, 천고에 듣지 못하던 변고를 수령께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수령께서는 밝게 살펴서 치욕을 씻어 주시고 선영을 지키게 하여 주시면 죽어 지하에 돌아가서도 원귀(冤鬼)를 면할까 합니다.]

이를 통해 윤씨 부인이 느꼈던 모멸감과 억울함을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듯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이것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그 내용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으로 말의 표현이 주는 효과는 우리말 화자에게 두 문자가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문서의 표기는 한글로 되어 있으나 사용된 단어나 문구가 대부분 한자어나 한자성구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문서의 작성이 실제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른바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는 조선시대 직업적 법조인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16) ‘외지부’라는 명칭은 노비에 관한 문서와 소송을 다루는 관청인 장예원을 ‘도관지부(都官知部)’라고 칭했던 데서 속칭된 것이다. 이들은 관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민사적 분쟁 사건으로 난처해진 사람이나 소송을 제기하러 온 사람들에게 소송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해 주었는데, 때론 고용되어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의 실정법이나 절차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 기술에도 능했으므로 승소한 경우 약정에 따라 감정료나 변호료를 받았다. 승소를 목적으로 증거의 위조는 물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각종 소송 기한을 교묘한 방법으로 연장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켰으므로 당국으로서 큰 골칫거리였다. 당시 중앙이나 지방의 재판관청에서는 폭주하는 소송을 신속히 처결함으로써 체송(滯訟)의 폐를 없애는 것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가 아닌 외지부가 소송을 유도하거나 대송하면 사건의 속결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외지부업을 근절시키기로 결정하여 성종 9년(1478) 8월부터는 외지부를 붙잡아 장 1백형에다가 전 가족을 함경도의 오진(五鎭)으로 보내는 전가사변형에 처할 뿐 아니라, 이를 붙잡아 신고한 자에게는 강도를 붙잡은 상례에 따라 1인당 면포 50필을 상급하기로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때부터 외지부 업자는 숨어서 영업하거나 차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외지부들의 활동 무대는 주로 서울에 있는 형조, 한성부, 장예원이었는데, 지방에도 외지부와 유사한 직업인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서울에서처럼 직업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고로(古老)나 유생 또는 이서(吏胥)에게 의뢰하여 소지를 대서 받거나 소송 기술에 관해서는 특히 관아의 아전에게 조력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 송뢰(訟賂) 소송에 관한 뇌물)를 주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고문서학회(1996) 중 박병호 교수가 쓴 법률생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비록 형식을 중요시하는 공문서가 지닌 한계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써 오던 한자가 아닌 새 문자 한글로 글을 쓴 효과는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문서의 끝에 처분 내용을 적은 ‘제사(題辭)’ 부분이 이두로 쓰인 것과 비교하면 한글로 쓰인 본문 부분은 소송 당사자의 사정이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어쩌면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소송인 윤씨의 처지가 소송 담당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표기 문자로 한자가 아닌 한글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자와는 달랐던 한글만의 특성과 쓰임을 극대화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다.

4. 나오기

훈민정음의 창제는 결코 우연하거나 평이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 불편 없이 한글을 쓰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운 좋게 부잣집에 태어난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운명에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이로부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모든 언어가 그 언어를 위한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언어를 위해 사용되는 별도의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상황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은 하나의 언어만이 아닌 다양한 언어들을 표기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말을 위한 특별한 문자, 그것도 인류가 이제까지 발명한 문자 중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는 문자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다.

오래전 외부에서 들여온 위구르 문자와 새롭게 만든 파스파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몽골을 보며, 파란만장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곳곳하게 한글을 지켜내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생각된다. 이런 대견함을 우리 후손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임을 576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에 우리 모두가 각별한 마음으로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 고경재(2022), 12~15세기 국어 모음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한글박물관(2015), 『한글과 동아시아의 문자』, 2015 연구보고.
- 김무림(2006), 『홍문정운역훈』(100대 한글문화 유산 3), 신구문화사.
-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 김부연(2021), 「언문자모」의 내용과 국어교육적 의미 탐색, 『국어사 연구』 2, 국어사학회, 33-80쪽.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김유범(2000), 『노박집람』의 성립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 연구』 창간호, 국어사자료학회, 69-96쪽.
- 김유범(2014), 한글 고문서 「宣祖國文諭書」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18, 국어사학회, 193-218쪽.
- 김유범(2017ㄱ), 한글 고문서 「해평 윤씨 부인 한글 원정」 연구, 『우리말연구』 48, 우리말학회, 49-82쪽.
- 김유범(2017ㄴ), 한글 고문서 「해평 윤씨 부인 한글 원정」 해제, 『한글, 함께 걷다』(국립한글박물관 기증자료집 ❶), 국립한글박물관, 206-207쪽.
- 김유범 외(2020), 『훈민정음 해례본』, 역락.
- 김유범 외(2022), 『정본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 역락.
- 남풍현(1997), 훈민정음의 창제목적 -차자표기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 기념 논총), 태학사, 821-847쪽.
- 노인환(2009),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환(2012),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 연구』 15, 국어사학회, 211-239쪽.
-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193-218쪽.
- 백두현(2021), 『한글생활사 연구』, 역락.
- 정 광(2004), 『原本 노결대』, 김영사.
- 정 광(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 정 광(2015), 『한글의 발명』, 김영사.
- 정 광(2022), 『언어학사로 본 20세기까지의 한국어 연구사』, 박문사.
- 정주리·시정곤(2011), 『조선언문실록』, 고즈윈.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改正 正音學)』, 정음사.
- 한국고문서학회(1996),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 Rogers, H.(200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Blackwell publishing. 『언어학으
로 풀어 본 문자의 세계』(이용 외 옮김 · 역락 · 2018).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조 중세기 한글 민주화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훈민정음 반포 이후 18세기 초 영조 즉위(1724년) 이전 중세기¹⁾ 한글 민주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글의 보급과 문자 해독에 따른 백성들의 삶의 개선(민주화)에 대해서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과 저서 발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글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개선에 기여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 오는 훈민정음 문헌은 90 여종에 이른다.²⁾ 이들 문서를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면 중세 한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등의 특징과 관련한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모든 책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간행된 문헌을 중심으로, 그것이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을 논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개선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문자를 해독하고, 문자로 소통하며 문명과 문화를 누리는가에 달려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민중의 지식 습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결과 사회가 변하고 민중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변영의 혜택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한 문자 생활의 민주화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유학자들의 반대와 광해군의 언문 탄압과 이어진 언문청 폐지 등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이어지는 시대의 글자 보급 노

1) 학자마다 시대 구분이 차이가 있지만, ‘중세 한국어’는 1274년 고려 충렬왕 즉위 원년 고려가 몽고족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 한국어가 몽골어와 광범위한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음운, 문법, 어휘 등 언어 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겪은 후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은 후 18세기 모음조화 표기법 도입, 경음의 발달, 음절 말음 자음의 절음화, 격조사와 활용어미 다양화 등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나눈 시대 구분이다. 한국어 시대 구분 기준은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1.2, 한국어 변천사의 시대 구분, 9-19쪽 참조.

2) 조선조 한글 문서 목록에 대해서는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228-256쪽 참조.

력이 있었기에 19세기 말 폭발적 언문 사용 확대를 바탕으로 고종이 1894년 칙령을 내려 국가 문서를 국문(한글)으로 하되 한문을 붙이거나 혼용하도록 하고, 1907년 국문연구소에서 언문을 국가 문자로 공포하는 ‘국문 연구 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이 나오고, 1948년 ‘한글전용법’, 2005년 ‘국어기본법’이 나와 실질적 한글전용이 이루어지기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근세 18-19세기에는 한글 문서 간행과 사용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문헌 자료도 많고 연구 결과도 축적이 이루어져 한글 사용 확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만, 중세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훈민정음으로 된 자료가 많지 않고, 훈민정음이 백성들의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한문이 공문서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해서 한글 보급과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에도 훈민정음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한글 창정기(創定期)라고 불리는 세종 한글 창제와 그 후 50년 정도 기간뿐만 아니라 침체기, 또는 언문 탄압기라고 불리는 시기에도³⁾ 언해서, 한자 교습서 등을 통한 한글의 보급과 생활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용비어천가 간행 등 사업이 이루어진 세종 시기부터 문종, 세조, 성종 등 조선조 왕들의 노력으로 한글이 체계적으로 보급되던 시기 이후에도 귀족들의 한문을 잘 배우기 위해 훈민정음을 이용하려는 노력, 한문 문학을 언문으로 풀어서 정서적으로 향유하려는 노력, 유교 경서의 내용을 나이 어린 학습자들과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언해본을 만들어 보급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글 보급 확대와 언어생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백성들의 삶의 개선(민주화)을 위한 훈민정음 연구와 보급 노력

2.1. 세종의 언문청 설치와 관리 채용에 훈민정음 시험 지시

‘정음청(正音廳)’은 언문청(諺文廳)이라고도⁴⁾ 했는데, 세종 때 훈민정음 관계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 바로 설치되었던 정음청은 단 6년 뒤 단종 때 폐지되었지

3) 한글 운동의 본질과 그 발전, 시기 구분은 최현배(1937), 『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3장 참조.

4) 『세종실록』과 『용재총화(慵齋叢話)』 권7에 ‘언문청(諺文廳)’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문종실록』, 『단종실록』의 기사에 ‘정음청’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정음청과 언문청 두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만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했다. 정음청에서 수행하였던 사업은, 『보한재집(保閑齋集)』에 수록된 신숙주(申叔舟)의 행장에 보면, “임금님께서 언문 28자를 만드시고 궐내에 정음청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 언문 관계 서적을 편찬할 때 신숙주가 실제로 임금님의 재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정음청이 언문 관계 서적 편찬과 간행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항(崔恒)의 묘지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훈민정음 창제를 전후하여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궁중에 언문청이 설치되고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세종실록』 28년 11월의 기사에는 『용비어천가』를 보수하는 일을 언문청에서 맡았다고 하여, 조선 왕조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라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도 그 중심이 정음청이었음을 보여준다. 문종 때도 ‘정음청’ 기록이 나오는데, 세종 때의 ‘언문청’이 아니라 문종 즉위 후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그 설치 주 목적이 불경 간행에 있었는데, 유신들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여, 마침내 단종 즉위 후 폐지되고 말았다.⁵⁾ 중종 반정 뒤 1507년 9월 4일자 『중종실록』에 ‘혁언문청(革諺文廳)’이라는 기사와 1452년 11월 2일자 『단종실록』에 ‘파정음청(罷正音廳)’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 창제 후 바로 설치되었던 정음청(언문청)은 일단 단종 때 폐지되고, 중종 반정 후 폐지한 것은 연산군이 설치하였던 언문청으로 보인다.

유신들의 반대가 있었고, 정음청(언문청) 설립과 폐지가 반복되었지만 세종, 문종 시기에는 새로 만든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여러 사업으로 이어졌다. 첫째,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일반 백성들이 나라의 글자가 새로이 만들어져 백성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

5) 인터넷 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소 참조.

것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간행과 함께 세종이 어지(御旨)를 내려 관리 등용할 때 한글 사용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세종 28년(1446년) 12월 26일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관리를 등용할 때 ‘훈민정음(訓民正音)’ 사용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시험에 훈민정음의 이치를 꿰뚫을 정도는 아니어도 합자하여 쓸 수 있는 관리들을 뽑게 하여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훈민정음의 해독과 사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기미 3번째 기사를 보면,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정의 최만리 등 한문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세종은 관리 등용부터 훈민정음 사용 능력을 평가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훈민정음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신 것이다.

傳旨吏曹：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訓民正音，竝令試取。雖不通義理，能合字者取之。

(이조에 어지(御旨)를 전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위 사진 참조)

다음으로 백성들의 문자 생활에 훈민정음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훈민정음으로 된 책들을 편찬한 것이다. 세종 26년(1445년) 2월 왕은 최항, 신숙주, 박팽년, 이개,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동궁이 있는 의사청(議事廳)에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했고, 그 뒤 정음청을 따로 세워 정음청 주도로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등의 책을 편찬하게 했다. 세종이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등 훈민정음으로 된 서적을 간행하여 왕실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은 한문으로만 문서 소통을 하던 조선 사회에 큰 변화의 시도였다. 한문을 숭상하던 학자들이 왕실에서 간행한 용비어천가 등 훈민정음으로 책을 간행하는 일에 반대하였지만 이들 서적을 간행한 후 그 책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훈민정음으로 된 책들이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끼친 파급 효과는 매우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세종의 이런 노력은 문종 시기에도 이어졌다. 훈민정음을 사용을 반대하고 정음청을 혁파하라는 신하들에게 문종은 정음청이 자기가 세운 기관이 아니고 선대 세종부터 있었음을 강조하고 폐지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보면 정음청에서는 대군들이 주동이 되어 주자(鑄字)를 가지고 책을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 『소학(小學)』의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신하들은 정음청은 필요 없으니 주자를 주자소(鑄字所)에 돌리라고 계속 주장

했다고 한다. 유학자들이 정음청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근본 이유는 책을 펴내는 업무를 정음청에서 하면서 훈민정음 연구와 보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문종이 돌아가시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정음청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문종이 세종의 훈민정음 연구와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돌아가서서,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우고 널리 쓸 기회가 줄어들고 그 추진하는 힘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은 한글 연구와 보급 등 발달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2. 각종 한문 서적 언해서 간행

‘언해(諺解)’는 “한문을 훈민정음(언문, 한글)으로 풀어서 씀. 또는 그런 책.”을 말한다. 한문을 한글로 풀어쓴 이유는 한 마디로 한문이 우리말과 다른 외국어이고, 그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우리말인 한글로 풀이해서 쉽게 문장이나 책의 내용을 쉽게 해독하기 위한 것이다. 요즘도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로 된 원서를 일반 한국인들이 제대로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서들이 출간되고 읽히는 이유와 같다.

국어발달사에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책들을 보면⁶⁾ 거의 모든 왕이 매년 언해서를 간행할 정도로 조선 사회에 언해서들이 많았고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 10년(1504년)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비행을 고한 언문으로 된 익명서(匿名書)를 문제 삼아 언문으로 적힌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언문 교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한글 발달사에 안타까운 사건이다. 하지만 왕이 명을 내려 모든 언문 교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을 보면, 당시 언문 서적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고 언문 교습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보급과 관리 채용에 훈민정음 사용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왕실 차원의 노력에 아울러 훈민정음 민간 보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한문 서적들을 훈민정음으로 해석하여 풀이한 언해서들이다. 초기 언해서 중에는 불경언해가 많았다. 세조 7년(1461년) 세조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능엄경(楞嚴經)언해』, 『법화경(法華經)언해』,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언해』, 『금강경(金剛經)언해』, 『반야심경(般若心經)언해』, 『원각경(圓覺經)언해』, 『몽산법어언해』, 『지장경언해』 등 많은 불경언해를 연이어 간행했다. 세조가 유학자들과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본격적 훈민정음 연구와 보급을 보류하는 대신 불경언해를 택했다는 설과 자신의 단종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잔인한 형벌에 대한 속죄를 위해 불

6)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228-256쪽 참조.

경언해를 했다는 설이 있지만 불경언해는 당시 조선의 실세들인 유학자들에 몰려 수세에 있던 많은 불교 신자와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언해 불경을 읽었고 그 과정에 훈민정음 보급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세조 7년(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가장 먼저 번역 간행한 책이 활판본 『능엄경(楞嚴經)언해(1461년)』, 간경도감본 『능엄경(楞嚴經)언해(1462년)』이다. 이 책이 연산군 1년(1495년), 인종 1년(1545년)에 중간, 복각된 것을 보면 『능엄경(楞嚴經)언해』가 민간에 널리 보급되어 읽혔으며, 대를 이어 중요한 책으로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능엄경(楞嚴經)언해』는 왕의 명령을 받아 이루어진 불경언해로서 잇달아 간행된 불경언해서의 규범처럼 여겨졌다. 이후 간행된 불경 언해서들은 책의 체재, 번역 양식, 구결 형태에 이르기까지 『능엄경(楞嚴經)언해』를 따르고 있다. 『능엄경(楞嚴經)언해』는 불경 원문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구결이 달린 원문을 다시 당시 우리말로 번역문을 붙여서 간행했다.⁷⁾ 그때까지 한문에 한자 줄임형 구결을 달아 간행하던 불경을 한글 구결을 달아 간행했고, 한문으로 된 원문 불경을 읽기가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구결과 함께 당시 일상어로 번역된 불경을 읽을 수 있어 그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능엄경(楞嚴經)언해』에 나타난 불경언해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如來入 果體는 基體 | 本然커시니 = 如來入 果體는 그體 本來 그러커시니(능 1:5)

不了萬法호면 = 萬法을 아디 못호면(능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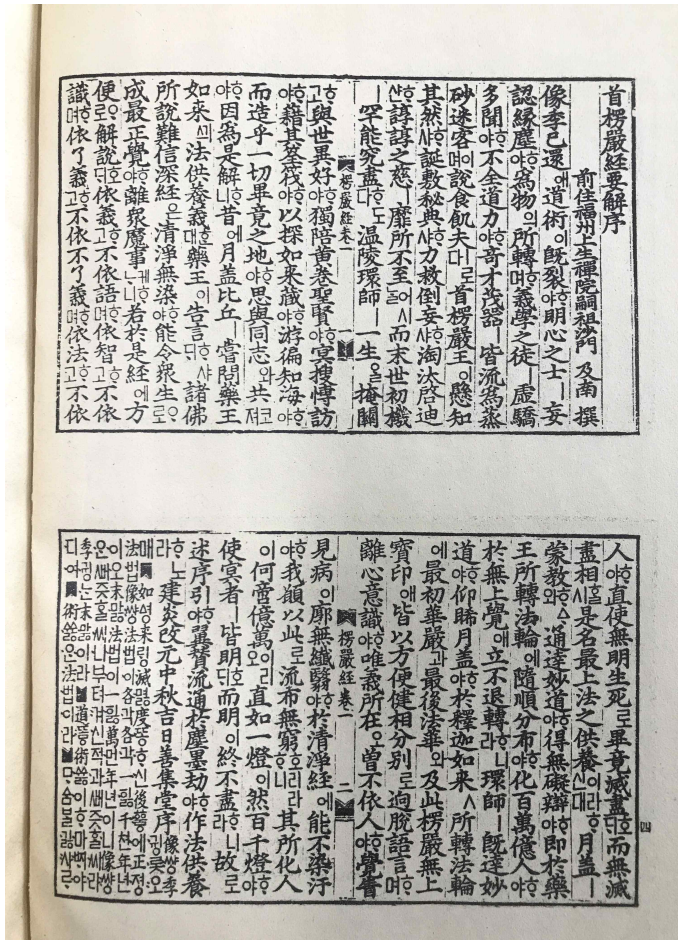
尙不可食이니 = 오히려 머구미 못호리니(능 6:98)

不可終滯라 = 마츠매 마코미 못호리라(능 7:17)

『능엄경(楞嚴經)언해(1462년)』를 비롯한 많은 불경 언해서들은 불교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불교 경전을 접하면서 한문과 함께 훈민정음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글을 남기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세조와 성종 시기에는 불경언해 외에도 『구급방(救急方)언해』,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언해』 등 실용 서적과 『두시언해(杜詩諺解)』 등 중국 문학 서적의 언해본 간행이 이루어졌다. 『구급방(救急方)언해』는 비상 진료 의학서인데, 의술을 가르치고, 오진(誤診)을 막고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 언해를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시언해(杜詩諺解)』는 성종

7) 『능엄경(楞嚴經)언해』를 비롯한 불경언해에 나타난 구결과 언해문에 대해서는 김문웅(2006), 불경언해에 나타난 구결의 변천. 임용기, 홍윤표 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태학사, 639-663쪽 참조.



12년(1481년) 초간본, 인조 11년(1632년)에 경상감사 오숙(吳翮)이 대구 부사 김상복(金相宓)의 도움을 받아 다시 간행한 25권 17책의 목판 중간본(重刊本)이 있다. 조선조에 인기가 높았던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 배우고 공감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두시의 한문본만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어려웠다는 것을 중간본의 서(序)를 쓴 장유(張維)의 글에서 강조하고 있다. 장유는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여 시란 모름지기 ‘심회(心懷)’임을 천명한다. 시는 어떤 시이든 해석을 하게 된다. 나아가 방언(方言)으로도 해석하려고 한다. 시의 해석은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며, 지성 시인에게도 공효(功效)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간본이 간행되고 151년이 지났는데, 장유(張維)는 두시언해를 다시 간행(重刻)한 이유에 대해서, ‘두보의 시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이지만 두시(杜詩)를 읽은 사람이 아주 드물고, 주석을 달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천 명도 되지 않으며, 두시에 숨은 비밀과 오묘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어렵고, 두시언해 초간본을 찾아 읽으려 했으나 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각하는 이유는 시를 배우는 사람마다 두시언해를 집에 간직하고 이 책의 도움을 받아 두시를 가까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혔다.⁸⁾

15세기 한글로 된 문헌들은 『석보상절』(1447년), 『월인석보』(1459년)이 간행된 후 간경도감이 설치된 후 『능엄경(楞嚴經)언해』(1462년)가 간행되고 거의 매년 불경언해가 간행되고 보급이 되었다. 『법화경언해』(1463년), 『금강경언해』(1464년), 『반야심경언해』(1464년), 『선

8) 두시언해 중간본 장유의 서(序)에 대해서는 현대어 번역, 『분류두공부시언해』 권6(상),(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참조.

종영가집언해』(1464년), 『아미타경언해』(1464년), 『원강경언해』(1465년) 등 1500년 『개간법 화경언해』가 출간되기까지 20여 권의 불경언해가 간행되었다. 이런 불경언해 간행 사업은 16세기에도 이어져 중종 조의 『별행록절요언해』, 명종 조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등 여러 책이 간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은 책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다.⁹⁾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어린 학습자들과 여성들에게 유교의 예절과 법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서들이었다. 『내훈(內訓)』(1475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81년),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1581년), 『번역소학(翻譯小學)』(1518년), 『소학(小學)언해』(1588), 『여훈언해(女訓諺解)』(1532, 중종27),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45년), 『가례언해(家禮諺解)』(1632, 인조10년) 등 교육서들이 언해본으로 간행되었다. 『번역소학(翻譯小學)』은 조선 시대에, 김전(金詮), 최숙생(崔淑生) 등이 중종 13년(1518)에 왕의 명을 받아 송(宋)나라 유자징(劉子澄)이 편찬한 『소학』을 번역한 책이다. 당시 저본으로 사용한 『소학집성(小學集成)』 10권을 원문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연스러운 조선말로 의역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의미가 크다. 소학을 언해본으로 간행한 이유는 『중종실록』 14년 4월 24일 기사에 보면, 남곤(南袞)의 발문(跋文)에 잘 드러나는데, “(소학의 가르침을) 광인유포(廣印流布)하여 아동 부녀(兒童婦女)에게까지 그 내용을 널리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 유교의 가르침의 기초인 『소학(小學)』을 언해본으로 간행, 배포하여 백성들을 교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번역소학(翻譯小學)』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경서를 완전한 당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라는 점에서 국어사 관점에서 중요하고, 또 민중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45년)는 유교 경전은 아니지만 부모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20세기 초까지 40여 차례 중간이 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고, 교육에 사용된 한글 문서로서 훈민정음의 보급과 민중 언어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책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81년)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종의 명령을 받아 간행된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1581년)는 한자 원문에 한글로 음을 달고 한글 구절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교적 이념 교육할 때 한글 사용이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한글 보급에 기여한 부분은 초급 한자 교습서인 『천자문(千字文)』에 훈민정음으로 훈과 음을 달아 가르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천자문(千字文)』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무제 때의 학자인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지은 사언절구(四言絕句)의 한시(漢詩)이다.

9) 15~16세기 한글 문헌 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한글 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국립국어원(1996), 1210-1247쪽 참조.

겹치는 한자가 없고, 기초 한자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학습자가 한문을 배우는 대표적 한자 교본으로 쓰였다. 조선에서 널리 알려진 『석봉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홍사가 지은 천자문에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달아 당시 명필 한석봉의 글씨를 새겨 만든 책이다. 한글로 새김을 달아놓은 천자문으로는 『광주천자문』(1575년, 선조8)과 『석봉천자문』(1583년, 선조16)이 전해오고 있다. 『광주천자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자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책의 뒷부분에 ‘만력삼년월일광주간상(萬曆三年月日光州刊上)’이라고 새겨진 것으로 보아 조선 선조(宣祖) 8년(1575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광주천자문』은 다른 판본에 나오지 않는 광주천자문에서만 ‘續 우리 적’, ‘律 법랄 룰’, ‘儀 다습 의’, ‘處 바라 처’ 등과 같이 독특한 새김이 많아 조선조 어휘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¹⁰⁾ 내각문고본(內閣文庫本) 『천자문』이 있는데, 이는 조선 선조 16년(1583)에 국가에서 간행했던 『석봉천자문』을 숙종 17년(1691)에 숙종의 서문을 붙여 목판으로 똑같이 복간한 책이다.¹¹⁾ 조선에서 양반가 자제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필수 교육과정의 하나인데, 그 기초교습서로 쓰인 『천자문(千字文)』에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달아 모든 학습자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한자 학습 이전에 훈민정음 교육이 기본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훈민정음으로 된 문서들은 의약, 농사 등 실용에 필요한 번역서들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책은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상),(하)(1466년, 세조12)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불과 20년이 지난 시기에 응급치료를 설명한 의학서인데, 문장도 구어체로 되어 있고, 어휘도 일반 대중이 사용한 일상어로 되어 있어 15세기 국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상),(하)에 나타난 고유어(‘급(急)히다’ 등의 한자파생어 제외한 어휘)가 1,335개나 나와 있어 당시 우리말 어휘 연구에도 중요할뿐더러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문이 아니라 당시 일상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생활화에도 매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귀한 책이다.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에 쓰인 고유어 사용 비율은 매우 높다. 용비어천가에 ‘한자어:고유어’ 비율 ‘606:408’보다도 더 고유어 비율이 819:1,335로 높다.¹²⁾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문에 고유어로 된 구급방 해석을 달아 병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한문 본문과 함께 훈민정음 해설이 요긴하게 쓰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언해구급방』은 세조 12년(1446)에 간경도감에서 〈상〉, 〈하〉 두 책으로 간행했고,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언해』는 성종 20년(1489년) 8권 8

10) 천자문의 새김(훈)에 대한 어휘 분석은 최지훈(2001), 『천자문』 새김 어휘 연구, 『한국어의미학』 9, 한국어의 미학회, 153-177쪽 참조.

11) 한글글꼴용어사전(200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천자문(千字文)’ 참조.

12)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의 어휘 분류와 분석에 대해서는 김영신(1976) 참조.

책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1, 2, 3, 6, 7권만 전하고 있고, 선조 40년(1607년) 허균에 의해 〈상〉, 〈하〉 두 권으로 간행이 되었다. 1446년 간행본과 1489년 간행본은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조금 차이밖에 없는데, 허균의 1607년 간행본은 내용이 매우 압축적이고 내용이 유사하나 앞의 두 책과는 문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¹³⁾ 100년 정도 사이에 상당한 언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의학 관련 한글 문헌으로는 『신선태을자금단』(1479년), 『간이벽온방』(1525년), 『우마양저염역치료방』(1541년), 『본문온역이해방』(1542년), 『구황촬요(救荒撮要)』(1554년) 등이 있다. 한문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훈민정음으로 된 책을 읽어 의학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들이 지닌 의의와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마양저염역치료방』은 소나 말 등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인데, 이두와 한글 번역 두 가지를 함께 실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이고 한글의 생활화에도 의미가 큰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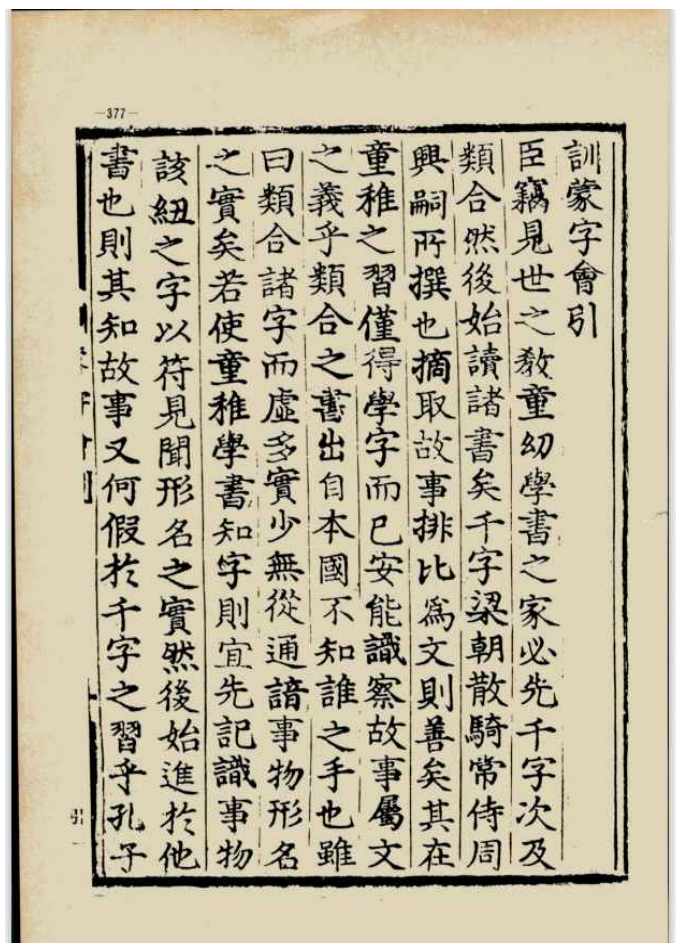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중국, 몽고, 일본과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관들을 위한 책으로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1517년경),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1517년) 등의 한글 문헌 자료도 당시 외국어 교육에 훈민정음이 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1493, 성종24),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조선초기) 등 시가(詩歌) 서적도 한글 생활화에 중요한 책들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은 고유어로 된 음악 용어와 음악 기호들이 실려 있고, ‘용비어천가’ 1-16장, 125장 한글 가사가 실려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1560, 명종15), ‘관동별곡(關東別曲)’(1580, 선조13) 등의 가사와 정철의 모친 안씨의 서간문 등으로 보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실, 양반가의 사람들도 한글 문서를 일상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언문 필사 기록들과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내간문, 홍길동전 등 한글 소설 등 언문으로 기록한 문학작품의 유행은 일반 백성들의 한글 문서의 일상 생활화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내간문(內簡文)은 ‘내간(內柬), 내찰(內札), 언간(諺簡), 언찰(諺札)’이라고도 하는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문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궁중 여인들이나 양반가 부녀자들이 훈민정음(언문)으로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일반 서민의 부녀자들에게까지 확산한 문장 유형이다. ‘내간(內簡)’은 궁중의 아녀자들이나 양반가의 신부가 친척 식구들에게 보내는 문안지(問安紙), 결혼으로 맺어진 안사돈끼리 주고받는 사돈지(查頓紙), 사돈이나 친지의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하장(賀狀), 초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조장(弔狀), 집안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하거나 감사를 전하는 초대장, 감사장 등의 편지

13)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 세 책의 내용과 어휘 비교는 김남경(2005) 참조.

형식이 있었다고 한다. 부녀자들 사이에 주고받던 내간문들이 발전하여 장화홍련전 등 국문 소설과 내방가사 등 규방문학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2.3.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한글 훈음(訓音) 달기와 문자모(諺文字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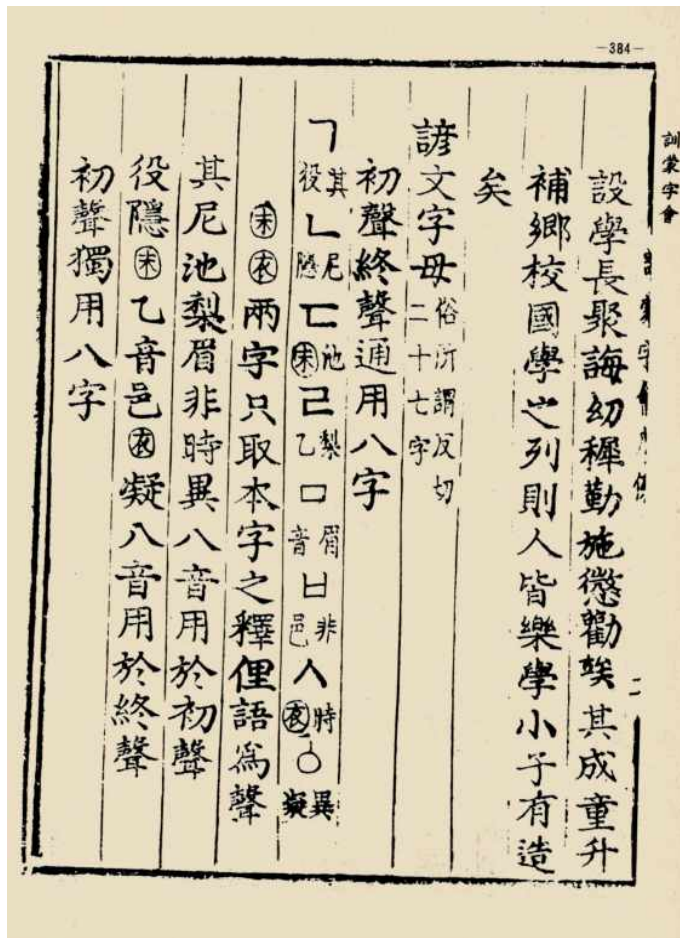


다음으로 훈민정음 생활화, 민주화에 기여한 책은 훈민정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 전문서들이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 중종22),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韻解)』(1750, 영조26), 유희의 『언문지(諺文志)』(1824, 순조24)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중세 한국어로 범위를 국한해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언문자모와 훈음 달기와 언문자모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훈몽자회』는 중종 22년(1527년) 한문을 학습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이다. 이른바 한글 침체기,

탄압기임에도 한문을 배우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한글의 사용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한글 보급과 생활화에 크게 기여한 책이다. 광해군 5년(1613년) 훈몽자회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최세진은 당시 한자 학습에 주로 사용된 『천자문(千字文)』, 『유합(類合)』에서 배우는 한자들이 학습 아동의 경험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새, 짐승, 풀, 나무 등의 이름과 같은 실제 사용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훈몽자회』를 편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상>, <중>, <하> 세 권에 각 1,120자 전체 3,360자를 4글자씩 종류별로 모아 각 글자에 새김, 음, 주석(註釋)을 달아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자 교습

서와 달리 『훈몽자회』의 주석은 한자 새김[訓]과 음(音)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자를 배울 때 한어(漢語)[중국口語]와 이문(吏文)[중국文語]의 언어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중국어와 경전, 시문(詩文)과 의학 정보를 제시하는 등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한자 교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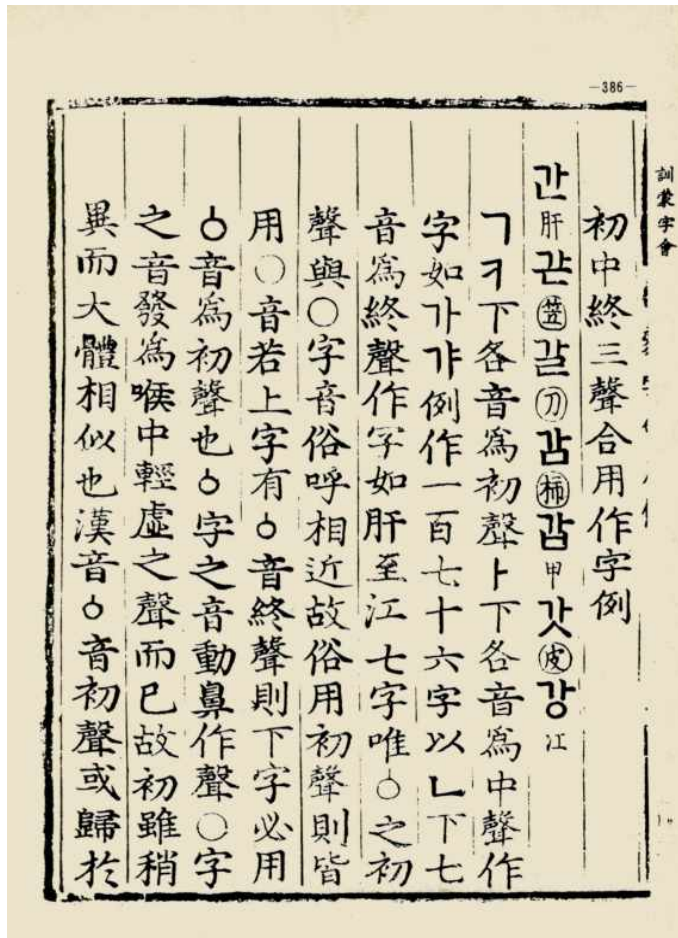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수록된 한자는 <상권>에 천문(天文), 지리(地理), 화품(花品) 등 16문, <중권>에 인류(人類), 관택(官宅), 관아(官衙) 등 16문으로 주로 사물이나 문물의 이름에 해당하는 명사류인 전실자(全實字)를 수록하였고, <하권>에는 잡어(雜語)라 하여 현대 문법 품사의 동사, 형용사 등에 해당하는 반실반허자(半實半虛字)를 수록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권> 앞부분에 ‘훈몽자회인(訓蒙字會引)’과 ‘범례(凡例)’가 실려 있는데, ‘범례’의 끝에 ‘언문자모(諺文字母)’라 하여, 그 당시의 한글 체계와 용법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이는 16세기 당시 우리말의 발음과 어휘, 사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당시 훈민정음 정서

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 (1) ‘언문자모’에서는 훈민정음의 28자 중에서 ‘ㅎ’이 빠진 체계(속소위 반절 27자(俗所謂反切二十七字))를 제시하고 있다.
- (2) 반절 27자(27음소)를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중성독용십일자(中聲獨用十一字)로 나누었다.
- (3) 각 글자 밑에 ㄱ 其役(기역), ㄴ 尼隱(니은), ㄷ 池末(디근), ㄹ 梨乙(리을), ㅁ 眉音

(미음), ㅂ 非邑(비읍), ㅅ 時衣(시옷), ㅇ 異凝(이응)”, “ㄱ 箕(키), ㅌ 治(티), ㅍ 皮(피), ㅈ 之(지), ㅊ 齒(치), ㅌ 而(△ㅣ), ㅇ 伊(이), ㅎ 屎(히)”, “ㄴ 阿, ㄷ 也, ㄹ 於, ㄴ 余, ㅁ 吾, ㅂ 要, ㅌ 牛, ㅍ 由, 一 應 不用終聲, ㅣ 伊 只用中聲, ㆍ 思 不用初聲”과 같이 실제 쓰임 사례를 보이고 있다.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보여주는 한자 학습에서 한글의 사용과 주석은 훈민정음 창제 후 60여 년이 지난 조선 사회에서 문자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문 서적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지만,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데 우리말 새김과 음, 주석을 함께 가르치면서 우리말을 바탕으로 한 한자, 한문 교육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훈몽자회(訓蒙字會)』가 당시 한자 학습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자를 체계적으로 익혀 한문 독해와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편찬한 책이지만, 한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언문(훈민정음)을 익혀 한자, 한문을 익히면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문장에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글 교육에 바탕이 되는 주장과 실천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凡例: “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 故今乃並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 亦將得爲通文之人矣”(변방 지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언문(諺文)을 알지 못하는 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지금 곧 언문 자모(諺文字母)를 함께 지었으니, 그들로 언문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자회(字會)를 배우게

하면 많이 깨우쳐 가르치는 유익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문에 통달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언문을 배워서 글자를 알면 비록 스승이 전수함이 없더라도 또한 장차 문장에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시경 선생도 “本書(훈몽자회) 以後로는 우리글을 用한 諸籍이 거진 다 本書의 例를 從하여 今日에 至하니 訓民正音 以後에 沿革이 此書에 最大한지라.”라고 하여 『훈몽자회(訓蒙字會)』가 이후 『신증유합』, 『천자문』 같은 한자 학습서의 새김, 음, 주석을 붙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다.¹⁴⁾ 『훈몽자회(訓蒙字會)』 이후 훈민정음에 대해 전문적으로 풀이한 책으로 신경준(申景濬)의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1750, 영조26)와 유희의 『언문(諺文志)』(1824, 순조24)가 있으나 실제 백성들의 문자 생활에 끼친 영향으로는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영향이 가장 강력하고 길었다고 본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훈민정음 창제(1443년) 이후 1724년 영조 즉위까지 한국어(중세 한국어)에서 백성들의 한글 사용에 영향을 크게 끼친 서적을 중심으로 한글이 백성들의 삶의 개선에 기여했는지 살펴보았다. 조선 중세 기간에 공문서가 한문으로 기록되고, 한글이 탄압을 받았다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중세 한국어 기간에도 백성들은 훈민정음을 일상에서 자주 배우고 사용하였으며 그것이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었음을 밝혔다. 근세(17세기 중기~19세기 말기) 한국어 자료들이 중세보다 많고 국문 소설 등이 유행하고 19세기에는 한글 성경까지 간행된 것을 고려하면 근세가 중세보다 훈민정음 사용이 훨씬 활발했다. 하지만, 연산군의 한글 서적 불태우고 언문 교습을 금지하는 등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세 한국어 기간에도 훈민정음은 『능엄경언해』를 비롯한 불경언해, 『내훈언해』와 『소학언해』를 비롯한 부녀자들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서적, 『구급방언해』를 비롯한 의학서적, 『사성통고』와 『훈몽자회』를 비롯한 언어학 서적 등을 통해서 조선 백성들의 일상언어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문자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영어가 한국 사람이 배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고, 많은 지식이 영어로 된 문서와 다매체 정보로 유입되는 현재, 어떻게 한글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고,

14) 최세진 저, 최남선 편(1913), 『훈몽자회(訓蒙字會)』, 『訓蒙字會再刊例』, 조선광문회, 박정민(2020: 259쪽) 재인용.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도 한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양반 계층에서 한자, 한문을 잘 배워 중국 한자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애쓰던 시기에, 세종대왕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시고, 이후 왕들은 수많은 언해서를 간행하여 백성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하였고, 최세진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지을 때 우리말로 새김, 음, 주석을 달아 한글을 익히도록 체계를 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제약으로 중세 한글 자료 모두를 검토하지 못하고, 근세 자료와 연결 고리를 튼튼히 하지 못한 채로 중세에도 한글은 우리 백성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바탕이 되는 문자였고, 백성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 도구였음을 밝히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근세 자료들을 더 찾고 분석해서 조선조에도 한글이 우리 언어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앞으로도 한글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핵심 도구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끝>

참고문헌

- 고영근(1997), 『개정판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김남경(2005), 구급방류 의서의 언해 비교, 『언어과학연구』 32집, 언어과학회, 21-40쪽.
- 김동욱(1957), 「정음청시말(正音廳始末)」, 『서울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5』, 서울대 출판부.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228-256쪽.
- 박정민(2020), 『훈몽자회(訓蒙字會)』의 확장성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82집, 동방한문학회, 245-278쪽.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諺解)』 권6 <상>, <하> 현대어 번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인터넷 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소.
- 전재호(1974), 『두시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총서』 제1집, 선명문화사.
- 최현배(1937), 『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 최현배(1940), 『한글갈』, 경성 정음사.
- 한국어학연구회(1994), 『국어사자료전집』, 한국어학연구회, 서광학술자료사.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홍기문(1947), 『정음발달사(正音發達史)』 하(下), 서울신문사.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어 및 한글 연구에 관하여

- 1920년대 후반 표기법 논쟁을 중심으로¹⁾

김병문(연세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 총독부는 3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언문철자법’을 제정한다. <보통 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1921), <언문철자법>(1930)이 바로 그것인데, 이렇게 몇 차례의 수정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철자법’과 ‘표음적 철자법’의 대립 같은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문철자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들은 당연히 철자법 제정이나 수정에 관여했던 일부 위원들만의 관심 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보통학교에서는 조선어 과목이 있었으므로 조선어 교사들이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언문철자법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1919년 3.1운동 이후의 이른바 ‘문화정치’를 계기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와 여러 잡지들이 발간될 수 있었고, 이런 매체를 통해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진지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어와 한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조직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어연구회이다. 이후 조선어학회로 명칭을 바꾸는 이 단체는 1927년 1월부터는 동인지 『한글』을 펴내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전문적인 담론을 주도해 나간다.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공론장에서의 진지한 관심은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 그들에 의한 전문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총독부라는 국가 권력의 정책에 일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1920년대 후반의 조선어 및 한글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다루어

1) 이 글은 김병문,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근간)의 5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보고자 한다.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1920년대 후반의 조선어 한글 연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선어 및 한글 연구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수양동우회 기관지 『동광』에서 1927년 1월에 실시했던 설문 조사를 주요하게 참조하기로 한다. 여기에 조선어 연구자와 교사들 18명이 참여해 당시에 장점이 되던 사항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설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1920년대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를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20년대 민간의 조선어 및 한글 연구

2.1. 「조선어연구회」라는 조직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에는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가 조직되고 또 그와 연관된 각종 강연회나 강습회가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결성된 단체는 조선어연구회이다. 1921년 12월 2일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어연구회」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조선의 말과 글이 일정한 법리로 통일되어 있지 못함이 유감이라며 최두선, 권덕규, 장지영, 이승규, 이규방, 임경재가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 「동아일보」 역시 그 다음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거기에 더해 12월 4일에는 사설을 통해 조선어연구회 창립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1922년 4월 1일에는 조선어연구회 회원 가운데 한 명인 권덕규가 「조선어 연구의 필요」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한다.

조선어연구회는 이후 조선어학회(1931)로, 해방 이후 한글학회(1949)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단체이다. 이 조선어연구회는 1926년 지금의 한글날에 해당하는 ‘가갸날’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전인 1920년대 전반까지는 특별한 활동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1920년대 전반기에 조선어 및 한글과 관련한 단체 가운데 신문에 자주 거론된 것은 조선문통신강습학회(朝鮮文通信講習學會)였다. 1923년 3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회장 박기양과 총무 정진흥이 조선문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선문통신강습학회를 발기하여

1922년 11월 9일에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같은 해 5월 22일자 기사에는 이 단체가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을, 6월 9일자 기사에는 간행할 '강습록'의 체제와 활자, 연구 방법 등에 대해 협의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협의회의 참석자가 현재, 지석영, 박승빈, 장지영, 이필수, 안확 등인 것으로 보아 1921년에 조직된 조선어연구회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문적인 조선어 연구 단체가 개최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선어 혹은 한글에 대한 강연회 및 강습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매우 자주 보도되었다. 예컨대 종로청년회가 주최한 학술 강연회에서 이필수가 조선문, 즉 한글 연구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동아일보』 1923.03.30.), 조선교육협회에서 주최한 교육자들에 대한 조선어 강습에는 권덕규와 신명균이 강사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23.07.16.). 1920년대 중반에도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강연회는 꾸준히 이어져 조선문정음부활회라는 곳에서 강연이 개최되었고,(『조선일보』 1925.04.13.)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곳에서는 과학 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조선말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권덕규를 연사로 초청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26.01.08.).

그런데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권덕규, 신명균, 최현배, 정렬모, 이병기 등 1926년 말 조직을 재정비한 조선어연구회의 회원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강연회가 비중 있게 보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29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조선어학계 권위 철자법 강연 개최」를 보면 조선어만을 전문으로 연구한 권위자들로 조직된 조선어연구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철자법 문제에 대해 강연회를 연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때의 논란이란 앞서 언급한 언문철자법의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어연구회의 회원들은 여기서 '조선어 연구를 전문으로 한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일정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전문 연구자 집단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시작한 것은 1926년 '가갸날', 즉 지금의 한글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어연구회는 1921년 12월에 결성되었지만, 그 이후 이렇다 할 만한 활동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다가 1926년 11월 '가갸날' 기념행사를 즈음하여 비로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회원 대부분이 주시경의 제자들로 바뀌고 동인지 『한글』을 발행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조선어연구회는 1924년 2월에도 훈민정음 '창제' 48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약 2년 10개월 뒤인 1926년 11월에는 훈민정음의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443년 12월(음력)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1446년 9월(음력)

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완성되어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따라서 1924년 2월은 양력으로 환산한 1443년 12월(창제일)의 480주년이 되는 것이고, 1926년 11월은 역시 양력으로 환산한 1446년 9월(반포일)의 480주년이 되는 때이다.

창제와 반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둘 다 훈민정음의 480주년 기념행사였는데 1924년 2월의 행사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연구회 내부의 자체 모임이었던 데 비해, 1926년 11월의 행사 때는 사회 유명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약 3년 만에 이런 차이가 생긴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1920년대 초반부터 생겨난 조선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1920년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조선어 연구와 한글 철자법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1926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행사는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그 명칭이 바뀌기는 하지만 매년 지속되고 그때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한글과 조선어에 대한 각종의 기사와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십여 편씩 게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의 언제나 조선어연구회와 (1931년에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192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언문철자법의 재개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조선어의 표기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문제는 조선 지식인 사회의 큰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21년의 2차 언문철자법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12년의 1차 언문철자법이 안고 있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음은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이다.²⁾ 3차 언문철자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총독부라는 국가 권력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의 과정 때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27년 1월 『동광』의 표기법 관련 설문 조사이다.

2.2. 『동광』의 편집 방침과 표기법 설문

『동광』은 흥사단 계열의 민족주의 운동 단체인 수양동우회가 펴내던 월간 잡지인데, 1926년 5월에서 1933년 1월까지 통권 40호를 발행하였다. 문예물을 포함한 종합지의 성격을 띤 이 잡지는 창간 초기부터 조선어의 표기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26년 5월에 발간된 창간호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편집 후기 형식의 ‘독자와

2) 신창순(1997), 「조선총독부 언문철자법의 전개」, 『한국어문』 4, 정신문화연구원; 정승철(2005), 「일제강점기의 언어정책」,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등 참조.

기자'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문법의 태두 되는 선생님들'의 '국문문법'을 따라서 잡지를 편집하겠다는 방침이 천명되어 있다.

조선글의 문법이 초창시대라 하더라도 오늘가티 혼란하여서는 어떠케 할런지오. 보통학교 교과서에서 쓰는 문법, 신문 잡지에서 쓰는 문법, 예수교 출판물에서 쓰는 것 제각기 다르니 어떤 것이 바른지 글 쓰는 사람이나 글 보는 사람이나 표준을 잡을 수 업습니다. 우리는 우리 글을 발전시키는 운동의 한 가지로 국문문법(문법 중에도 토 바침 쓰는 법)을 우리문법의 태두되시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딸아 쓰기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쇄의 관계로 이 잡지의 기사 전부를 그러케 하지 못하고 뻗 편만 신식 토 바침을 쓴 고로 혹 돌이켜 혼잡할 렴려가 잇스나 활자가 정리되는 대로 기사 전부를 그러케 쓰려고 합니다.

보통학교의 교과서, 신문과 잡지, 예수교 출판물이 따르는 '문법'이 모두 제각각이라서 이에 대한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여기서 '조선글의 문법'이라 할 때의 '문법'은 표기법을 포함하는 의미일 텐데, 이러한 표기법의 혼란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잡지가 따르겠다고 한 '우리 문법의 태두가 되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문문법' 중에서도 특히 '토 바침'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같은 해 8월에 발간된 4호의 '독자와 기자'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어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문문법'의 '토 바침'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선명해진다.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만흔' '조흔' 가튼 쓰기 쉬운 글을 아니 쓰고 '많은' '좋은' 이러케 어렵게 쓰는가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호쯤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해 두는 것은 문법적으로 쓰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한 듯하나 종내는 돌이켜 편하리라 함이외다.

즉, 왜 '만흔, 조흔'과 같이 기존에 익숙한 표기가 아니라 낯설고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좋은'과 같은 식으로 쓰는가 하는 독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잡지의 편집자는 이에 대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문법적'인 표기이며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결국에는 편리한 방식이라고 답하고 있다. 사실 'ㅎ' 받침은 이전에 쓰지 않던 것으로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낯선 것이었다. '본음, 원체, 법식'에 따라야 한다는 주시경의 표기법에 의해 비로소 제안된 'ㅎ'받침을 '문법적'으로 옳은 것이라

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³⁾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발간된 5호에는 그와 같은 표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윤경의 「조선말과 글에 바루잡을 것」이라는 글을 실었다.

김윤경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시경의 제자로서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 「조선말과 글에 바루잡을 것」이라는 글에서 그는 표준어나 표준적인 문장 형태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한문을 섞어 쓰지 말자,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지 말고 낱말 단위로 풀어쓰자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주시경 식 표기법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낫’으로만 쓰지 말고 ‘즈, 츠, 트’ 등도 받침으로 인정하여 ‘낫, 낫, 낫, 낫’과 같이 서로 다른 뜻을 갖는 말들을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는 물론 주시경이 주장한 ‘본음’과 ‘원체’를 밝혀 적는 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법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동광』은 1927년 1월에 발간된 7호에서 “우리글 표기 예의 몇몇”이라는 제목 하에 조선어 교사 및 연구자들에게 표기법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실었다. 다음은 이 설문 조사의 취지를 밝힌 편집자의 글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리 글 쓰는 법이 펍 부정(不精)합니다. 세계에 둘도 없는 가장 좋은 글을 더 좋게 만들어 쓰지 못하고 이렇게 착잡(錯雜) 불통일(不統一)하게 쓰는데 대하여는 누구나 적이 맘이 있다면 한숨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외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글을 좀 다스리고 바루잡아 쓰도록 함이 당연한 일일뿐더러 무엇보다도 크게 급무(急務)인 줄 압니다. ... (중략) ...

위선(爲先) 하로 바빠 곤히어 쓰지 아니하면 안 될 우리 글 표기함에 용례 몇몇을 뽑아서 도하(都下)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에 우리말 담임하여 계신 여러 선생님께와 및 사계(斯界)에 조예가 깊은 몇 분 어른에게 해답을 구하였던바 다행히 일찍붙어 본지를 사랑하여 주신 여러분께로붙어 간독(懇篤)한 회답이 오았습니다. ... (중략) ...

독자 여러분은 이 각 방면의 연구를 서로 비교 대조하며 자유자재로 취사선택하여 바른 본 하나를 심역(尋繹)하시기에 또한 흥미가 없지 아니할 줄 아나이다.

즉, 통일되지 못하여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우리 글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중요한 예 몇 가지를 뽑아서 전문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에게 해답을 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3)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추상적 층위에 존재하는 ‘본음, 원체, 법식’에 따라야 한다는 주시경의 표기 이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123-132쪽 참조.

리고 이들의 연구를 비교 대조하여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 이 설문 조사의 궁극적인 취지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설문에 답을 한 18명 가운데 주시경의 제자이거나 조선어연구회, 혹은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한 이들이 모두 8명이었다는 사실이다.(권덕규, 장지영, 김윤경, 이병기, 최현배, 신명균, 이규방, 이상춘)

물론 어윤적과 같이 보수적인 인사나 당시에 계명구락부에서 활동하던 박승빈과 강매가 포함되었고, 독자적인 견해를 밝힌 장응진, 백정목, 이기석과 같은 이들이 있었으니 설문 조사의 대상이 주시경이나 조선어연구회 계열의 인사들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의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김진호, 김지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인) 역시, 비록 조선어연구회나 조선어학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주시경식 표기법에 찬동하는 쪽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광』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조선어 교사나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설문 조사의 결과가 대체로 3년 뒤에 민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3차 언문철자법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취지를 밝힌 위의 글 자체가 ‘ㅎ’ 받침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고치어 쓰다’를 ‘곧히어 쓰다’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주시경 식 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고치다’라는 구체적인 소리에서 ‘곧-히-다’라는 ‘본음’과 ‘원체’라 할 만한 것들을 분석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로불어’라는 표기 역시 ‘부터’에서 ‘불-어’를 분석해 낸 결과이고, ‘(회답이) 왔다’가 아니라 굳이 ‘(회답이) 오았다’고 표기한 것도 동사 ‘오다’의 어간 ‘오-’와 거기에 붙는 어미 ‘-아’의 원형을 분명히 밝혀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식은 이 설문 조사의 몇 가지 항목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표음주의와 역사주의라는 쟁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던 언문철자법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생소한 질문이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이 설문 조사의 전체 문항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겠다.

3. 1920년대 후반 표기법 논쟁의 실제: 표음주의라는 쟁점

3.1. 『동광』의 표기법 설문을 통해 본 당시의 쟁점

『동광』에서 18명의 조선어 교사 및 연구자들에게 물어본 항목은 모두 10가지이다. 이들은

크게 보아 아래아(‘ㆍ’) 폐지나 구개음화 반영과 같은 ‘역사적 표기 vs. 표음적 표기’의 문제, 된소리 및 두음법칙 표기, 받침의 확대, 그리고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시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관한 문제 등이었다. 그 10가지 문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음 중 ㆍ자를 폐용(廢用) 여부?
예하면 「들」 「먹음」을 「달」 「마음」으로 씀이 어떨가 함.
2. 된시옷이라 일컫는 시 ㅅ ㅆ ㅈ ㅊ 등을 ㅅ ㅆ ㅈ ㅊ의 병서체로 씀이 여하(如何)?
예하면 「섬」 「새」 「썰」 「썩」 등을 「꿈」 「때」 「뿔」 「짖」으로 씀이 어떨가 함.
3. ㅅ ㅆ ㅈ ㅊ ㅊ 행에 ㅈ ㅊ ㅈ ㅊ 등의 복모음을 합용하는 등자(等字)를 쓰지 아니할 여부?
예하면 「더기」(彼處) 「조선」(朝鮮) 「턴상」(天上) 등을 「저기」 「조선」 「천상」으로 씀이 어떨가 함.
4. 말의 두자(頭字)가 ㄴ행으로 될 때 ㅇ로 개용(改用)하게 할 여부?
예하면 「너름」(夏) 「니르」(至) 등을 「여름」 「이르」로 씀이 어떨가 함.
5. 받침은 ㅅ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에 ㅈ ㅊ ㅊ ㅊ ㅊ 등도 다 사용하여야 할 여부?
예하면 「반」(受) 「찾」(尋) 「쫓」(從) 「같」(如) 「높」(高) 「좋」(好) 「앉」(坐) 「옳」(可) 「핥」(舐) 「읊」(詠) 등(等字)를 씀이 어떨가 함.
6. 「드러가」(入去) 「거러가」(步行) 「버서」(脫)라도 쓰고 「들어가」 「걸어가」 「벗어」라도 쓰니 어느 것을 표준?
7. 「되여서」(爲) 「막혀서」(防) 「그려서」(畫)라도 쓰고 「되어서」 「막히어서」 「그리어서」라도 쓰니 어느 것을 표준?
8. 「더우니」(暑) 「지으니」(作) 「우니」(鳴)라도 쓰고 「덥으니」 「젖으니」 「울니」라도 쓰니 어느 것을 표준?
9. 우리말을 한자로 된 말까지라도 다 국음(國音)을 표준하여 씀이 여하?
예하면 「십월」(十月) 「녀즈」(女子) 「리천」(利川) 등을 우리말로 쓸 때에 「시월」 「여자」 「이천」으로 씀이 어떨가 함.
10. 아래와 같은 말은 3종이상으로 쓰니 어느 것을 표준?
한울(天) 하늘 하날
일음(名) 이름 일흠
아희(兒) 아이 아해

1번 문항은 ‘ㆍ’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설문에서 든 예는 모두 고유어(‘들/달, 먹음/마음’)였지만 질문에서 2차 언문철자법까지 유지되던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을 별

도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유어뿐만이 아니라 한자어에서까지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응답 역시 모두 고유어 한자어 구별 없이 글자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답하고 있다. 2번은 된소리 표기에 대해 묻고 있는데, 2차 언문철자법까지 된소리를 ‘ㅐ, ㅑ, ㅒ’ 등으로 표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은 구개음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에는 고유어(‘더귀/저기’)와 한자어(‘조선/조선, 텃상/천상’)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번은 ‘ㄴ’이 단어의 첫머리, 즉 어두에 올 때에는 ‘ㄷ’나 ‘ㅈ, ㅊ, ㅌ, ㅍ’와 결합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두음법칙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음법칙은 ‘근로(勤勞)’의 ‘로’, ‘자녀(子女)’의 ‘녀’가 어두에서는 ‘노동’, ‘여자’처럼 ‘노’와 ‘여’로 바뀌는 것을 뜻하고, 이는 모두 한자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 ‘ㄴ’은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니’나 ‘녀’ 등의 발음이 가능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경이 되면 지금과 같이 ‘ㄷ’와 ‘ㅈ, ㅊ, ㅌ, ㅍ’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4번은 18세기에 발생한 이러한 현상을 소리에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므로 구개음화나 아래아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역사적인 전통과 관습에 따를 것이냐(‘녀름, 니르다’), 아니면 변화한 소리를 표기에 반영할 것이냐(‘여름, 이르다’)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5번은 받침을 전통적인 표기처럼 제한할 것인가, 모든 자음 글자로 확대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였고, 6번에서 8번은 용언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이들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가,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사실 6번 같은 내용은 1차와 2차 언문철자법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예컨대 2차 언문철자법의 9항은 “활용어의 활용 어미는 가급적 어간과 구별하여 서(書)함”이라고 하고 그 예로 ‘먹엇소, 들어간다’를 들었다. 언문철자법에서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동광』의 조사에서 거론된 것인데, 이는 아마도 설문의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인 박승빈의 이른바 ‘단활용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문법에 따르면 ‘먹어’가 아니라 ‘머거’, ‘들어가’가 아니라 ‘드러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8번 문항은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고 어간을 언제나 고정시켜야 한다는 주장, 그래서 ‘더워’가 아니라 ‘덥다’의 어간을 그대로 살린 ‘덥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질문이다. ‘본음, 원체’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시경의 이론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이와 같은 표기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6번에서 8번의 문항은 1차 2차 언문철자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주시경과 박승빈 문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다).

9번은 한자음의 표기에 관한 것인데 ‘녀자(女子), 리천(利川)’ 같은 두음법칙, 그리고 ‘시월(十月)’처럼 원래의 한자음과 달리 소리 나는 이른바 ‘속음(俗音)’의 표기 문제를 묻은 항목이다. 그리고 10번은 이상의 내용에 포함되기 어려운 어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데 사실상 표준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로 1~5번, 9번은 2차 언문철자법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문제들로서 아래아(‘ㆍ’) 폐지 여부, 구개음화와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 된소리 표기의 선택, 받침의 확대 여부를 묻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6~8번과 10번은 언문철자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항들로서, 특히 6~8번은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 시에 발생하는 음운 변동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대체로 어떠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2. 설문의 결과: 언문철자법의 쟁점 해소

1921년의 2차 언문철자법에까지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바로 표음적 표기와 역사적 표기의 선택 문제이다. 1차 언문철자법에서부터 표음적 표기가 시도되기는 했으나 특히 한자음에서는 『규장전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운서나 옥편에 규정된 규범 음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끝내 ‘표음주의’가 관철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아(‘ㆍ’)의 폐지와 구개음화 적용 문제였다. 그렇다면 『동광』의 설문 조사 결과는 어떠했을까? 우선 ‘ㆍ’라는 글자를 아예 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로 주시경의 제자들만이 이 글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자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한 이들도 대부분 ‘ㅁ음’이나 ‘ㅁ일’과 같은 표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ㆍ’를 ‘ㅏ’나 ‘ㅑ’로 소리 나는 글자에는 적지 말고 ‘ㆍ’ 본연의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일단 남겨는 두자는 쪽에 가까웠다. 즉, 위의 ‘ㅁ음’, ‘ㅁ일’은 그 소리대로 ‘마음’, ‘매일’과 같이 적고, ‘ㆍ’는 원래 그 글자가 상징하고 있던 소리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예컨대 배재고보 교원이었던 김진호는 “‘ㆍ’자는 ‘ㅣ’ ‘ㅡ’의 합음(合音)이요 ‘ㅏ’와 갖지 아니한지라 우리 말에 ‘이으’의 음이 있기를 기다릴지오 제거는 불가함.”이라는 의견을 냈다. 즉, ‘ㆍ’가 ‘ㅣ’와 ‘ㅡ’의 합음이라는 주시경의 설을 따르면서 그런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ㆍ’를 없애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ㆍ’ 폐지 불가를 주장한 이들의 논리는 대개 이와 같은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ㆍ’의 소리

까지 엄두에 두면서 표음적 표기를 관철해야 한다는 쪽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 폐지 불가를 주장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글에서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폐지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정작 ‘·’의 실제 소리라는 ‘ㅣ— 합음’이 무엇인지는 그들도 몰랐기 때문이다. ‘·’를 자신들의 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설문 대상 18명 가운데 어윤적과 백정목 단 2명뿐이었는데, 이들이 이 글자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백정목은 ‘·’를 훈민정음 11개의 중성 중에 ‘수위(首位)’, 즉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어윤적 역시 ‘·’가 모든 중성 글자가 ‘발원(發源)한 기점’이므로 폐지 불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중성 글자의 창제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의 「중성해」에서는 중성의 기본 글자를 ‘·, —, ㅣ’로 보고 이들이 각각 ‘천(天), 지(地), 인(人)’을 상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이 세 글자를 통해 다른 중성을 생성해 내고 있으므로 어윤적과 백정목의 주장이 『훈민정음』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전통의 규범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지 당대의 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표음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광』의 설문에서 전통의 권위와 규범에 근거하여 ‘·’ 문제를 처리하자는 이들은 이제 18명 중에 이 두 명뿐이었다.

구개음화 적용 문제를 묻는 3번에 대한 응답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3번의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 ‘다, 더, 도, 듀’나 ‘타, 터, 토, 튜’, ‘샤, 셔, 쇼, 슈’, ‘자, 자, 조, 주’와 같은 글자들을 아예 폐지할 것인가가 된다. 이에 대한 답도 이들을 폐지할 수 없다는 쪽이 훨씬 많았는데, 그 이유 역시 ‘더기, 조선, 텃샹’ 같은 역사적 표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제 ‘다, 타, 샤, 자’와 같은 발음이 나는 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름 없이 배화여고보의 교원이라는 사실만 밝힌 응답자는 한자음의 구속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면에서도, 외국어의 음을 적거나 지방에 따른 사투리를 적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이 글자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성고보의 이규방은 동사와 형용사 등에 토 ‘어’가 접속할 때 줄어드는 소리를 적기 위해 이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다’의 ‘가지-’에 ‘-어’가 붙을 때 ‘가져’가 되니 ‘저’를 안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한자음의 역사적 표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그런 소리로 나는 말들이 있으므로 글자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윤적은 여전히 훈민정음의 ‘정의(精義)’, 즉 정밀하고 자세한 의의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1차 2차 언문철자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역사적 표기와 표음적 표기의 문제는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표음적 표기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2차 언

문철자법이 1921년에 나온 것이고 이 『동광』의 설문 조사가 1927년에 게재된 것임을 감안 하면 이미 민간의 조선어 및 한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아래아와 구개음화 문제에 있어서는 표음적 표기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의 언문철자법의 결과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2차 언문철자법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받침 확대 문제 역시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18명의 응답자 전원이 받침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1년의 2차 언문철자법에서는 종래의 철자법과 받침을 새로 확대하는 방법이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어서 도저히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1927년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은 받침의 확대 쪽으로 완전히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3차 언문철자법이 민간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 일치를 받아들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두음법칙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4번 문제는 고유어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니르다, 녀름’의 표기가 더 우세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본음’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규방은 ‘냐, 녀, 뇨, 뉴, 니’가 어두에서는 ‘야, 여, 요, 유, 이’로 발음되는 것이 사실이나 전자가 ‘본음’이므로 “근본대로 바로 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소리를 ‘본음’이라고 한다면 구개음화나 아래아(‘·’)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저기, 텃디’가 본음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한자음을 다룬 9번 문제에서는 오히려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여자, 이천’으로 적는 쪽이 우세했는데, 그러나 예컨대 주시경의 제자인 이병기는 오히려 ‘녀자, 리천’ 쪽이 표준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텃(天)’은 그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 어느 자리에서나 ‘천’이라는 소리로 나지만, ‘녀(女)’와 ‘리(利)’는 낱말의 첫소리가 아니라면 ‘본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본음’을 밝혀 적는 것이 옳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두음법칙 문제는 4번 항목에서 제시된 것과 9번 항목에서 제시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는 고유어에 관한 것이며 또 소리의 역사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한자어의 소리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1927년 『동광』의 설문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답한 이들 역시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에만 집중했을 뿐, 하나는 소리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고(4번) 다른 하나는 당대의 음운 변동에 관한 것(9번)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따

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 역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한 때문인지 3차 언문철자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두음법칙 규정만은 1, 2차의 것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에서는 두음법칙 문제 역시 표음적 표기를 일관되게 관철하게 된다.

4. ‘문법’이라는 새로운 쟁점

4.1. ‘소리’가 아니라 ‘문법’이라는 기준

『동광』의 설문 항목 10개 가운데 6번에서 8번은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2차 언문철자법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들은 받침의 확대라는 기존의 쟁점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항이었다. ‘국어’의 ‘본음’과 ‘원체’를 밝혀 적자는 것이 주시경이 주장한 표기 원칙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받침을 종래의 7개, 혹은 8개에서 모든 자음 글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5번 설문은 바로 그와 관련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비록 받침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6번, 7번, 8번 항목 역시 말의 원형, 특히 용언의 어간을 어디까지 밝혀 적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받침의 확대 여부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들어가’와 ‘드러가’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를 묻는 6번은 결국 ‘들다’의 ‘들-’이 ‘-어’와 만날 때 그 소리(‘드러’)를 그대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들-’과 ‘-어’를 구별해서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막혀서, 그려서’인가, ‘막히어서, 그리어서’인가를 묻는 7번과 ‘더우니, 지으니’인가, ‘덥으니, 짓으니’인가를 묻는 8번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시에 일어나는 소리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즉, 소리 나는 대로 ‘그려서, 더우니’로 적는 것이 맞는지, 비록 소리와는 다르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그리어서, 덥으니’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다는 차원에서 이 세 문항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것이라 하겠다.

사실 6번에서 8번 문항은 실상은 주시경과 박승빈의 문법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시경의 이론에 동조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들어가, 그리어서, 덥으니’가 맞다고 본 데 비해, 박승빈은 그의 ‘단활용설’에 입각해 ‘드러

가, 그러서, 더우니'가 왜 옳은지를 설명하고 있다. '단활용설'에 입각한 박승빈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7번과 8번 항목의 응답 결과를 통해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동광』에서 집계한 7번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되어서, 그리어서, 막히어서'가 옳다고 한 이가 18명 가운데 8명이고, '되여서, 그러서, 막혀서'가 옳다고 한 이가 4명, 그리고 '되여, 막히여'가 옳다는 이가 1명, '그리어서'나 '그러서'나 양쪽이 다 옳다고 한 이가 4명이었다. 말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쪽이 좀 더 우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동시에 '그러서, 막혀서'와 같이 소리가 줄어드는 대로 적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본 사람이 다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이상춘의 아래와 같은 답변은 이 질문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막히어서’, ‘그리어서’, ‘되어서’가 옳다. ‘막혀서’, ‘그러서’는 원어(元語)와 토를 혼철(混綴)한 잘못된 것이다. ‘막히’, ‘그리’는 동사이요 ‘어서’ 조사이다. ‘어서’를 ‘여서’로 쓰기도 하나 그러나 뜻이 같고 음이 멀지 아니한 바에는 ‘어서’로만 오로지 쓰여 ‘되여서’라 말고 ‘되어서’라 씀이 좋다.

즉, ‘막히, 그리’라는 동사와 ‘어서’라는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막혀, 그러’처럼 섞어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시경의 ‘원체’를 ‘원어’라고 하고, ‘토’를 ‘조사’라고 했을 뿐 이 말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는 주시경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주장이다. 주시경의 표기 원칙은 구체적으로 들리는 소리보다는 추상적 층위에 있는 ‘본음, 원체, 법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위와 같이 소리의 축약까지 거부하는 것이 주시경식 표기의 원리에 맞게 된다.

물론 ‘되어’와 ‘되여’는 두 소리가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되-’와 ‘어’의 결합 시에 일어나는 소리의 변동에 관한 것이다. 현재도 ‘되여’는 복수의 표준 발음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참고로 북한에서는 발음과 표기에서 모두 ‘되여’만을 인정하고 있다), 『동광』의 설문은 이 소리를 인정하여 표기를 아예 ‘되여’로 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따라서 ‘되여, 되여’의 문제는 음운의 축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히여, 막혀’나 ‘그리어, 그러’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여, 막히여, 그리어’만을 옳다고 한 이들은 동사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 시에 발생하는 소리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4.2. ‘덥으니’인가 ‘더우니’인가?

그런데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을 극단적으로 관철하려고 들면 8번의 ‘덥으니, 짓으니’와 같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형태가 ‘문법적’인 것이 된다는 곤란한 문제를 초래한다. 아래 이규방의 응답을 보면 ‘덥으니, 짓으니’를 택한 이들이 이를 ‘문법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ㅂ’, ‘ㅅ’를 모음 앞에서 습관으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문법상에 규칙으로 제정한 이상에는 원(原) 말대로 쓰고 발음만 습관대로 함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지금도 영남이나 관북 지방에는 그대로 남겨 있으니 더욱 편리할 듯하며 ‘더우니’, ‘추우니’의 ‘우’는 ‘ㅂ’을 약(略)하는 동시에 공연히 들어가는 음이니 문법상으로 보면 옳다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덥어서, 덥으니, 짓어서, 닛어서, 짓으니, 닛으니’로 쓰고 발음만 ‘더어서, 더으니, 지어서, 니어서, 지으니, 니으니’로 함이 좋을 듯하되다.

즉, 관습적으로는 모음 앞에 오는 ‘ㅂ’이나 ‘ㅅ’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문법상’으로 보면 그러한 관습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문법상 규칙’에 맞게 “원(原) 말”대로 적고 발음만 ‘더으니, 지으니’와 같은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표기는 문법에 맞게 하고 소리 내는 것은 현실 발음대로 하자는 말은, 예컨대 표기는 ‘먹는’으로 하고 발음할 때만 ‘멍는’으로 소리 내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김윤경 역시 ‘덥으니, 짓으니, 울니’와 같은 식으로 어근을 밝혀 적는 것이 ‘문법적’이고 ‘더우니, 지으니, 우니’는 비문법적이므로 전자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모두가 이와 같은 표기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8번에 대한 실제 응답 내용을 검토해 보면 ‘덥으니, 짓으니’ 쪽이 7명(여기에는 ‘병, △’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다), ‘더우니, 지으니’ 쪽이 7명, 양쪽이 모두 가능하다고 한 이가 1명, 응답을 유보한 이가 2명, 응답하지 않은 이가 1명이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해 거의 정확하게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근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이 ‘문법상’ 옳은 표기라는 ‘덥으니’ 쪽에 비해 ‘더우니’ 쪽에서는 이것이 ‘문법’에 맞는 표기라는 논거를 대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장응진은 ‘덥다’의 ‘덥-’이나 ‘춥다’의 ‘춥-’과 같이 종성에 ‘ㅂ’이 있는 형용사는 ‘어, 으, 이’ 등의 앞에서 ‘관습상’으로 ‘ㅂ’을 발음하지 않는다면 ‘음편(音便)’, 즉 소리 내기에 편한 쪽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신명균은 ‘표준어는 규칙보다도 통계 문제가 더

중대'한데, '덥으니, 짓으니'가 아무리 '법'에 맞고 또 그렇게 말하는 지방이 없지 않지만 '통계상' 그것이 도저히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문법에는 '덥으니, 지으니'가 맞지만 '관습상,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을 의식한 듯, 이상춘은 "어떤 정도까지는 습관을 모시(侮視: 하찮게 여김 - 인용자)할 수가 없지마는 그렇다고 덮어놓고 습관을 좇을 수는 없다."며 문법에 맞는 표기, 즉 '덥으니'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주시경 식 표기를 견지하는 쪽에서는 '더우니'를 문법의 틀로 설명할 방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몇 년 후인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규칙용언과 변격용언(불규칙용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즉,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규칙활용을 하면 소리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적지만 불규칙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가 변한 대로 적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규칙용언은 '먹는[명는]'과 같이 소리가 변하더라도 그 원형을 그대로 적지만, 변격용언은 원형('덥-+-으니')이 아니라 소리의 변화('더우니')를 표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이러한 해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물론 최현배의 문법이 었다. 주시경은 우리말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언 활용이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이나 하는 문제 설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현배는 1930년 「조선어 품사 분류론」에서 용언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에 따라 주시경의 문법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즉, 주시경은 지금의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토'로 분류하여 이들을 앞에 붙는 체언 및 용언과는 별도의 요소로 보았던 데 비해, 최현배는 이 가운데 어미를 용언의 일부분으로 설정하고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활용'이라는 문법적 현상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주시경 문법에서는 '먹다'의 '먹-'과 여기에 붙는 요소들, 즉 '-으니, -어서, -고, -지' 등이 모두 별개의 낱말이었다. 그에 비해 최현배의 문법에서는 '먹-'과 여기에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먹으니, 먹어서, 먹고, 먹지' 등이 되는 것이 '먹다'라는 동사 내부의 일, 즉 '활용'이라고 본 것이다.(마치 영어 단어 'go'가 'go-went-gone'으로 활용하는 것이 'go'라는 단어 내부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이 활용에는 모든 단어들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몇몇 어휘들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불규칙적인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칙적인 활용일 때는 원형을 밝혀 적고('먹는[명는]') 불규칙일 때는 소리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다('더우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처리는 최현배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최현배는 ‘덥으니’가 옳은지 ‘더우니’가 옳은지를 묻는 8번 항목에 대해 “이것은 여기에 얼른 말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최현배였으나, 1927년의 상황에서는 ‘덥으니’와 ‘더우니’ 중에 어떤 표기가 옳으냐는 질문에 문법적 설명이나 해설은 고사하고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조차 고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윤경은 ‘덥으니’가 문법적으로 옳다고 하고 신명균은 ‘더우니’를 ‘통계상’ 표준으로 설정할 만하다고 한 데 이어 최현배는 어느 쪽인지 선택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는 주시경의 제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뜻하며 바로 이 문제가 주시경의 표기 이론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맹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당시 박승빈은 ‘단활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4.3. ‘활용’의 도입

최현배에 따르면 ‘활용(活用)’은 주시경의 제자 그룹에서는 ‘이단시’해 왔던 개념이었다고 한다.⁴⁾ 아마도 ‘활용’은 ‘굴절어(屈折語)’인 인구어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말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굴절’이란 하나의 단어가 일정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때 그에 따라 어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영어의 ‘I, my, me, mine’, ‘he, his, him, his’와 같은 대명사의 변화나 ‘go, went, gone’, ‘write, wrote, written’ 같은 동사의 변화가 그것이다. 대명사의 변화는 문장에서 그것이 주격이나, 소유격, 목적격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동사의 변화는 동작의 시간적인 관계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개 체언의 변화를 ‘곡용’, 용언의 변화를 ‘활용’이라고 구분한다.

이에 비해서 우리말은 고정된 어근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조사나 어미를 덧붙여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대명사 ‘그’에 조사 ‘-가, -의, -를, -에게 …’등이 붙는다든가, 동사 ‘가다’의 ‘가-’에 어미 ‘-고, -니, -서, -다 …’ 등이 붙는 예가 그렇다. 이렇게 어근에 문법적 요소가 규칙적으로 붙는다고 하여 이런 언어를 ‘첨가어(添加語)’라고 한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바로 이와 같이 어근에 문법적 요소가 규칙적으로 첨가되었을 때 그 소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이었으므로 활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광』에서 제시한 설문 7번과 8번의 항목은, 예컨대 ‘먹는[명는]’처럼 단순히 하나

4) 최현배(1930), 「조선어 품사 분류론」, 『조선어문연구』 1, 연희전문학교, 69쪽.

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용언의 원래 형태 자체에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러서’는 잘못이고 ‘그리어서’가 맞는 표기가 되고, 더 나아가 ‘덥으니’와 같이 현실 발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문법적으로 옳은 표기가 되고 만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조선말과 글에 바꾸잡을 것」이란 글에서 김윤경은 ‘부끄럽은, 쉽은, 어렵은’과 같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그의 실수가 전혀 아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문법에 맞는 표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시경의 제자들이 모두 이러한 표기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광』의 설문에 응답한 주시경의 제자들 가운데에 ‘덥으니’를 선택하는 이는 김윤경뿐이었다. 신명균이 ‘규칙’과 ‘법’으로는 ‘덥으니, 짓으니’가 맞겠지만 통계상 도저히 그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더우니’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권덕규 역시 관습상 ‘더우니, 지으니’로 발음하니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선뜻 고르지 못하겠다고 한 최현배와 마찬가지로 이병기 역시 어느 것을 표준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따라서 주시경 제자들 역시 대체로 ‘덥으니’를 선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우니, 지으니’를 통계상, 관습상 표준으로 선택한다고 할 수 있을 뿐 그렇게 적어야 할 문법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관습상, 통계상 우세한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먹는’이 아니라 ‘명는’이 표준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덥으니’가 아니라 ‘더우니’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려면 이것이 ‘먹는[명는]’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통계와 관습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승빈은 ‘더우니, 지으니’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관습이나 통계 등이 아니라 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덥으니, 짓으니’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더우니, 지으니’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다. 즉, 주시경의 이론에 따라 ‘덥’과 ‘짓’을 원형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고정시키려 하다 보니 ‘덥으니, 짓으니’라는 실제로는 없는 말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더우, 지으’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이 뒤에 어떤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 이것이 몇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박승빈의 이와 같은 설명에는 물론 앞서 언급한 그의 ‘단활용설’이라는 특유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예컨대 ‘기다리’와 같은 기본형의 맨 마지막 음절 ‘리’를 ‘어미’로, 그 앞의 부분을

‘어간’으로 보는데, 이 뒤에 ‘니, 며’와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서, 도’ 등이 왔을 때 ‘기다리’의 ‘리’(그의 용어로는 ‘어미’)가 ‘려’로 변동되는 현상을 바로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기다리’는 ‘원단’, ‘기다려’는 ‘변동단’이 되는데, ‘먹다’와 같은 경우에는 ‘머그니, 머그며’ 등의 ‘머그’가 ‘원단’, ‘머거서, 머거도’ 등의 ‘머거’가 ‘변동단’, ‘먹고, 먹지’ 등의 ‘먹’이 ‘약음(約音)’이 된다는 것이다. ‘어미’가 변동하는 이와 같은 ‘법칙’에 적용해 보면 ‘더우니’의 ‘더우’는 오히려 기본형에 해당하는 ‘원단’이 되고 ‘더워서’의 ‘더워’가 ‘변동단’, ‘덥고, 덥지’의 ‘덥’이 ‘약음’이 되는 것이다.

원단	변동단	약음
기다리(니/며)	기다려(서/도)	
머그(니/며)	머거(서/도)	먹(고/지)
더우(니/며)	더워(서/도)	덥(고/지)
지으(니/며)	지어(서/도)	짓(고/지)

자신의 주장이 기존의 통설과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박승빈은 이 설문의 마지막에 ‘부언(附言)’을 달아서 설문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주시경과 자신의 문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주시경 선생 계통으로 조선어법을 연구하는 현재 다수의 학설”에 의하면 동사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 때문에 ‘으며, 으니’ 등의 ‘으’와 ‘어서, 어도’ 등의 ‘어’라는 실체 없는 말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활용을 인정하는 자신의 문법에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시경의 문법에 따르면 ‘먹으며, 먹어서’로 적게 되는데 이런 표기는 이 말이 ‘먹--+으며, 먹--+어서’로 구성된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박승빈의 ‘단활용설’에 따르면 이들은 ‘머그--+며, 머거--+서’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둘의 궁극적인 차이는 ‘먹’을 고정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머그, 머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박승빈의 입장에서 볼 때, ‘먹’을 고정시킨 전자는 불가피하게 ‘며’와 ‘서’ 앞에 ‘으’와 ‘어’라는 이론적 가공물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 가공물인 이유는 ‘그리니, 그러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귀에는 ‘머그니, 머거서’로 들리지만 여기서 ‘먹’이라는 원형을 억지로 추상화해 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으, 어’라는 실체 없는 요소가 생겨난다는 것이 박승빈의 주장인 셈이다.

박승빈이 볼 때 이와 같은 주시경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덥으니, 짓으니’와 같이 현실에는 전혀 없는 말을 문법적으로 옳은 표기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주시경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정작 ‘덥으니, 짓으니’를 주장한 이가 김윤경밖에 없었지만, ‘본음, 원체’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시경의 이론을 예외 없이 관철하려면 그와 같은 표기는 불가피해진다. 김윤경을 제외한 다른 주시경의 제자들이 ‘덥으니, 짓으니’의 선택을 꺼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표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더우니, 지으니’를 통계나 관습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에 비해서 박승빈은 자신의 ‘단활용설’을 통해 이런 표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었다.

주시경은 ‘본음, 원체’를 밝혀 적는 자신의 표기 이론이 ‘국어문법의 사상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⁵⁾ 따라서 주시경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우니’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내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현배가 1930년 「조선어 품사 분류론」에서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통일안>은 규칙활용과는 달리 불규칙활용에서는 원형이 아니라 소리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도록 해 ‘더우니’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최현배가 도입한 활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먹그니, 머거서’와 같은 박승빈의 ‘단활용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더우니’를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결국 최현배는 활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주시경의 문법에서는 멀어졌지만, ‘국어문법의 사상’을 인도한다는 주시경의 표기법만은 지켜낼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사실 최현배의 활용이라는 개념이 <통일안>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규칙활용이 아니라 불규칙활용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더우니, 지으니’와 같은 불규칙활용이 없었다면 활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현배의 새로운 문법은 1920년대 후반의 표기법 논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5) 주시경(1908), 『국어문전 음학』, 박문서관, 62쪽.

분과발표

주제 2

제2부

우리 말글 성장과 진단

사회 :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귀마워
한글



국어 순화의 참된 뜻

김일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 도입

이 연구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외국어와 다듬은 말의 사용 양상을 시기적으로 추적해 보고, 이를 통해 순화어의 사용 실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어 순화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향후 전개될 국어 순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모색하게 될 것이다.

국어 순화는 주지하다시피 일제 강점기 시기의 일본어 잔재를 몰아내기 위한 노력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범람하는 외래어의 영향 속에서 국어를 순화하기 위한 국립국어원 중심의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는 등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화할 대상어를 선정하고, 순화 대상이 되는 단어에 대한 ‘순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과업이 아니다. 특히 순화어가 언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게 된다면 국어 순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의미가 다소 약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서 국어 순화의 결과인 ‘순화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순화 정책에 적극 참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 중 일부를 대규모의 신문 말뭉치인 ‘물결21 코퍼스(확장판)’와 ‘동아일보 역사코퍼스’를 활용하여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순화어의 사용 현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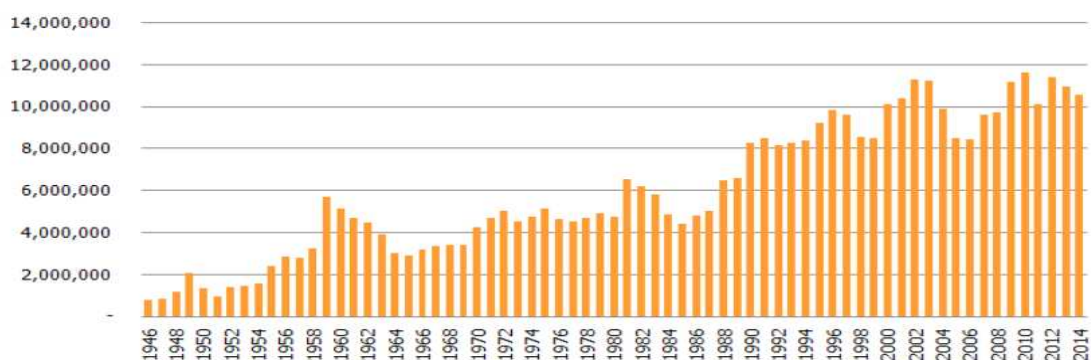
2. 대상 자료와 방법

2.1. 대상 자료

순화어의 정착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그림 1>의 ‘물결21 코퍼스(확장판)’과 그림 2의 ‘동아일보 역사코퍼스’이다. 먼저 ‘물결21 코퍼스(확장판)’은 기존의 물결21 코퍼스(2000~2013년 기사)에 6년치의 신문 기사(2014~2019)를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서 2000년대 초기 20년 동안의 언어 사용 양상 등을 추적하기에 매우 요긴한 자료이다. <그림 2>의 ‘동아일보 역사코퍼스’는 동아일보 1946년 기사부터 2014년 기사에 이르는 약 7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신문 기사 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의 거시적인 차원의 언어 혹은 관심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자료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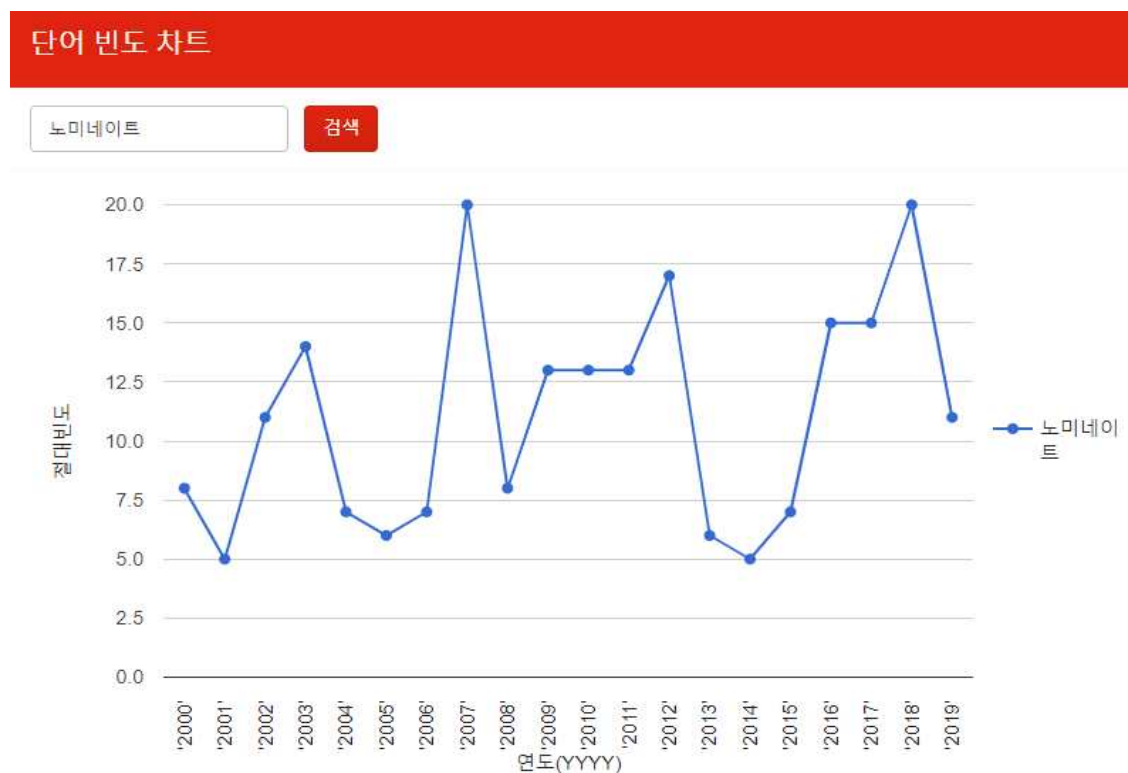
<그림 1> ‘물결 21’코퍼스(확장판)의 규모와 구성



<그림 2> ‘동아일보 역사코퍼스’의 연도별 규모

2.2.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 살펴볼 순화어는 국립국어원의 ‘다음은 말’에서 2004년 7월 12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제공한 408개의 순화어 목록 가운데 2013년 이전에 심의, 고시한 20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개의 순화어는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최재웅·이도길 2014)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착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두 코퍼스는 기본적으로 형태 분석된 결과를 검색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순화어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3>은 2000년대 자료인 ‘물결21 코퍼스(확장판)’에서 순화 대상어 중 하나인 ‘노미네이트’의 사용 빈도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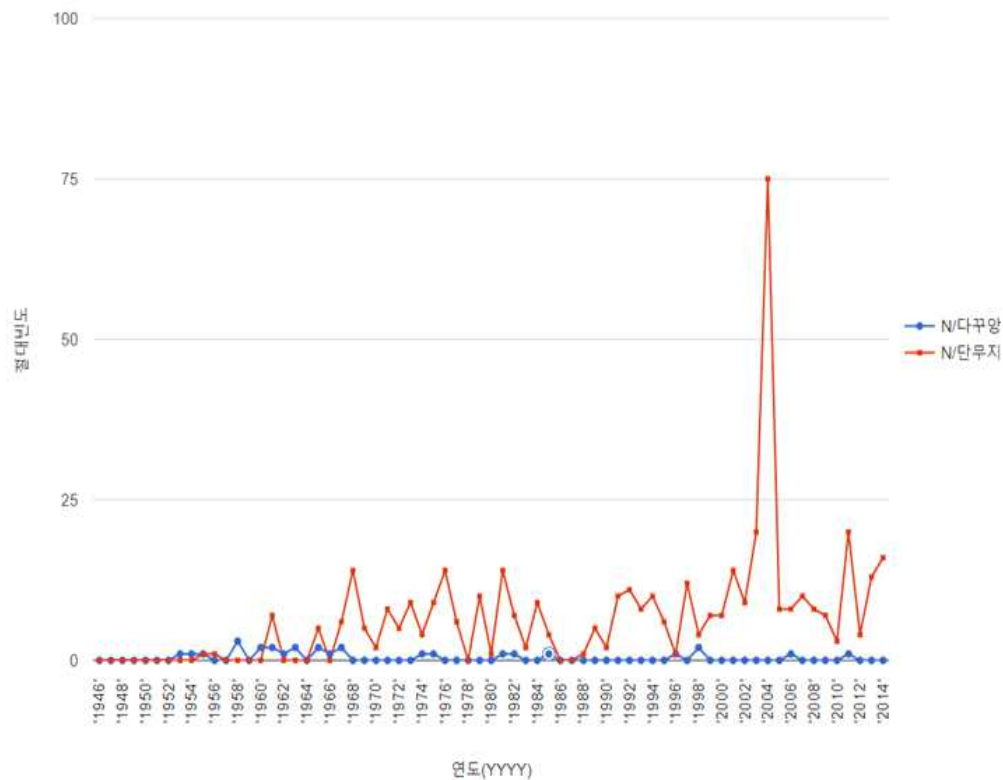
<그림 3> ‘노미네이트’의 연도별 사용 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순화어 200개의 빈도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빈도가 4회 이상(즉 4년 동안 사용이 발견된 경우)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3. 순화어의 사용 현황

3.1. 이전의 국어 순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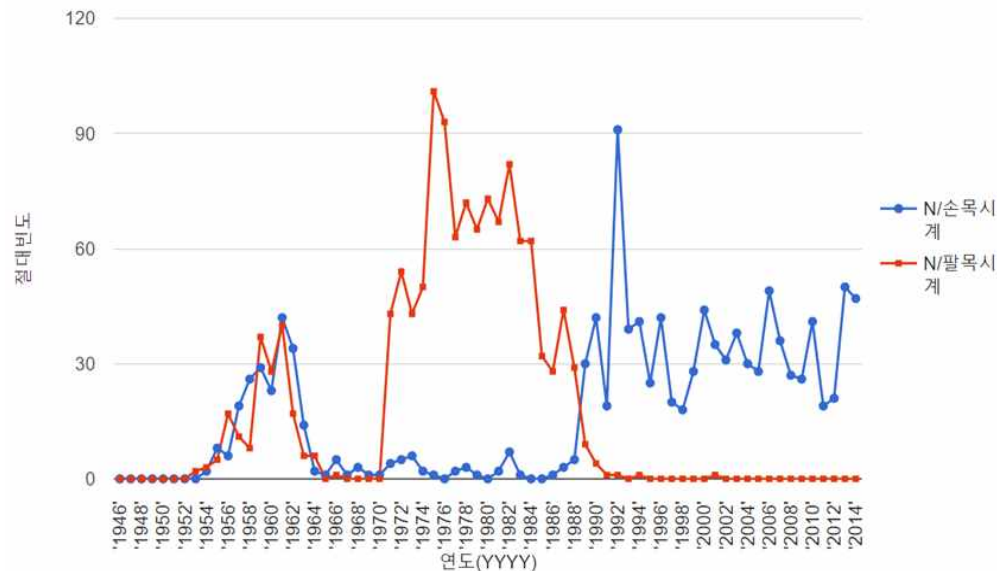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이후의 국어 순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어의 잔재를 일소하려는 차원의 국어 순화는 언중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4>는 ‘다꾸양’이라는 일본어가 ‘단무지’라는 새로운 단어로 순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다꾸양’과 ‘단무지’의 시기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역사코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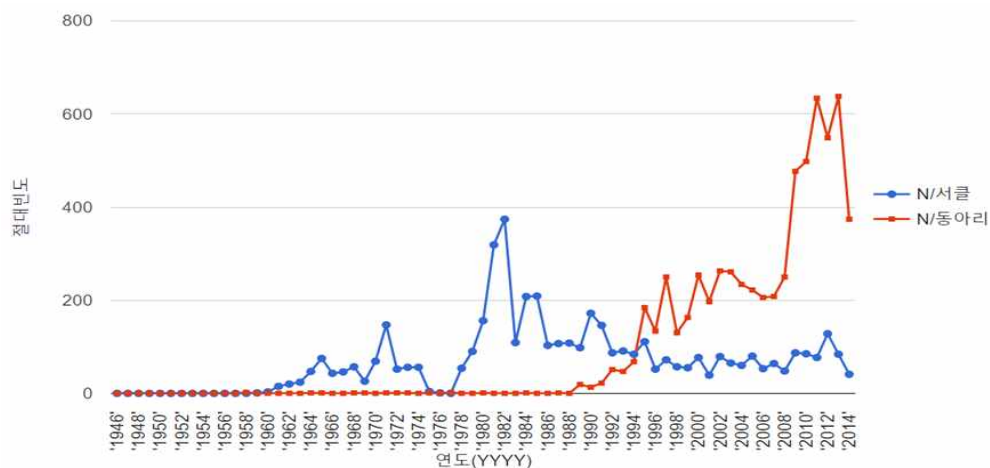
국어 순화는 표준어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즉 순화의 대상이 되는 말을 비표준어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순화어만을 표준어로 공인함으로써 인위적이고 규범적인 방법을 통해 순화어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림 5>에서는 1988년의 표준어 사정에 의해 과거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던 ‘팔목시계’가 일순간에 ‘손목시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¹⁾ 특히 신문이라는 공적인 매체는 표준어 사용이 강제되므로 표준어에 의한 순화는 매우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5〉 ‘손목시계’와 ‘팔목시계’의 시기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역사코퍼스)

한편 〈그림 6〉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례이다. ‘동아리’는 ‘서클’을 순화하기 위해 제안된 신어인데, 신어인 ‘동아리’가 잘 정착되긴 하였지만 ‘서클’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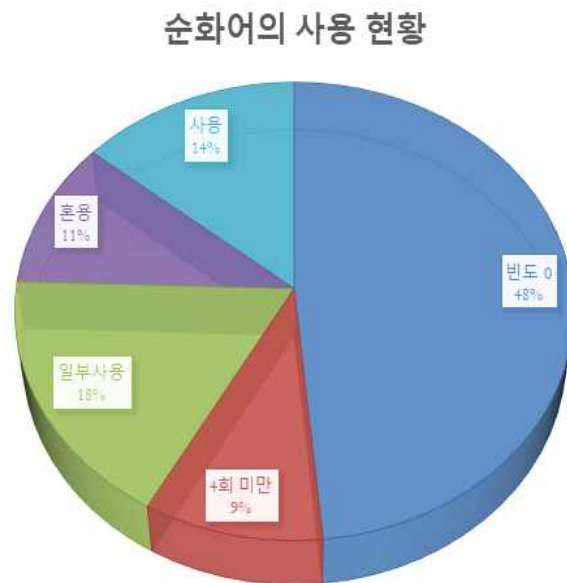


〈그림 6〉 ‘서클’과 ‘동아리’의 시기별 사용 빈도

- 1) ‘팔목시계’와 ‘손목시계’의 표준어 선정 과정은 국어 순화의 문제라기보다는 표준어 선정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 특정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사례로 소개하였다.
- 2) 물론 이 과정에서 ‘서클’은 이전 시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정적인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게 된다.

3.2. 순화어의 사용 양상

먼저 200개의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의 사용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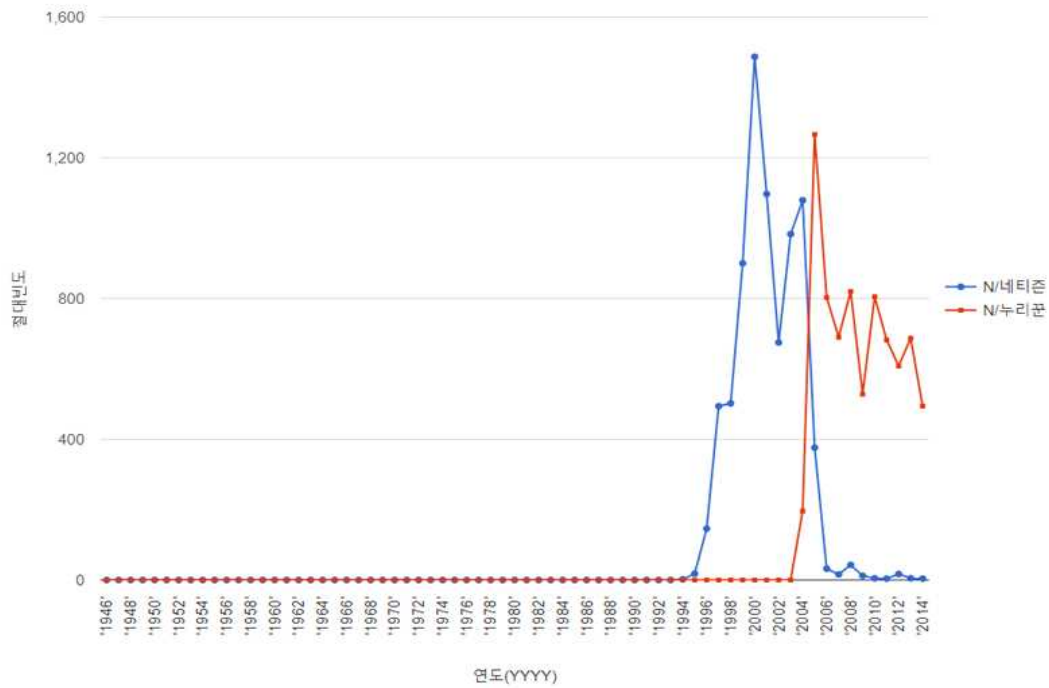
<그림 7> 순화어의 사용 현황

<그림 7>에 의하면 순화어는 48%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안정된 빈도를 보이는 순화어의 비율은 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서는 안정된 사용 빈도를 보이는 순화어, 그리고 특정한 일부 시기에 쓰이는 부분적인 사용 빈도를 보이는 순화어, 그리고 간헐적, 인위적으로 쓰이는 순화어, 마지막으로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가 정확히 대응되지 않는 순화어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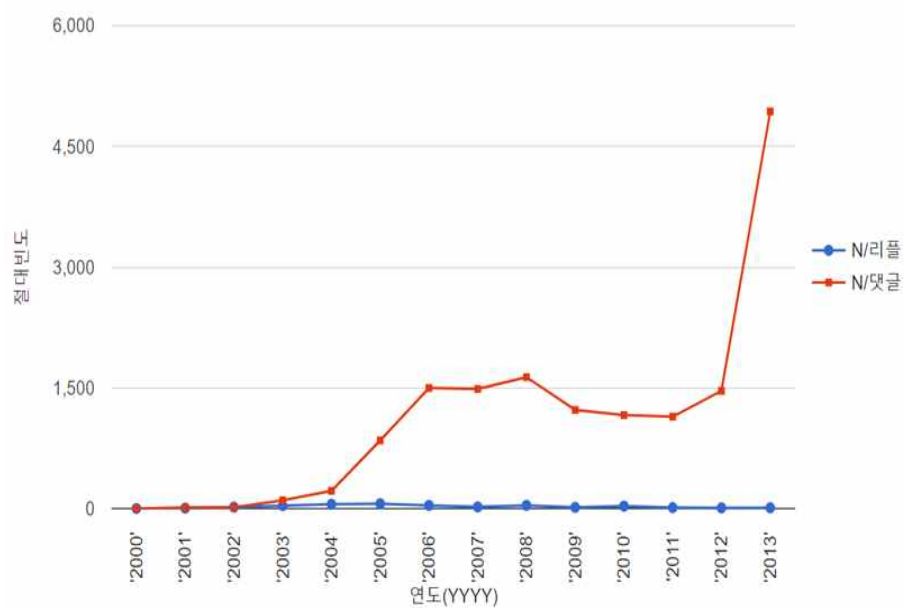
3.2.1. 안정적인 사용

순화어의 사용 빈도가 높고 그 사용 기간이 높다면 해당 순화어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순화어가 생성 혹은 선정되었을 시점부터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순화어가 제안된 시점에 사용 빈도가 낮다면 해당 순화어의 정착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는 각각 ‘네티즌’과 ‘리플’의 순화어인 ‘누리꾼’과 ‘덧글’의 사용 빈도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순화어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사용 빈도가 관찰된 것으로, 이러한 단어들은 “안정적인 사용”을 보이는 순화어로 분류하였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순화어는 14% 정도가 포함되었다.



〈그림 8〉 '네티즌'과 '누리꾼'의 시기별 사용 빈도



〈그림 9〉 '리플'과 '댓글'의 연도별 사용 빈도

3.2.2. 부분적 사용

순화어가 정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사용 기간과 빈도 분포가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적 사용”을 보이지는 못하고 순화어가 제시된 시점을 중심으로 제한된 사용 분포만을 보이는 순화어를 “부분적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부분적 사용 양상에 포함되는 순화어는 모두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마블링’의 순화어인 ‘결지방’은 3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낮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사용’에 포함된다. 또한 ‘마우스 포테이토’의 순화어인 ‘골방누리꾼’은 2008년에만 그 빈도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누리꾼’이 안정적인 사용을 보이는 것과 비교된다. 즉 ‘누리꾼’이 정착에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누리꾼’을 포함하는 순화어가 모두 안정되게 정착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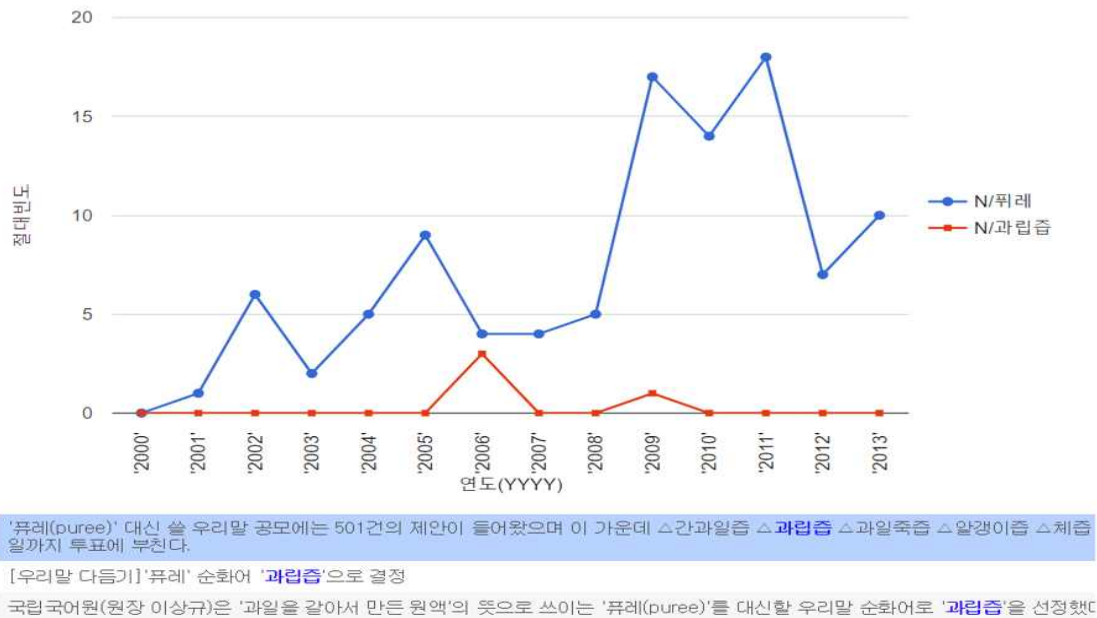
〈그림 10〉 ‘결지방’과 ‘골방누리꾼’의 시기별 사용 빈도

3.2.3. 인위적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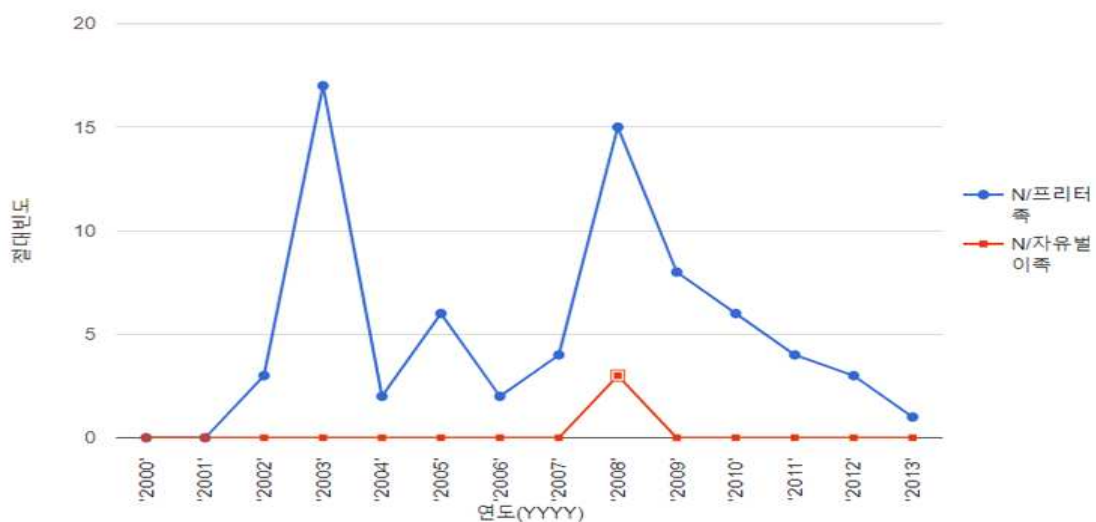
순화어 자체가 인위적, 정책적인 산물이므로 ‘인위적 사용’이란 분류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인위적 사용이란 언중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화된 것이 아니라 순화어에 대한 소개나 보고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 순화어의 빈도가 관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위적 사용은 자

연스러운 발화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 사용만 보이는 순화어는 대체로 정착하기 어려우며 제한된 시기에 저빈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위적 사용에 속하는 순화어는 전체 순화어의 9% 정도를 차지한다.

〈그림 11〉은 ‘퓨레’와 그 순화어인 ‘과일즙’, 〈그림 12〉와 〈그림 13〉은 ‘프리터족’과 ‘자유별이족’의 시기별 사용 빈도와 용례를 보여준다.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순화어는 언증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11〉 ‘퓨레’와 ‘과일즙’의 시기별 사용 빈도와 용례



〈그림 12〉 ‘프리터족’과 ‘자유별이족’의 시기별 사용 빈도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프리터(freeter)'족을 대신할 우리말 공모에는 574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일자리협새족 △간이근로족 △맞춤별이족 △자유별이족 △결별이생계족 등 1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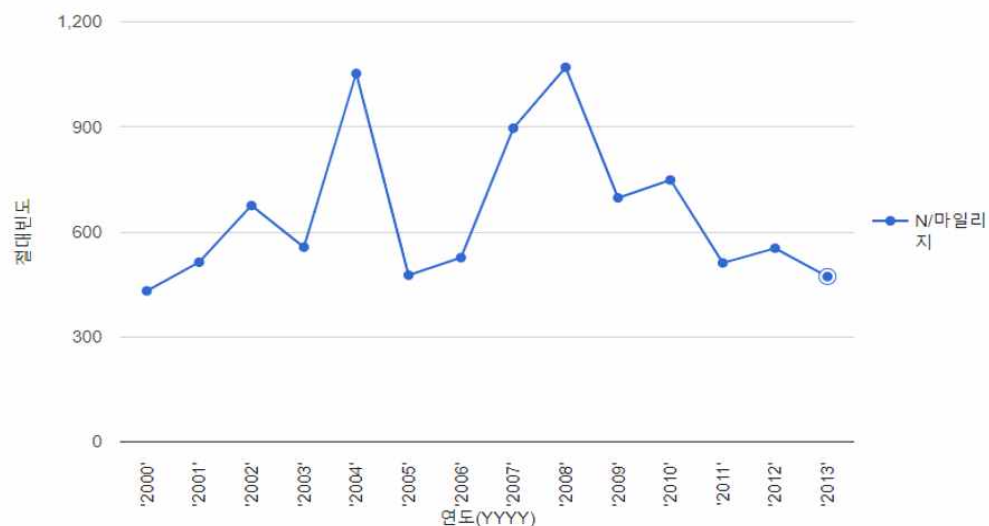
[우리말 다듬기] '프리터족' 순화어 '자유별이족'으로

국립국어원은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프리터(freeter)'족을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자유별이족'을 17일 선정했다.

〈그림 13〉 '프리터족'과 '자유별이족'의 인위적 사용 예시

3.2.4. 혼용

'혼용'에 포함되는 순화어는 모두 11%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부류에 속하는 순화어는 순화 대상이 되는 단어와 정확히 대응되지 못해서 과연 순화어가 정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그림 14〉에서 보듯이 '마일리지'의 순화어는 '이용 실적'이지만 '이용 실적'이라는 단어가 '마일리지'의 순화어로 모두 쓰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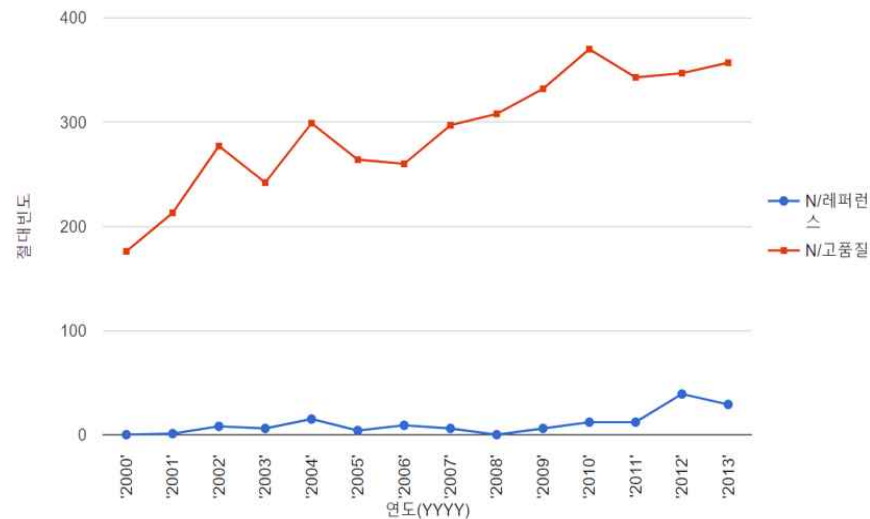
'이용실적'은 '이용^실적'으로 사용됨(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음)

다른 용법으로도 사용됨(“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용 실적 부진 원인으로 우선 '요양보험 준비부실'과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그림 14〉 '마일리지'의 시기별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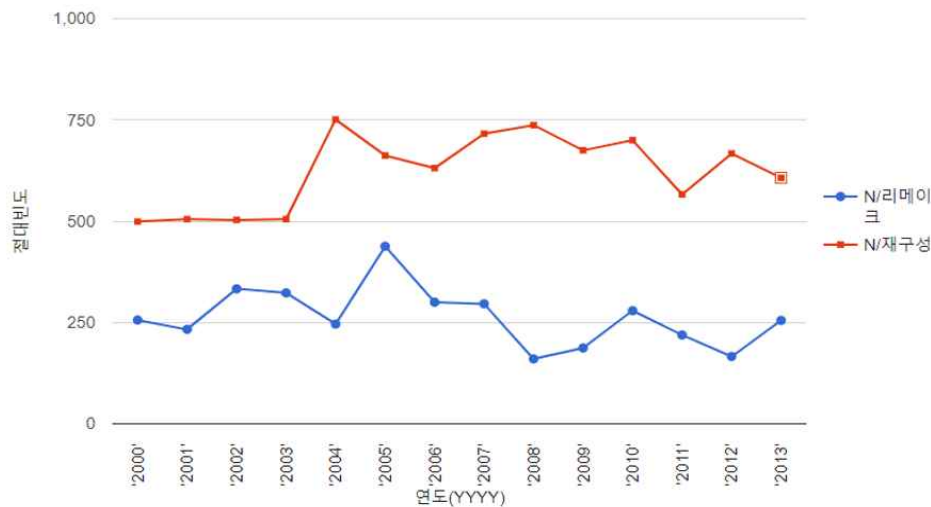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5~17〉에서 예시한 '레퍼런스'와 '고품질', '리메이크'와 '재구성', 그리고 '올킬'과 '썬썬' 등이 이러한 '혼용'의 사용 양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순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어와 이를 순화하기 위한 순화어가 정확히 대응되지 못할 경우, 순화 대상어가 가진 의미를

순화어가 적절히 포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혼용’의 유형에 포함된 순화어가 정착하기 쉽지 않음을 뜻한다.



HEIS 매장은 홈시어터 구성품들의 수준에 따라 ▶최고급형인 **레퍼런스**(reference)를 ▶가정용 리빙룸 ▶작은 공간을 위한 스피커 등 7개 전문 전시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회사 측은 전시된 수준의 **레퍼런스**를 구축에는 8천만~3억원, 리빙룸 구축에는 5백만~1천5백만원, 스피커는 1백만~8백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성품을 선택해
● 우리도 **레퍼런스** DVD
한국영화 ‘친구 UE’ ‘업기적인 그녀’ ‘무사’도 **레퍼런스** 타이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림 15〉 ‘레퍼런스’와 ‘고품질’의 시기별 사용 빈도와 용례



‘리메이크’의 순화 결과 ‘재구성’이 쓰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친구와의 다툼을 글로 쓸 경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 16〉 ‘리메이크’와 ‘재구성’의 시기별 사용 빈도와 용례



〈그림 17〉 ‘울킬’과 ‘씩쓸이’의 시기별 사용 빈도와 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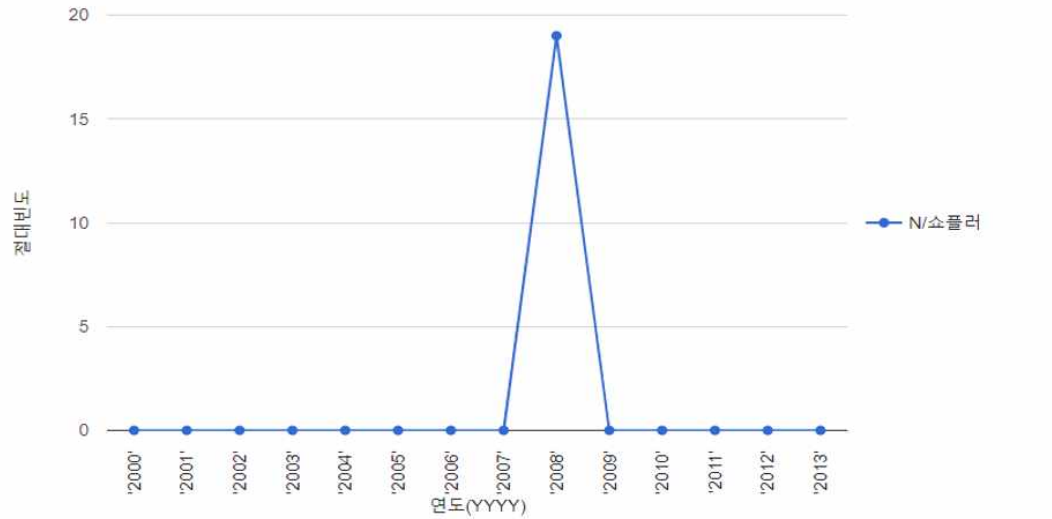
4. 국어 순화어의 정착을 위한 논의

순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정리하고,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순화어를 선정, 보급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순화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중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와 순화어의 사용 양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순화어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인지, 단어의 사용 양상과 관련하여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그림 18〉은 ‘쇼플러’의 시기별 사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화의 대상이 되는 외국어는 2008년에만 반짝 사용이 관찰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 순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가 이미 자체적으로 소멸되었는데 이 단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안된 ‘원정구 매죽’이 정착할 수 있을까? 매 맞을 놈이 없는데 회초리를 들고 나서는 꼴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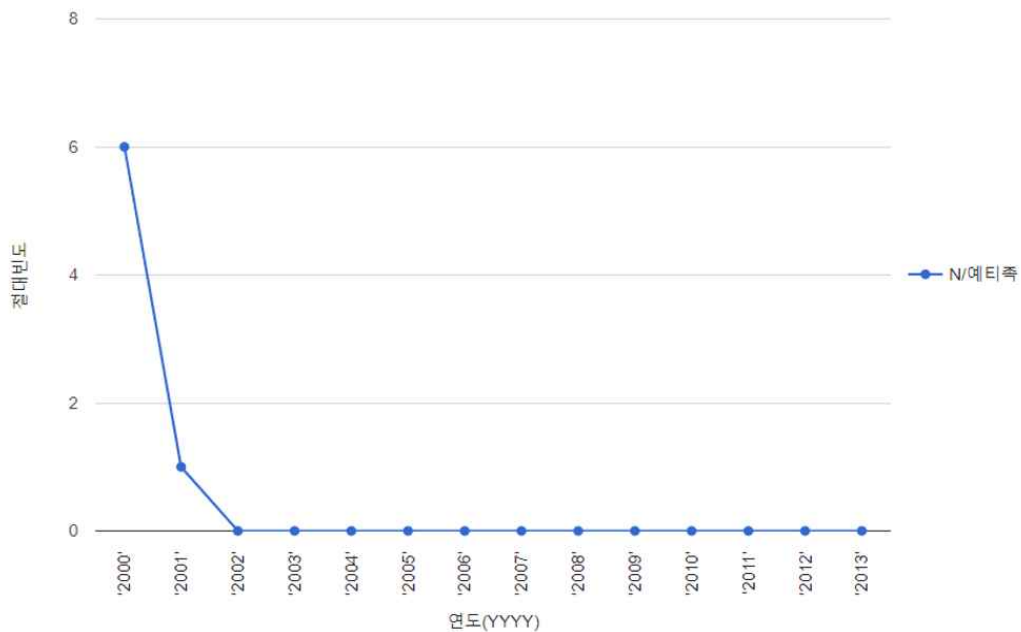
〈그림 19〉의 ‘예티족(Yettie族)’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예티족’도 처음 2년 동안만 사용이 관찰되다가 이후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티족’의 순화어인 ‘자기가치

개발족'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즉 순화어가 정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가 어느 정도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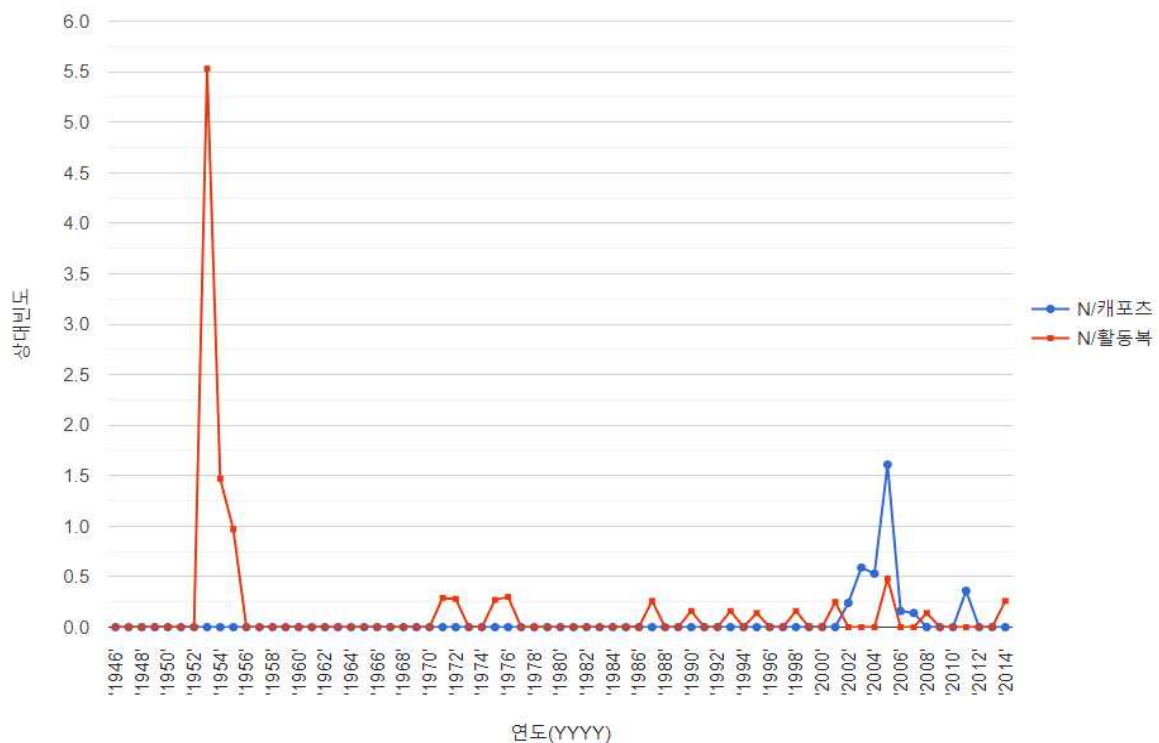
순화 대상어의 빈도 추이도 고려해야 함
순화 대상어인 '쇼플러'의 빈도가 낮는데 순화어(원정구매족)가 정착할 수 있을까?

〈그림 18〉 '쇼플러'의 시기별 사용 빈도



〈그림 19〉 '예티족'의 시기별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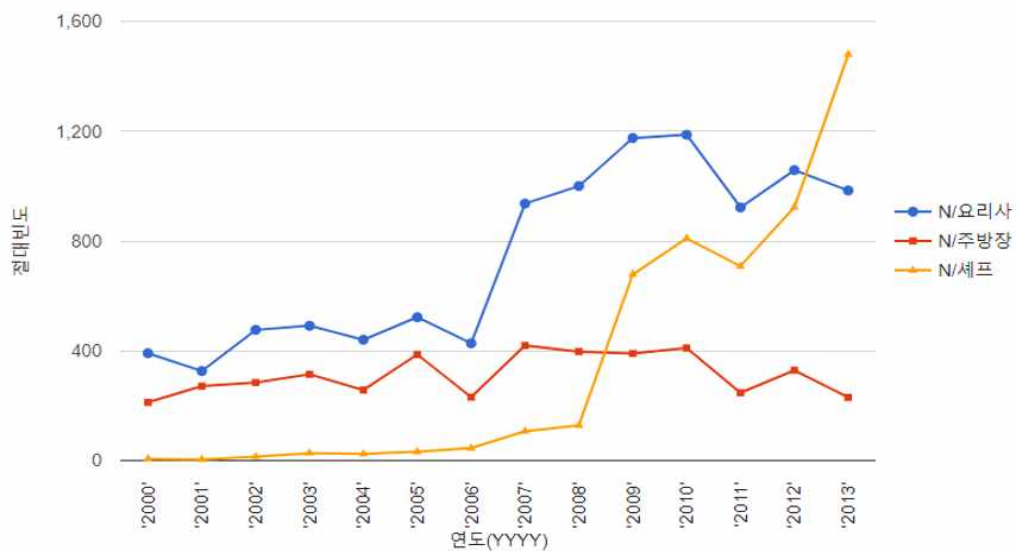
한편 <그림 20>은 ‘캐포츠’와 그 순화어인 ‘활동복’의 거시적인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³⁾ 특이하게도 순화의 대상이 되는 ‘캐포츠’는 2002년부터 사용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데 비해 ‘활동복’은 1950년대부터 그 쓰임이 보고된다. ‘캐포츠’와 ‘활동복’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일까?



<그림 20> ‘활동복’과 ‘캐포츠’의 시기별 사용 빈도

한편 다음의 <그림 21>도 순화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참고로 ‘추리닝’의 순화어는 ‘운동복’이다.



‘셰프’도 순화해야 하는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림 21〉 ‘요리사’, ‘주방장’, ‘셰프’의 시기별 사용 빈도

즉 〈그림 21〉의 ‘요리사, 주방장, 셰프’ 중 ‘셰프’는 순화해야 하는 외국어일까? 만약 순화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 뉘앙스적인, 감정적인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단어들을 순화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2013년 이전에 심의, 고시한 순화어 200개의 사용 양상을 대규모의 신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순화어는 안정적인 사용을 보이는 경우, 부분적인 사용을 보이는 경우, 인위적인 사용을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혼용을 보이는 경우로 그 쓰임이 분류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안정적인 사용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 순화어의 14%에 불과하였다. 특히 순화어의 사용 양상을 순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와 함께 시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어 순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비교적 성공적인 국어 순화의 길을 겪어 왔다. 단기간에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일본어를 일소하였고, 그 밖에 밀려오는 많은 외국어를 순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새로운 언어와 정보를 늘상 마주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순화의 대상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순화어를 만들고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유의미한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現實과 展望”, 국어생활 제14호, 국어연구소.
김일환 외(2013), ‘물결21’코퍼스의 구축과 활용, 소명출판.
남영신(2000), “국어 순화 정책 방향 모색”, 21세기의 국어정책, 국립국어원.
최재웅·이도길(2014), “물결21 코퍼스: 공개 웹 자원 및 활용 도구”, 민족문화연구 64, 민족문화연구원.

김일환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전화번호: 02-920-7182

전자우편: ilhwan52@sungshin.ac.kr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문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는 한국 사회에 사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 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많은 대중 매체들을 통해 공공 통역이라는 분야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더 이상 손짓을 통한 천사들의 언어로 미화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이 주제가 무척 마음에 든다.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던 우리 사회에서 수어가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의 화합과 협력의 언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수어는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는 완벽한 소통의 언어임을 이 글에서 증명해 보려 한다.

그러나 음성언어와는 달리 시각으로 수용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수어는 그 양식의 차이로 인해 언어라기보다는 제스처나 마임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많은 사람이 수어라고 하면 만국 공통어로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스처와 수어는 단순한 몸짓이나 손짓이 아니라, 손이나 얼굴 그리고 몸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비음성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수어는 제스처와는 달리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관습적이며, 음성언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그 의미가 맥락에 덜 의존한다. 즉, 제스처는 단독으로 혹은 음성언어나 수어 발화 시에 함께 나타나서 그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분절성이나 자의성이라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에 비해 수어는 그 어휘의 형태에 도상성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제스처와는 달리 수어를 모르는 청인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수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뿐 아니라, 학업과 인지에 필요한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언어이다.

특정한 손의 형태와 움직임이 관습적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가 바로 생산적 수어이다. 생산

적 수어는 농인 모어 화자들이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같은 손의 형태와 움직임이 맥락 안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므로 실질적인 어휘소가 아니다. 이러한 생산적 수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하게 그 형태와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지게 되므로 사전에 등재하는 어휘가 된다. 이러한 어휘는 수형소, 수위소, 수동소, 수향소, 비수지요소라는 수어소로 분리가 가능해진다. Johnson & Schembri(1999)는 수어의 관습화 과정을 <그림 1>에서와 같이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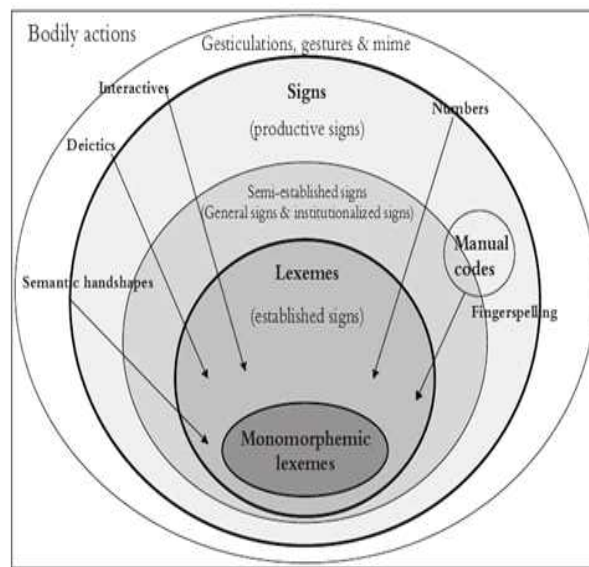


Figure 1: A hierarchy of lexicalization in signed languages

<그림 1> 수어의 어휘화 과정 출처: Johnston & Schembri(1999), 116p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문법 특성을 가진다. 농교육의 초창기부터 수어와 음성언어의 이러한 차이점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의 레페(L'Epee)는 파리에 세계 최초의 농학교를 설립하고 수어를 농인들의 자연 언어라 믿고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레페는 수어가 프랑스어에 있는 문법 요소가 없는 부족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문법 형태를 도입한 규칙성 수화(methodical signs)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김영옥, 2007). 미국 농교육 현장에서도 영어의 문법에 노출시키기 위한 수지 영어(Signed English)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수어가 아니다. 단지 수어 단어를 빌어와 영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농교육 현장에서도 '표준 수화'라는 이름 아래 국어의 문법 형태소를 지문자나 수어 단어로 대체하여 국어 어순에 따라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수지 한국어(한국어 대응 수

화)’를 사용해 왔다. 1998년 고시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개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기 이전까지는 수화는 구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다. 이후 농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서 수어를 하나의 의사소통 양식으로 인정하고 수어 능력의 향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원성옥 외, 2013). 그러나 2022년도 개정 예정으로 개발 중인 교육과정에서조차도 ‘수어’는 독립된 교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선택 과목의 하나로 위치하고 있다. 농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수어를 완벽한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편견의 결과이다. 이는 어쩌면 한국어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조사로, 시제를 동사의 굴절로 실현하는 반면 한국수어는 공간과 비수지 기호 등의 문법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결과일 수 있다.

물론 수지 한국어나 수지 영어는 음성언어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지 한국어는 수어가 아니며 수지 한국어로는 농인과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수어가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의 진정한 화합과 협력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어다운 수어, 한국어 단어에 수어 단어를 대응하여 나열하는 수지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원성옥(2013)이 제시한 수어의 언어 보편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어가 언어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양식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시각언어적 특성인 동시성, 공간성, 비수지 기호라는 제약을 중심으로 한국수어의 문법을 기술한다.

2. 수어의 언어 보편적 특성

2.1. 자의성

인간의 언어가 다른 의사소통 수단과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의성이다. 이는 언어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자연적이지 않고 관습적이라는 것이다. 즉, 언어의 형태는 지칭하는 대상이나 의미를 반영하는 도상성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같은 대상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 언어가 자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수어 역시 나라마다 다르며, 이는 수어가 언어라는 증거 중 하나이다. 즉, 수어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관습적이어서 그 형태를 보고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자의성을 갖추고 있다.

물론 시각 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에 비해 형태가 대상이나 의미를 반영하는 도상성이 크다. 이러한 도상성은 수어를 제스처나 단순한 손짓으로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수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어의 도상성은 투명하지 않다. 언어의 도상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Pizzuto & Volterra, 2000), 그 형태의 기저 이미지가 시각적 또는 개념적 도상성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상적 특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사]¹⁾라는 수어는 일제강점기 통치의 산물인 교원의 제복 소매 끝에 있는 두 줄에 그 어원의 실마리가 있으며, [학생]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든 옛날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김철관, 1997). 하지만 한국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형태를 보고 의미를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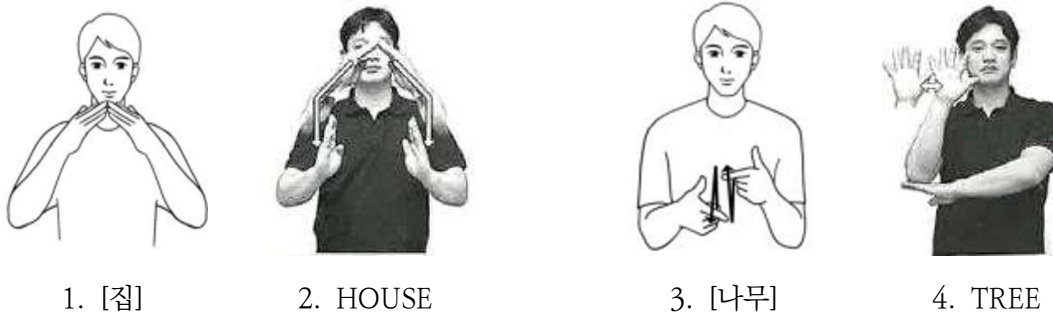
〈그림 2〉 자의성이 강한 수어: [교사], [학생]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특히 도상성이 강한 수어 어휘에서조차도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수어가 자의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언어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의 [집]은 도상성이 매우 강하여 수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수어의 HOUSE²⁾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 또한 미국수어의 TREE도 도상성이 강하여 수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의 [나무]와는 그 형태가 다르며, 한국수어 [나무]는 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없다.

1) 본 원고에서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 수어 단어를 표기할 때 대괄호([])를 사용하고, 의미는 작은따옴표 안에 넣어 제시한다.

2) 미국수어 언어학에서는 미국수어 단어를 영어 대문자로 표기하므로 본 고에서도 그에 따라 표기한다.



〈그림 3〉 도상성이 강한 한국수어와 미국수어

출처: 1. 3.: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출처: 2. 4.: 『한국어-미국수화사전』(2008)

2.2. 분절성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분절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제스처는 수어와 같은 시각-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 양식이지만 그 움직임을 분리해 내어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수어는 그 구성 요소를 분리해 낼 수 있으며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수어가 언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수어는 손의 모양인 수형소, 손의 위치인 수위소, 손의 움직임인 수동소 그리고 손의 방향인 수향소와 비수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성요소를 분리해 내고 다시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에서 [닭]이라는 수어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편 손(수형소)으로 손바닥은 오른쪽으로 하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끝은 앞으로 향하도록 하여(수향소) 엄지를 이마(수위소)에 접촉하고 손가락을 각자 흔드는 동작(수동소)을 한다. 이 수어에서 수형을 엄지와 검지 중지만을 펴고 나머지는 접은 손 모양으로 바꾸면 [경찰]이라는 수어가 된다. 또한 [닭]이라는 수어에서 수위소만 ‘코’로 바꾸면 [바보]라는 수어가 된다. 이러한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 우리는 한국수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어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림 4〉 수형 또는 수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 [똥], [경찰], [바보]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2.3. 생산성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의 언어를 구별하는 또 다른 특징은 생산성(창조성)이다 (강범모, 2005). 언어는 분절해 낸 요소들을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단어들을 결합하여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은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 체계를 우리는 문법이라고 한다. 수어 역시 이러한 규칙 체계에 기반한 생산성을 가진 완벽한 언어이다. 이 또한 같은 시각 의사소통 양식인 제스처와의 큰 차이점이다.

한국 수어에서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빨강]이라는 수어와 [달다]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일요일]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며, [형] [공부하다] [잘] 라는 단어를 배열하여 ‘형이 공부를 잘하다.’라는 문장을 생성해 낸다. 이 문장에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기호를 더하여 ‘형이 공부를 잘하니?’라는 의문문을 만들어낸다. 또한 [동생] [못하다] 라는 수어 단어를 더해 [형] [공부하다] [잘] [동생] [못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형은 공부를 잘하나 동생은 잘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더욱이 수어는 사전에 등재된 한정된 수어 어휘 외에도 다양한 생산적 어휘를 통해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수어가 모어인 화자들은 맥락 안에서 이러한 생산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특히 수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이나 제스처와는 달리 음성 언어의 굴절과 비슷한 동사의 형태 변화(변형)을 통해 시제와 상, 수 일치 등을 표현하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해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산적 어휘와 표현은 동시성, 공간성, 비수지 기호라는 시각언어적 특성의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3장에서 수어의 시각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수어 문법 규칙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2.4. 문화적 전달

동물은 유전적으로 의사소통 방법을 타고 난다. 그에 비해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문화적 전달은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에는 없는 언어만의 특성이다. 즉,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수어 역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 밑에 태어난 듣는 자녀들은 한국어와 한구수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자가 된다.

또한 수어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약속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며 불필요한 어휘는 없어지며 그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최근 신종플루나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생겨나면서 이를 나타내는 어휘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젊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의 형태가 노인 농인들이 사용하는 형태와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는 수어도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수어의 시각 언어적 특성

3.1. 동시성

수어의 동시성은 음운론,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적 측면에서 두루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음성언어는 음소가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음절과 단어를 이루고, 단어와 단어가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반면, 수어는 수어소의 결합에서부터 단어 형성 과정, 문장 구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결합하여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3.1.1. 수어소 결합 과정에서의 동시성

먼저 수어소가 결합하는 음운론 차원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을 살펴본다. 앞 장에서 우리는 수어를 분절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수어 단어를 음성언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

어소로 분리해 낸 사람은 최초로 미국수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이다. 스토키(1960)는 미국수어에서 19개의 수형소(Dez: designator), 12개의 수위소(Tab: tabulator), 그리고 24개의 수동소(Sig: signature)로 분석해 내었다. 그런데 음성언어는 자음과 모음인 음소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음절을 이루고 단어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수어의 단어는 수어소가 동시에 결합한다. 배티슨(Battison, 1978)은 수어 단어를 이루는 수어소로 스토키가 분절해 낸 수형, 수위, 수동 이외에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방향인 수향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손의 방향을 수형의 하위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Klima & Bellugi 1979; Sandler 1989; Sandler & Lillo-Martin 2006) 손의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대립 단어쌍이 존재하므로 수어소로 볼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도 수형과 수위 수동이 같지만 수향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학교]와 [공부], [곰]과 [고양이]와 같은 최소대립 단어쌍이 있다. 그 외에도 수어 단어를 이루는 수어소로는 비수지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비수지 기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5〉 수향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 [학교]와 [공부], [곰]과 [고양이]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이처럼 수어 단어는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 요소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물론 수어 단어의 구조가 동시성만 존재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수형에서 다른 수형으로, 혹은 하나의 수위에서 다른 수위로 변화하는 순차적 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차적인 배열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수어소의 동시적 결합과 더불어 순차적 변화에 따른 수어 단어의 내적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Valli & Lucas, 2000). 리들과 존슨(Liddell & Johnson, 1989)은 이러한 수어의 순차적 구조를 움직임-정지 모델로 설명한다. 즉, 리들과 존슨은 수어 단어가 움직임 분절과 정지 분절³⁾로 이루어지며 각각

3) 움직임-정지 모델에서는 경로가 없는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움직임(수동)은 정지 분절로 보고, 경로가 있는 움직임(수동)만 움직임 분절로 본다. 정지 분절은 하나의 1차 조음 요소(수형, 수위, 수향, 비수지)로

의 분절은 수형, 수위, 수향, 비수지기호라는 조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한국수어 [있다]는 정지 분절로 하나로 이루어진 수어로 조음요소 수형, 수위 수향 등이 동시에 결합된 것이다. [있다]는 주먹 쥔 수형에서 편 수형으로 변화하면서 손이 위로 움직이며, [기억]은 편 수형에서 주먹 쥔 수형으로 변화하면서 손이 아래로 움직인다. 이 경우 [있다]의 내적 구조를 수형(주먹 쥔 모양), 수위(머리 옆 공간), 수동(주먹을 펴면서 위로 움직임)의 동시적 결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움직임 분절로 보고 1차 조음 요소 중 수형이 2차 조음 요소에서 편 수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6>은 정지 분절과 움직임 분절로 이루어진 수어의 예이다.



<그림 6> 정지 분절로 이루어진 수어와 움직임 분절로 이루어진 수어: [있다], [있다]와 [기억]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3.1.2. 단어 형성 과정에서의 동시성

단어 형성 과정에서 보면 음성언어는 하나의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나 접사가 순차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나 수어에서는 두 단어가 결합하는 과정에 동시성이라는 제약이 존재한다. 동시적 결합에 의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두 단어의 동시적 결합, 두 단어 일부의 동시적 결합, 지숫자의 동시적 결합, 지문자의 동시적 결합 등이 있다(원성옥 외 2021).

두 단어의 동시적 결합은 수어가 양손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능한 조어 방법이다. [가족]은 한 손은 [집]을 다른 한 손은 [사람]을 동시에 산출한다. 이는 각각의 손이 자립형태소를 실현하므로 합성어이다. 한국어에서 컴퓨터와 문맹이라는 두 단어에서 일부 음절을 가져와 결합하여 '컴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수어에서는 두 단어에서 일부 조음 요소를 가져와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⁴⁾가 있다. [인격]이라는

이루어지며, 움직임 분절은 1차와 2차의 조음 요소로 이루어진다.

4) 김칠관(1996)은 이를 복합구성 단일어라 하였고, 원성옥과 장은숙(2003)은 어원적으로는 2개의 형태소

수어는 [존중]의 수위와 수동에 [사람]의 수형 요소가 동시에 결합한 것이다. 이는 두 단어에서 각가가 핵심 요소를 가져와 형식의 증가 없이 동시적 결합에 의해 단어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수어에서는 시간, 나이, 학년, 층수 등의 어휘에서 단어가 가진 수의 개념까지를 나타내기 위해 지숫자와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가 있다. 이런 어휘들은 수의 개념이 포함된 어휘에 한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수포합(numeral incorporation)이라고 한다. 한국수어에서 년(年)주먹 쥔 비우세손을 우세손이 한 바퀴 도는 동작을 하는데, 이는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우세손의 수형이 지숫자 1을 나타내면 [1년], 지숫자 2를 나타내면 [2년]이 된다. 시간이라는 어휘도 비우세손의 손목 위를 비우세손이 한 바퀴 도는 동작을 할 때 지숫자가 결합하여 [1시간] [2시간] 등의 단어를 산출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형태소(접사)와 지숫자인 자립형태소가 동시에 결합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나이를 나타내는 수어 역시 턱 밑에서 턱을 스치는 동작을 하는데 이때 지숫자가 결합되어 몇 살인지를 동시에 나타낸다. <그림 7>은 수포합 단어들의 예이다.



<그림 7> 수포합 수어: [1년] [1시간] [1살] [중학교1학년] [3층]

출처: 『한국수어문법』(2021)

수어에는 이미 있는 단어에서 수형만을 지문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단어를 파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식]이라는 수어에서 수형을 철학의 ㅈ으로 바꾸면 [철학]이라는 수어가 되며, [문자]에서 수형을 ㅋ으로 바꾸면 [카카오톡]이 된다. 이 외에도 알파벳 지문자를 활용하여 형성된 단어들도 있다. 기존의 [버스]나 [자동차]에서 영어 지문자 ‘T’(Taxi의 T)를 가져와 [택시]라는 수어가 형성되었다. 또한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고속철도KTX]라는 수어가 영어 지문자 K 수형을, 최근 SRT와 ITX가 개통되면서 영어 지문자 S와 I 수형을 결합한 수어가 생성되었다.

로 이루어진 복합구조를 가졌지만 어근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의 분절 층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였다.



〈그림 8〉 지문자 결합 수어: [지식]과 [철학], [문자]와 [카카오톡]

출처: 『한국수어문법』(2021)

이러한 동시적 결합 외에도 수어에서도 순차적 결합에 의해 새로운 어휘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국수어에서 [외국]은 [다르다]라는 수어와 [나라]라는 두 단어가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아내]는 [결혼]과 [여자]라는 두 수어가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렇게 순차적 결합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에는 두 단어에 있는 반복이 삭제되거나 움직임이 축소되고, 두 단어를 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전환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합성어의 발화 시간이 두 단어의 발화시간을 합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발화하는 시간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Johnston & Schembri, 2007). [아내]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있는 양손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여자]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반복 움직임도 삭제되면서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따라서 농인 수어 모어 화자는 이 [아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다.

수어에서는 어근끼리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합성어에 비해 접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생어는 매우 드물다. 한국수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정접미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생어이다(원성옥 외, 2013).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손을 터는 움직임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사의 역할을 한다. [맛] [필요] [관계]라는 수어 뒤에 손을 터는 동작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맛이 없다’ ‘필요없다’ ‘관계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림 9〉 부정접미사가 결합된 수어: [맛없다], [필요없다], [관계없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3.1.3. 문장 구성 과정에서의 동시성

대부분의 음성언어는 동사의 주체와 대상이 동사를 중심으로 앞이나 뒤에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이에 비해 수어는 동사에 주체와 대상이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수어에서는 [돈]이라는 수어 수형을 하고 [주다]라는 동사를 실현하므로 두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다. ‘컵을 주다.’는 [주다]의 수형이 컵을 나타낸다. [가다]라는 동사의 경우도 무엇이 가는지에 따라 수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수어에서 손 모양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시각 언어의 처리 효율성을 위해 동사와 주체, 동사와 대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⁵⁾

특히 이러한 수어 단어 중 형태와 의미가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들도 있는데, 이러한 어휘에서는 수형이 주체나 대상을 나타낸다. [바람], [꽃], [낙엽], [나비], [비행기] 등은 현재 한국수어사전에서는 ‘바람, 바람이 불다. 불다.’ 등으로 한국어 대응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수어 단어는 주어와 동사가 동시에 표현되므로 단어이자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어 무엇이 주어이고 동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⁶⁾ 더욱이 이러한 단어들은 수동의 변화를 통해 매우 생산적으로 표현된다. 별도의 부사어를 추가하지 않아도 동사의 수동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약하게 혹은 부드럽게 등 다양하게 변화시켜 바람이 살살 부는지, 세게 부는지, 나비가 훨훨 나는지 등을 표현한다. 즉, 여기서도 동시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서 ‘어떻게’라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10〉 개체 수형이 포함된 수어: [바람], [꽃], [낙엽], [나비], [비행기]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5) 이 때 수형이 대상이나 주체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이를 분류사 술어, 묘사 동사 또는 분류사 구문이라고도 한다(Schembri, 2003). 수팔라(Supalla, 1986)는 수어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수형이 음성언어에서 분류사와 같은 형태로 기능을 한다고 보아 분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류사를 크기와 모양 특정자, 의미 분류사, 신체 분류사, 신체 부분 분류사, 도구 분류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6) 이러한 단어들은 수형이 지시하는 대상의 형태 그 자체를 나타내므로 개체 수형이 포함된 동사라고도 한다.

수형이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를 나타내는 어휘도 있다. 이 경우 수형이 대상을 다루는 손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취급 수형이 포함된 동사이다. 한국어에서는 무엇을 먹는지를 표현할 때 ‘먹다’라는 동사 앞에 무엇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온다. 그러나 수어에서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 수형만이 달라져서 무엇을 먹는지를 동시에 산출한다. 한국수어사전에 보면 [먹다]라는 수어의 기본적인 형태만 나와 있지만 밥을 먹을 때와 햄버거를 먹을 때, 그리고 국수를 먹을 때 등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형은 달라진다. 악기와 운동을 나타내는 어휘인 [피아노], [바이올린], [볼링], [골프] 등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피아노]는 ‘피아노’라는 명사도 되지만 ‘피아노를 치다.’라는 문장도 되며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에 대한 정보도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 생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1〉 취급 수형이 포함된 수어: [먹다], [피아노], [바이올린], [볼링], [골프]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3.2. 공간성

수어는 양 손이 주요 조음 기관이며 특정 신체 부분을 접촉하거나 공간에서 움직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움직임 체계의 언어이다. 특히 공간에서 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음 공간이 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어에서 공간은 지형적 공간과 통사적 공간으로 구분을 한다. 지형적 공간이란 실제 세계의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통사적 공간은 문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임의의 공간을 가리킨 후 명사를 표현하여 그 특정 공간과 명사를 연결하여 그 공간이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사의 유형도 3가지로 나뉜다. 일치동사는 공간을 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 지시한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갖는 동사로 주어와 목적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의 방향과 경로가 변한다. 그

에 비해 공간 동사는 공간을 사용하지만 공간이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 하지 않고, 다만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산출하는 행위의 경로와 속도, 행위의 위치 정보, 사물의 모양과 사물이 취급되는 방식 등을 표현한다. 일반동사는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문법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수어 공간에서 이동도 하지 않는다(Lillo-Martin & Meier 2011).

주어와 목적어의 인칭과 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방향성을 갖는 일치 동사로는 [주다] [가르치다] [돕다] 등이 있다. <그림 12>의 [주다]는 한국수어사전에 나와 있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내가 너에게 주다.’라는 의미가 되며, 시작점이 몸 바깥쪽에서 도착점이 몸 앞 가까이로 그 방향이 바뀌면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 ‘네가 나에게 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특정 공간 a에 [어머니]라는 수어를 위치 시키고 b공간에 [아버지]라는 수어를 위치시킨 후 a에서 b의 방향으로 [주다]를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즉, 동사의 시작점이 주체가 되고 끝점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때 무엇을 주는냐에 따라 그 [주다]의 수형이 바뀌어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⁷⁾ 또한 ‘내가 학생들에게 책을 주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학생]이라는 수어를 한 후에 검지로 앞 쪽 공간 a에서 b까지를 반원 형태를 그리면서 지시한 후에 [주다]라는 수어의 형태를 바꾸어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낸다.⁸⁾

[돕다] 역시 한국수어사전에는 <그림 12>의 [돕다1]의 형태만 있지만 인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 방향을 바꾼다. 즉, [돕다]에서 우세손의 방향에 따라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 [돕다1]은 ‘내가 너를 돕다.’ [돕다2]는 ‘네가 너를 돕다.’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수어 공간 a에 [여자]라는 수어를 공간b에 [남자]라는 수어를 위치 시킨 후에 [돕다]수어의 방향을 a에서 b로 하느냐, b에서 a로 하느냐에 따라 ‘그녀가 그를 돕다.’ 또는 ‘그가 그녀를 돕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때 [남자]와 [여자] 수어를 양 손으로 동시에 산출한 후에, a 공간에서 [여자]를 한 손을 b 공간에서 [남자] 수어를 하고 있는 손을 향해 두드리면 ‘그녀가 그를 돕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도 양손이 동시에 두 단어를 산출하므로 수어의 동시성이라는 제약이 작용한다.

7) 이 때 [주다]의 수형은 동시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급 또는 개체 수형을 포함하게 된다.

8) 이 때는 [주다]를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반 원을 그리면서 한다. 또는 의미에 따라 a와 b를 향해 양손을 교대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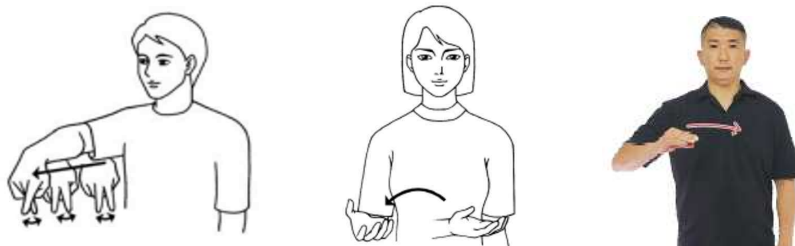


〈그림 12〉 수어의 일치 동사: [주다], [돕다1], [돕다2]

출처: [주다], [돕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출처: [돕다2]: 『한국수어문법』(2021)

공간동사로는 [걷다] [옮기다] [자동차 가다] 등이 있다. 이 동사들은 공간이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일치 동사와 달리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 관계 즉,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지에 대한 실세계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현한다. 즉, 특정 공간 a에 [집]을 b에 [학교]를 한 후에 a에서 b로 움직이면 집에서 학교로, b에서 a로 움직이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자동차가 간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간 동사는 움직임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3〉 수어의 공간 동사: [걷다], [옮기다], [자동차 가다]

출처: [걷다], [옮기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출처: [자동차 가다]: 『한국수어문법』(2021)

3.3. 비수지 기호

수어에서 비수지 기호란 얼굴 표정, 머리의 방향, 몸의 방향과 움직임, 시선 등 손 이외에 수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비수지 기호는 음성언어에서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준언어적 역할을 하는 반면에 수어에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수어에서 입 모양과 같은 비수지 기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우 어색한 수어가 되

며 수어 화자들은 이 비수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능숙한 수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다.

음운론적 차원의 동시성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수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라소 수형, 수위, 수동, 수향이 결합할 때 비수지 기호도 함께 산출된다. [청인]과 [맴다], [귀엽다]와 [아깝다]와 같은 단어쌍은 수지 요소와 동시에 나타나는 비수지 기호인 얼굴 표정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쌍에서 그 의미를 구별하는 요소는 비수지 기호이다.

형태론적 차원에서 보면 손의 움직임 없이 비수지 기호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비수지 단어가 있다.⁹⁾ 이 비수지 단어들은 수지 단어가 없어도 어휘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비수지 단어는 손의 움직임 없이 양쪽 볼을 동시에 부풀리거나 양쪽 볼을 교대로 부풀린다. 또한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한국어의 ‘어’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만들며,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다물었던 입술을 벌리며 한국어 ‘파’를 발음하는 듯한 입모양을 한다. 물론 이런 비수지 단어들은 수지 요소와 함께 산출되기도 하지만 비수지 형태만으로도 맥락 없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단어이다. 또한 이 비수지 단어들은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스처와는 구별된다. 특히 손으로는 [모자] 등과 같은 명사를 하면서 입으로는 ‘있다’라는 의미의 비수지 단어를 동시에 산출하면 ‘모자가 있다.’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손으로는 대상이 되는 명사를 산출하고 입으로는 서술어를 산출하는 문장 구조에서도 수어의 동시성이 잘 드러난다.

수어의 공간성에서 우리는 일치 동사와 공간 동사의 예를 통해 어떻게 문법 정보를 공간에서 실현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그에 비해 일반 동사인 [알다] [좋아하다]는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신체 가까이에서 산출된다. 일반 동사는 문법적 정보를 위해 수어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논항 중 앞에 나타나는 것이 주어이고, 뒤에 나타나는 것을 목적어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비수지 기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이다.

일반 동사의 경우도 비수지 기호인 시선이나 몸의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현한다. [여자]를 a공간에 [남자]를 b공간에 위치 시킨 후 [좋아하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시선과 몸의 방향이 a에서 b로 향하면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가 되며, b에서 a방향으로 향하면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가 된다.

또한 의문문이나 조건문 등도 수지 단어들과 함께 나타나는 비수지 기호¹⁰⁾에 의해 만들어

9) 수어에서 단어는 형태적으로 손으로만 조음 되는 수지 단어, 손 이외의 비수지 요소로만 조음 되는 비수지 단어,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조음되는 다중 채널 단어로 구분한다(Brennan, 1992; Johnston & Schembri, 2007)

진다. 예를 들어 비수지 기호 없이 [형] [학교] [가다]라는 수어를 하면 ‘형이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때 [간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동시에 눈썹을 올리고 눈을 끄개 뜨면서 턱을 몸쪽으로 당기면 ‘형이 학교에 가니?’라는 의문문이 된다. 또한 [너][책]₂[주다]₁₁ [돈/주다]₁₂라는 수어문에서 비수지 기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책을 주고 나는 너에게 돈을 준다.’의미가 되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 조건을 나타내는 비수지 기호¹²⁾가 나타나면 ‘네가 나에게 책을 주면 나는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수어가 음성언어와는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완벽한 언어임을 살펴 보았다. 제스처나 마임과 같이 시각-움직임이라는 양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지만 수어는 제스처나 마임과는 달리 언어가 가지는 자의성, 분절성, 생산성, 문화적 전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성언어와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동시성, 공간성, 비수지 기호라는 특성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수어 문법을 살펴 보았다. 조음 기관이 손과 얼굴, 몸인 수어는 전달의 효율을 위해 동시성이라는 특성으로 그 문법을 실현한다. 문장 안에서 서술어 안에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하며 더욱이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어떻게와 같은 부사어에 해당하는 정보도 동시에 표현하는 매력적인 언어이다. 또한 손 이외의 얼굴 표정(특히 입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 등 비수지 기호를 동시에 산출하여 더 많은 내용과 문법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도 만족시키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어는 공간을 활용하여서도 많은 문법 장치를 실현한다.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치 동사와 공간 동사를 구별하며, 공간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없는 일반 동사의 경우도 공간을 지시하고 그 공간을 향한 시선이나 몸의 방향을 통해 주체와 대상을 나타낸다. 비수지적 표현이 음성언어에서는 의미 전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수어에서는 수어소(음소)로, 형태소(단어)로, 문법 표지로 그 기능을 한다.

10)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비수지 기호를 한국수어문법(2021)에서는 비수지 표지라고 하였다.

11) [책]을 한 후에 [주다]라는 수어를 할 때 움직임의 방향이 2인칭(청자)에서 1인칭(수어자)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때 동사[주다]를 책을 줬 손의 모양이 된다. ₁[돈/주다]₂는 돈의 수형을 하고 [주다]를 하는데 이때의 움직임의 방향은 1인칭(수어자)에서 2인칭(청자)가 된다.

12) 조건을 나타내는 비수지 기호는 고개를 기울이거나 끄덕이면서 시선을 위로 하고 상대방을 응시한다.

앞에서 기술한 한국수어의 문법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어는 언어로서 의미 전달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수어의 문법 특성을 모르면 수어는 한국어에 비해 어휘수가 적으며 한국어와 같은 문법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야 할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농교육 현장이나 교육과정에 나타난 현실을 보면 수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편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농인의 공용어라고 하면서 농학생을 위한 수어 과목이 독립된 교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수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농인 그리고 농인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어 문법을 바로 알고 사용하여 한국수어가 화합과 협력의 언어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5),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 김영옥(2007),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이해』, 학지사.
- 김칠관(1996), 한국 고유 수화단어에서의 복합 구성 특성, 수화연구 창간호, 3-18쪽.
- 김칠관(1997), 『한국수화어원 연구』, 인천성동학교.
- 원성옥 장은숙(2003), 한국복합수화의 조어 특성, 재활복지연구 1권, 135-157쪽.
- 원성옥(2013), 『수화』, 커뮤니케이션북스.
- 원성옥 김정진 허일(2013), 청각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수화 적용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권 4호, 113-132쪽.
- 원성옥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2021), 한국수화문법, 국립국어원.
-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어사전』(개정판),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추진위원회(2008), 『한국어-미국수화사전』,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 Battison, R.(1978),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Brennan, M.(1990), Word-Formation in British Sign Language. Stockholm: University Press.
- Johnston, T., & Schembri, A.(1999), 『On Defining Lexeme in a Signed Language』, Sign Linguistics & Linguistics 2(2), 115-185p.
- Johnston, T., & Schembri, A.(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ma, E. S., & Bellugi, U.(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ddell, S. K., & Johnson, R. E.(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p.
- Lillo-Martin, D, & Meier RP. (2011), 『On the linguistic status of ‘agreement’ in sign languages』, Theor Linguist. 2011 Oct; 37(3-4), 95-142p.
- Pizzuto, E., & Volterra, V.(2000), 『Iconicity and transparency in sign languages: A cross-cultural view. In K. Emmorey & H. Lane (Eds.), The signs of language revisited(261-286p)』,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andler, W.(1989),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the sign: Linearity and nonlinearity in American Sign Language』, Dordrecht: Foris.
- Sandler, W., & Lillo-Martin. D.(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mbri, A.(2003), Rethinking classifiers in signed languages. In K. Emmorey(Ed.), Perspectives on Classifier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3-34p). Mahwah, NJ: Erlbaum.
- Stokoe, W.(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8.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Supalla, T.(1986), The classifier system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C. Craig(Eds.), Noun classes and categorization: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7(181-214p), Amsterdam: John Benjamins.
- Valli Clayton & Lucas Ceil(2000),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원성옥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

평택시 삼남로 283

전화번호: 010-3662-1106

전자우편: woonsok@knuw.ac.kr

갈등의 말, 협력의 말

신유리(연세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2021년 영국에서 이루어진 전 세계 시민의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한국이 갈등 국가 1위에 올랐다. 총 12개의 갈등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은 빈부격차, 정치, 성별, 세대 등 7개의 항목에서 1위를 하였다.¹⁾ 같은 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 갈등지수는 3위,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를 기록했다. 모든 사회는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갈등의 요인과 상황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진단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사회가 진일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적 관점뿐 아니라 언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 태도, 목표를 추구하며 의사소통하는 장면에 잠재하거나 혹은 그러한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거나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행위 및 실천으로서 언어를 다룰 때 더 분명히 감지된다. 우리가 “여의사”, “병어리”, “검둥이”라고 말할 때 차별 행위가 수반되거나 발생하고 “틀딱”, “한남”, “맘충”, “개독교”라고 말할 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표상하는가 하면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키기도 한다.²⁾

1) 이는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이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인 이프소스(Ipsos)가 실행한 조사로, 전 세계 28개 국가의 23,004명 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2021년 1월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이념, 정치, 도농, 빈부, 이주민, 성별, 종교, 계층, 학력, 나이, 권력, 인종이며 한국은 빈부와 정치 항목에서 각각 91%, 성별과 세대 항목에서 각각 80%가 해당 영역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2) 여기서는 갈등의 언어 표현으로 단어 층위의 예를 제시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사회적 관행 및 실천’으로서의 담화 층위까지 다룬다.

언어에 의해 갈등이 발생 및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언어에 의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의 언어가 협력의 언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갈등과 관련된 언어 및 언어 사용의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언어 양상을 사회언어학, 화용론, 비판담화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협력 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어 층위에서 호칭 및 지칭과 관련된 문제, 미시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대화와 관련된 문제,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담화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겠다.

2. 호칭: 갈등 관계의 명시적 지표

“화자가 대화 상대방인 청자 또는 대화 현장에 없는 제3자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쓰는 표현”(강현석 외 2014: 194쪽)인 호칭은 사회 갈등의 국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언어 사용이다. 이들은 친소나 권력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거나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단어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호칭 문제가 성별 갈등과 연결되어 선명하게 관찰되는 사례가 있다.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의 동생에 대하여 ‘도련님, 아가씨’ 등으로 높여 부르고 남성은 아내의 동생을 ‘처남, 처제’ 등으로 높이지 않고 부르는 관행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자 중 여성이 훨씬 많은 것은 이러한 호칭 관행이 여성들에게 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필영·김태경 2018: 293쪽).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가정 영역에서의 호칭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거나 못했던 가정에서의 호칭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름) 씨’, ‘동생(님)’이나 ‘처남님’, ‘처제님’ 등의 호칭 표현을 제시한 바 있다.³⁾ 이러한 언어 사용 개선의 노력은 규범성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

위 사례는 특정한 호칭이 (성)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호칭을 개선함으로써 언어와 관련된 사회 갈등의 요소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 언어와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호칭’의 범주가 아닌 ‘차별

3) 국립국어원은 2017년에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에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하여 가정, 직장, 기타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호칭 및 지칭과 관련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적 언어 표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박동근 2010, 박은하 2009, 박재현 외 2009, 이정복 2009, 조태린 2006 등)⁴⁾ 이는 언어에 의한 차별이 호칭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속성 묘사, 행위 기술, 주제 제약 등의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호칭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한편, 최근 새롭게 발견되는 호칭을 살펴보면 차별적 표현과 구분되는, 그러나 사회 갈등과 관련되어 보이는 표현들이 관찰된다. 다음은 뉴스기사, 기사의 댓글, 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같은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호칭이다.

- (1) 김치녀, 쿡광녀, 한남(충), 냄저
- (2) 맘충
- (3) 찜민이, 급식충, 끈대, 툴딱
- (4) 달창, 토착왜구, 일베충
- (5) 벤츠녀/남
- (6) 휴거지, 전거지, 월거지, 이백충
- (7) 금수저, 흙수저, 흙친 수저

(1)~(6)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조롱, 멸시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호칭들로 차별적 표현, 혹은 혐오 표현으로 칭할 수 있는 것들이다. '차별'과 '혐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라우만과 빈터만텔(Graumann & Wintermantel 1989)의 사회적 차별 모델에 기대어 차별과 혐오를 구분하고자 한다.

그라우만과 빈터만텔(1989, 강병창 2019 :166-167쪽 재인용)에 따르면 혐오 발언이 표출되는 데까지 '범주화', '고정관념화', '비하/멸시'의 단계를 거친다. '범주화'는 개념 부여를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단계로, 개체에 속성을 부여하거나 집단에 대한 일반화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범주화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혐오 발언의 잠재적 기반이자 출발점이 된다(이르테면 남과 여의 범주화). 두 번째는 '고정관념화'

4) 이들 연구는 명시적으로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적 갈등을 연관 지어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 인종, 지역, 민족, 장애 등과 관련된 차별 표현이 불평등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갈등으로서 언어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회 갈등의 요소로서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조태린(2011)으로, 차별적 언어 표현이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인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공개형, 수신형, 발신형, 은폐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은 사회 갈등 요소로 기능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양상(표출적, 잠재적)을 보인다고 하였다.

단계로, 첫 단계의 ‘범주화’가 언어공동체에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질에 근거하는 반면, 가상적·허구적 자질에 따라 범주화가 이루어진다. 허상과 편견에 의한 차이를 강조하여 구별하고 이는 차별이 되는 인식으로 발전한다(이를테면 피부색 차이에 따른 차별). 세 번째는 ‘비하/멸시’단계로, 혐오 발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면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부정적 함축의미를 지닌 명명들을 양산하고 이 명명들은 혐오 발언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차별적 언어 표현은 범주화를 토대로 하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화와 관련되고, 혐오의 언어 표현은 차별적 인식 및 언어 행위에서 나아가 특정 대상을 비하/멸시하는 양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1)은 여성과 남성 (2)는 ‘어린 아이의 엄마’ (3)은 연령 집단(어린이, 청소년, 노년)을 비하 및 멸시하는 표현이며 (4)는 정치적 맥락에서 생산된 혐오 표현이다. (5)는 고급 자동차 운전자의 행태를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며 (6)은 주거 행태를 근거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다.⁵⁾ 이들 표현에서 혐오의 대상은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80~90%의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한 갈등 항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혐오의 의미가 담긴 호칭은 사회 갈등을 극대화시키며 타인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언어적 폭탄이다.

한편 (7)의 ‘금수저’, ‘흙수저’의 경우는 혐오의 기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빈부 차이에 따른 범주화 및 구별화를 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 표현은 범주화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들이 사회적 갈등을 표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빈부 갈등과 관련된 혐오 표현을 양산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호칭은 차별 및 혐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 갈등의 요인과 직결되는 동시에, 개체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여 범주화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를테면 ‘꼰대’라는 호칭의 의미 확장과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속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에 대해 제한적 속성(나이 많음, 권위적 사고방식)이 ‘꼰대’라는 호칭에 부여됨으로써 ‘꼰대인 사람’과 ‘꼰대가 아닌 사람’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범주화는 개인이 지닌 다양한 속성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거세하기도 한다. (성인)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말을 검열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꼰대가 아닌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휴거지’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를, ‘전거지’와 ‘월거지’는 전세와 월세에 사는 이를, ‘이백충’은 월 소득이 200만원대인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5)과 (6)은 성격은 다르지만 빈부 차에 의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표현들이다. (5)의 경우 ‘벤츠’가 지닌 상징성이 부정적 의미로 전이된 이 호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 상황을 빈부 갈등으로 치환시켜 버린다. 둘째, 제3자가 뉴스 등으로 해당 문제를 접할 때 이 호칭을 부여 받은 쪽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식되게 한다. 셋째, ‘-남’, ‘-녀’와 같은 표지를 통해 성별 갈등과도 맞물려 중층적인 갈등을 증폭시킨다. (6)의 사례들은 호칭의 사용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윤리적 문제와도 관련된다.⁶⁾ 다음 세대에게 갈등 상황을 물려주고, 아이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데 호칭 하나로 가능하니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⁷⁾

호칭은 명명 행위의 결과물이자 타인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응집적으로 보여주는 언어 지표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호칭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⁸⁾ 명시적으로 갈등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범주화’ 단계에 있는 표현들은 앞으로 사회가 마주할 새로운 갈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⁹⁾

3. 대화: 갈등의 미시적 상호작용 현장

대화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대화자에 의한 주고받기의 상황”(Mey 1996: 223쪽)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생동감 있는 언어 현장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은 개인과 개인이 미시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역동

6) 뉴스에는 초등학생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생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7) 외솔 최현배는 한 산문에서 ‘내 몸만 있고 남은 없으며, 머리 앞에서는 신의와 절조가 없는 이 사회’에 대해 통탄하며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젊은이들에게 토로한다(최현배 1956).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지금 이 갈등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이자 행동이며 이것의 부재는 언어를 통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8) 언어를 사회적 인식의 차원으로 보는 관점은 외솔 최현배의 언어관과도 상통한다. 최현배는 언어가 무조건 전달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꾸거나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면이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다(김하수 2008: 95쪽). 다음은 『근본뜻』에서 가져온 일부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말 그것과 따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말이 담아 닦아 다른 곳으로 나른다고 함이 보통의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뿐일까? ... 말은 이미 따로 있는 생각과 느낌을 담아 나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 그것을 만들어 내는 연장이기도 하다.”(최현배 1952/1984: 21-22쪽, 김하수 2008: 95쪽 재인용)

9) 최근 ‘반려인’이라는 호칭이 많이 관찰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갈등 양상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빅카인즈’ 기준 2012년 17건, 2017년 232건, 2021년 1,232 건의 기사가 검색됨).

적으로 발현된다.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나 가치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충돌에 의해 가장 즉각적으로 긴장, 불만, 분노 등을 경험하는,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전선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화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사회 차원의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 사이의 문제, 정치 집단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남북 문제, 나아가 국제간의 관계 등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박용익 2001: 27쪽).

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큰 원리는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은 대화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김현강 2021: 19쪽). 우리는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다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과 마주하는데, 이는 대화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대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1) 대화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예

(뉴스 인터뷰의 한 장면)

인터뷰어: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를 다수당인 ○○○당은 왜 못하셨는지요? 그 책임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이: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위의 예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루어진 앵커와 당 대표의 대화 장면이다. 대화의 원리인 '협조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조의 원리란 그라이스(Grice 1975/1989)가 논의한 개념으로, 참여자들이 대화에 협조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라이스는 협조의 원리를 다시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계의 격률, 방법의 격률로 구분하였다.

(2) 그라이스의 협조의 원리

·양의 격률: 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화에 기여하라.

②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질의 격률: 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② 당신에게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관계의 격률: 적절한 내용을 말하여 대화에 기여하라.

·방법의 격률: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 구체적으로는

① 모호함을 피하라.

② 애매함을 피하라.

③ 간결하게 말하라.

④ 순서에 맞게 말하라.

(Mey 1996: 126-127쪽 재인용)

다시 (1)의 대화 상황으로 돌아오면, 인터뷰이인 당 대표는 인터뷰 대화가 추구하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양의 격률 ①과 관계의 격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대화 안에서 갈등 상황이 전개된다. 이 사례는 인터뷰 대화라는 특수한 특성(제도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미시적 상호작용 행위임은 분명하다.

대화에서의 갈등 양상을 논의한 연구로는 손달임(2008), 정성미(2015), 노은희(2015), 김수진(2019) 등이 있다.¹⁰⁾ 손달임(2008)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한 남녀의 대화를 분석한 것으로, 갈등적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러한 의견 대립이 언어 표현으로 나타남을 논의하였다. 대화 과정에서 ‘협조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등 일반적인 대화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며 구조적 측면에서도 ‘순서 교대 원칙’, ‘선호적 대응쌍의 구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화 상황에서의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가 자주 생략되며 종료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가 하면, ‘요구’, ‘명령’, ‘비난’ 화행이 자주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다음 대화 장면은 대화 순서 교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예이다.

(2)미리 : 미치게 갖고 싶었던,애기도 니가 싫다고 한 순간,오케이 한 내가,웨딩마치 올리고 싶어 하는 것도 니가 싫다니까,알았어 한 내가,착한 엄마 아버지 동생한테 한꺼번에 상처 주고 너만 보고 집 나온,

호철 : (말꼬리 끊으며)일절만

미리 : (말꼬리 끊으며)그런 내가!끝이라고 하면 진짜 끝이야.

KBS,<굿바이 솔로> (손달임 2008: 78쪽)

대화 분석 방법의 창시자인 섹스(Sacks)에 따르면 대화의 기본 단위는 ‘발언 차례’이며 대화의 중심적인 특징은 한 번에 정확히 한 사람만 말을 한다는 점이다(Mey 1996: 230).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순서를 바꾸어가며 말하는 데 있어 발언 차례를 바꾸기에 적합한 지점(추이적정지점)이 있다고 본다. 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발화를 하게 되면 말이 중복되거나 중단되기도 하는데 위의 상황은 상대방의 발언 차례가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 발언권을 빼앗는 모습이다.

한편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발생하는 갈등 대화를 유형화하고 전개 양상을 살펴본 김수진(2019)는 가족 간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이다. 이 역시 텔레비전 드라마 자료

10) 정성미(2015)는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자료를 대상으로 부부간 갈등 대화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였고, 노은희(2015)는 텔레비전 드라마 자료를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 대화에서 말대답 및 말대꾸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의견 차이 > 서운함 / 거짓말 / 간섭 > 가치관 차이 > 지시 불응 / 오해’를 들고 있다.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전개 양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갈등 전개 양상이다.

(3) 부모와 성인 자녀 대화에서의 갈등 전개 양상(김수진 2019: 65쪽)

부모: 비난하기, 무시하기, 지위 이용하기, 타이르기, 호소하기, 화제 전환

자녀: 비난하기, 사실대로 말하기, 호소하기, 지위 인정 요구

대화를 하다가 의견 차이 등에 의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난하기, 무시하기, 지위 이용하기, 화제 전환 등의 방식이 아니라 회유하기, 호소하기, 사실대로 말하기 등의 방식으로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김수진 2021: 65쪽). 이는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의 방식, 상대방 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에 대한 태도가 갈등 발생과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화의 격률보다 공손성(politeness)의 원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화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보여준다. 공손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한 Brown & Levinson(1987)에 따르면 요청, 명령, 비판과 같은 화행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체면(face)을 위협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며,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손 전략을 사용한다. 공손성에서 핵심적 개념인 체면이란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공적 이미지”와 “타인에 의해 부담을 갖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원하는 욕구”를 의미한다(61쪽). 이러한 의미에서 공손 전략은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과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상대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듣는 이의 욕구, 즉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 즉 소극적 체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에 제시된 갈등 대화의 전개 양상(비난하기, 무시하기, 지위 이용하기)은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것에 해당하며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간섭, 지시 불응) 또한 그 소극적 체면 위협과 관련된다. 김수진(2019)의 연구는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갈등 대화의 전개 양상은 다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대

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세부적인 요인과 전개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갈등이 지닌 속성(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한 충돌)은 공유되기 때문이다.

대화의 원리나 공손성의 원리는 언중들이 이것이 원리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사소통 행위의 기저에 깔려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화 참여자들이 의견이나 입장이 다를지라도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하다면 갈등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1)의 경우, 인터뷰어(앵커)의 대화 목표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인터뷰이(당 대표)의 대화 목표는 공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담화: 갈등을 다루는 사회적 관행

담화를 ‘사회적 관행’(Fairclough and Wodak 1997)으로 보는 관점에서 갈등과 언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관행(practice)이란 실천, 관습 등의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 외적인 요소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Fairclough(2003: 24쪽)는 추상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층위는 사회 구조, 사회적 관행, 사회적 사건으로 구분되고 언어 층위는 언어, 담화 질서, 텍스트로 구분되며 사회와 언어의 각 층위는 서로 대응된다고 하였다. 텍스트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관행 및 담화적 관행의 관계 안에서 인식함으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 사회 구조와 사회적 사건을 중개하는 사회적 관행의 요소이자, 추상적인 언어 층위와 보다 구체적인 텍스트의 층위를 매개하는 담화 관행의 조직적인 언어 요소가 담화 질서이다.

[표 1] 사회적 층위와 언어적 층위의 관계(Fairclough 2003: 24쪽)

	사회 층위	언어 층위
추상적 ↓ 구체적	사회 구조	언어
	사회적 관행	담화 질서
	사회적 사건	텍스트

위와 같이 사회와 언어를 층위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대응되는 요소를 도식화하여 나타냄으로써 관념적인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담화 및 담화 질서는 언어와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담화 질서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적, 언어적 사건인 텍스트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담화 유형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분석 요소이다. 즉, 담화 질서를 분석함으로써 각 담화 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담화 질서의 차이 및 변화가 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탐구할 수 있다.

한편 Fairclough(2003)에 따르면 담화 질서는 명사와 문장과 같은 언어학적 단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르, 담론, 스타일에 의해 구성된다. 장르란 어떤 사회적 관행의 일부를 구성하는 언어 사용의 방법으로, 담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뉴스, 인터뷰, 토크쇼, 광고 등은 각기 구별된 의사소통적, 사회적 관행을 형성하는 장르에 해당한다. 담론이란 특정한 사회적 관점에서 세계의 양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어떤 영역의 사회적 관행을 특정한 관점에서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다. 정치 영역에서의 보수주의 담론, 진보주의 담론이나 교육 영역에서의 영어몰입교육 담론, 거꾸로 학습 담론 등과 같이 특정 관점을 담화를 통해 나타내거나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일은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동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교사와 학생은 담화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담화 질서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갈등에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적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장르는 ‘활동’,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기술’의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활동이란 담화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이 담화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란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의 관계를 뜻하는데, 조직 및 기관 간, 조직·기관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끝으로 의사소통 기술이란 담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용되는 매체 수단을 의미한다. (Fairclough 1995/2003)

새로운 매체 수단은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는데(Fairclough 1995/2003), 이전과 구분되는 담화의 장르적 특성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미디어 담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고 한다.¹¹⁾ 당일의 이슈를 중요도

11)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로 뉴스 본다...네이버-카카오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박차”, 테크엠, 이영

나 성격에 따라 배치하여 독자가 전체적으로 기사를 살펴보는 지면 기사와 다르게 포털을 통한 인터넷 뉴스 기사는 독자가 제목을 보고 클릭하여 기사 내용을 읽는다. 의사소통 기술(인터넷)의 변화에 의해 뉴스 기사의 장르적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면 기사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인터넷 기사는 정보 전달보다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이는 기사의 클릭 수가 언론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담화 관행(텍스트 생산과 소비의 측면)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을 자극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해당 기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에 빈부 차, 계층 차에 의한 갈등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표현이 사용된 예이다.

- (1) 운전석에서 창문 열고 음란행위한 ‘벤츠남’에 벌금 400만원 (매일경제, 2020.11.15.)
- (2) “야 운전 똑바로해” 택시에 폭언한 벤츠남...승객은 “아이 있으니 제발”(동아일보, 2022.04.12.)
- (3) 새벽 음주운전 20대 벤츠남,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해 (머니투데이, 2022.05.19.)
- (4) 차 빼달라고 하자...중년 여성에 욕설한 벤츠녀 ‘못매’ (동아일보, 2021.05.14.)
- (5) 벤츠 만취 운전 30대 “생계 걱정하는 취준생” 선처 호소 (조선일보, 2022.03.19.)
- (6) “내 딸 병원 교수야 XX야” 차 빼달란 아이 모욕한 60대 벤츠녀 (헤럴드경제, 2022.08.10.)

(1)은 ‘성범죄자’에 대해 “음란행위한 벤츠남”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2)는 상대 운전자에게 언어로 위협을 가한 가해자에게 “택시에 폭언한 벤츠남”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3), (5)는 음주 운전으로 살인은 저지를 가해자에게 “음주운전 20대 벤츠남”, “벤츠 만취 운전 30대”라고 기술하고 있다. (4)와 (6)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가해자를 “중년 여성에 욕설한 벤츠녀”, “아이 모욕한 60대 벤츠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제목은 계층 갈등, 성 갈등, 연령 갈등의 요소를 뒤섞음으로써 갈등의 양상을 증폭시키며 이는 독자가 해당 사건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자극한다.

(4)의 예는 <동아일보>의 온라인판 기사의 제목인데 같은 날짜의 지면 기사에는 이 제목의 기사도 없을 뿐더러 이 내용을 다룬 기사 자체가 없다는 점은 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의 다른 특성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 차이는 위에서 말한 담화 질서와 담화 관행의 측면에서 논의될 때 분명히 포착되며, 미디어 담화의 목적의 측면에서 온라인 기사는 정보성보다는 오락

아 기자(2021.07.12.)

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담화의 목적, 즉 장르적 특성은 정보성과 오락성의 추구이며 정보와 오락의 긴장은 미디어 언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Fairclough 1995), 온라인 뉴스와 지면 기사의 제목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뉴스의 담화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뉴스거리의 소재로 전락한다.

의사소통 기술의 변화로 나타난 장르 변화의 측면에서 주목할 또 다른 장르는 정치 유튜브이다.¹²⁾ 유튜브의 두드러진 미디어적 특성은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담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유튜브를 정치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장승진·한정훈(2021)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양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하며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호감도 차이 또한 더 크게 느낀다. 특히 진보나 보수의 특정 성향의 채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에 속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반감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비교적) 전통적 미디어의 뉴스 인터뷰나 텔레비전 토론 장르의 경우, 해당 담화 관행에서 따라야 할 규범의 일환으로 중립성을 위해 어떤 양상으로도 두 진영의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탈제도적인 성격이 강한 미디어 담화 관행에서는 편향적인 담론의 특성을 보인다(신유리 2020). 사용자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같은 정치 유튜브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상대 진영의 말을 듣는 통로를 차단한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화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집단 간의 소통 기능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대화, 즉 말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차이를 좁혀나가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화적, 사회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정치 집단 간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담화 관행과 장르적 특성은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담화 활동이 요구된다. Taylor(2014: 462쪽)에 따르면 갈등 상황은 회피, 경쟁, 협력의 순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갈등 관계가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경쟁적 언어란 타당한 이유, 관련성 없는 논쟁, 인신공격, 과도한 요구나 협박과

12) 장르적 측면에서 논의할 때 ‘정치 유튜브’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쇼, 정치토크쇼 등과 같이 장르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고 의사소통 수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콘텐츠’라고 불리는 담화 유형들이 이전의 다른 장르와는 구분된 혼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유튜브 미디어가 지닌 의사소통 기술에 초점을 두므로 잠정적으로 ‘정치 유튜브’라고 칭하겠다.

관련되고 협력적인 언어는 제안 및 역제안, 동의, 다른 이의 능력에 대한 신뢰 표현, 유머 등과 관련된다(Taylor 2014: 459쪽). 정치 유튜브 담화 관행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은 회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치, 이해관계, 입장 등이 충돌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사소통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상호작용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부재한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내집단 내에서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이 필요한 곳에 이야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감정적인 언어들이 사회에 가득하다.

관련성 없는 논쟁이나 인신공격과 같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언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갈등 상황에 대한 회피나 무시는 더 큰 부작용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피 관계를 넘어서, 경쟁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언어적·사회적 관행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에 상이한 입장과 견해를 지닌 이들이 각자의 논증을 펼침으로써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 장르야말로 이에 적절하다.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덜 나쁜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공동의 목적이며 더 좋은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시청자들에게 소비되는 상품으로서 정치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쇼’가 아니라, 정치 집단과 집단 간, 집단과 시민들이 숙의하는 공론장으로서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사회를 이루는 갈등의 언어를 호칭, 대화, 담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회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비판 이론과도 관련된다(강병노 2020). 비판 이론이란 사회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만 지향하던 전통적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사회 전체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 이론을 의미한다(Wodak & Meyer 2021: 28쪽). 이는 “언어 사용을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이와 동시에 구조를 견고히 하거나 바꾸는 것에 기여하는 ‘사회적 관행/실행’”(Wodak & Meyer 2021: 29쪽)으로 보는 비판담화연구의 관점과 상통한다.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을 포함한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려 하는 비판 이론에 언어학이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기본 요소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관점을 취하는 언어학은 인간

이 자기 반성을 통해 지배 방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비판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Wodak & Meyer 2021: 29쪽). 갈등 요인으로서의 언어를 진단하여 협력 관계를 위한 소통의 언어 사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대한 중요성은 60여 년 전, 한국 학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논한 외솔 최현배(1960)의 글에도 담겨 있다.¹³⁾

참고문헌

- 강병노(2020), 갈등이론에서 갈등에 관한 이론적 비교, 분쟁해결 연구 18:1, 5-34쪽.
- 강병창(2019), 언어폭력과 비유: 혐오발언 속 비유적 집단명칭의 공격성에 대하여, 독일어문학 85, 155-180쪽.
- 강현석 외(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 국립국어원(2019),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국립국어원.
- 김수진(2019), 부모-성인 자녀 간 갈등대화의 유형과 전개 양상, 화법연구 45, 37-70쪽.
- 김하수(2008), 언어와 사회의 문제에 관한 최현배의 인식, 문제로서의 언어 2: 민족과 언어, 커뮤니케이션 북스, 82-103쪽.
- 김현강(2021), 대화의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은희(2015), 세대 간 갈등 대화에서의 말대답·말대꾸 양상 분석, 화법연구 29, 65-102쪽.
- 박동근(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57-88쪽.
- 박용익(2001), 대화분석론, 역락.
- 박은하(2009), 한국 전래 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아시아여성연구 48:1, 7-29쪽.
- 박재현 외(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 손달임(2008), 갈등적 대화의 원리와 구조 연구: TV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6, 67-94쪽.

13) 잡지 <새벽>의 “한국 학도들의 나아갈 길”의 일부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오늘의 한국 학도들이 제 각기 새싹과 기둥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여야만 한때 나라의 장래에 광명과 소망이 있을 것이니 ... 학도 제군은 다음의 몇 가지 일을 차라리 아니하면 안 된다. ...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또 민주주의스런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버릇을 가져야 하며, ...사회를 철학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현실에 관한 냉정한 관찰과 그 개선 혁신에 대한 뜨거운 정열을 품어야 하며 ... 이러기 위하여 그대들은 다만 책이나 선생의 말을 기계적으로 외거나 모방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제 스스로의 판단 아래에서 이를 진정한 나의 지식, 나의 소견으로 삼아야 하며, 나아가 그 위에다가 제 스스로의 생각과 발견을 보태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로써만 능히 지식과 소견이 뚜렷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 사회 개량에 대한 뜨거운 정열, 재건된 한때 나라를 영구의 흥왕으로 인도하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교문을 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신유리(2020), 혼합 장르로서의 정치 토크쇼 연구 : 〈나꼼수〉와 〈썰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복(2009),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125-158쪽.
- 이필영 · 김태경(2018),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언어학 26:1, 1-33쪽.
- 장승진 · 한정훈(2021),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14:2, 5-35쪽.
- 정성미(2015), 부부갈등대화 분석연구, 어문논집 62, 159-187쪽.
- 조태린 외(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388-410쪽.
- 최현배(1956),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문학 편〉, 외솔회 엮고 옮김 (2019), 채륜, 187-192쪽.
- 최현배(1960), 한국 학도들의 나아갈 길, 〈새벽〉 4월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문학 편〉, 외솔회 엮고 옮김(2019), 채륜, 220-228쪽.
- Brown, P. and Levinson, S.(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Bloomsbury Academic.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 Fairclough, N. and Wodak, R.(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van Dijk T. (Eds.)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 Ipsos(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King's College London, The policy institute.
- Mey, J. L.(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 Inc. 이성범 역(2007), 화용론, 한신문화사.
- Taylor, P. J.(2014), The Role of Language in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Holtgraves, T.(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Wodak, R. and Meyer, M.(2016), Critical Discourse Studies: History, Agenda, Theory, and Methodology in Wodak, R. and Meyer, M.(Ed.)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3rd edition, London: Sage, 1-22p. 김현강 외 역(2021), 비판적 담화 연구: 역사, 의제, 이론, 방법론, 위탁과 메이어(편), 경진출판, 19-56쪽.

신유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자우편: yuriglobe@gmail.com

일간지의 한글 표기 확대 양상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광복 이후 표기를 중심으로 -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 들어가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것은 각각 1443년과 1446년이였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문자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진 한글이었으나, 이후 수백 년 동안 나라의 공식적인 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글은 한문 사용을 위한 보조적인 문자 또는 사사로운 문자로만 여겨져 온 것이다. 이후 한글은 1894년 갑오개혁 시기에 비로소 나라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으뜸이 되는 문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자 사용에서 한글의 지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뿌리 깊은 한자 선호 의식 때문이었다. 일제에 의해 나라의 권리를 모두 빼앗긴 경술국치 이후에는 한자뿐 아니라 일본 문자에 눌러 한글은 그 소임을 다할 수 없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한글 맞춤법을 만들고 한글 사전 편찬에 힘씀으로써 광복 이후 한글 전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1945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이루어지고 미군정청과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교과서와 공식 문서에 한글 전용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1446년 한글 반포 후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글은 제 지위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전용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문자 생활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특히 언론계와 학계는 한글 전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또한 이를 강제하지 못했다. 이런 까닭으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는 광복 이후 매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자 투성이의 신문을 만들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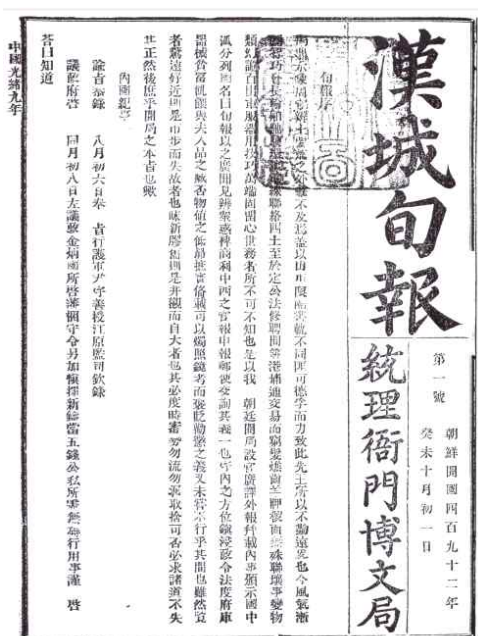
이들 신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이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한글 전용을 시행하려 하는 등 한글 전용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간지의 한자 비율을 크게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일간지 한자 비율 축소는 광복 이후 한글 전용의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 속도를 더해가게 된다. 상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새 독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끝자락인 1998년과 1999년 이제 한글이 한자를 압도하는 이들 일간지 지면은 가로쓰기라는 또 한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면서 일간지 지면 ‘한글 전용’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본 발표는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위 두 일간지의 한자 축소와 한글 확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띤 1면 머리 기사를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2. 한글 창제와 사용 확대



〈한성순보 제1호〉

1443년 한글이 창제되고 1446년 한글이 반포된 후 15, 16세기에는 많은 한문 서적들이 한글로 언해되는 등 한글은 나름의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부터 한글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저 한문에 다는 토를 표기하거나 편지 등 사사로운 글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한글이 사용된 것은 개화기 이후이다. 1883년에 창간된 최초 신문 ‘한성순보’는 온전히 한문이었으나, 이어 1886년 발행된 ‘한성주보’의 기사는 한문과 국한문혼용 그리고 한글의 세 가지로 만들어진 다. 이렇게 한글 문체가 신문에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은 1882년부터 이루어진 기독교의 성경 번역 사업의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¹⁾

한글을 공식적인 나라의 글자 즉 ‘국문’으로 인정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 내려진 아래와 같

은 고종의 칙령이었다. 이는 한글 창제 후 약 450년 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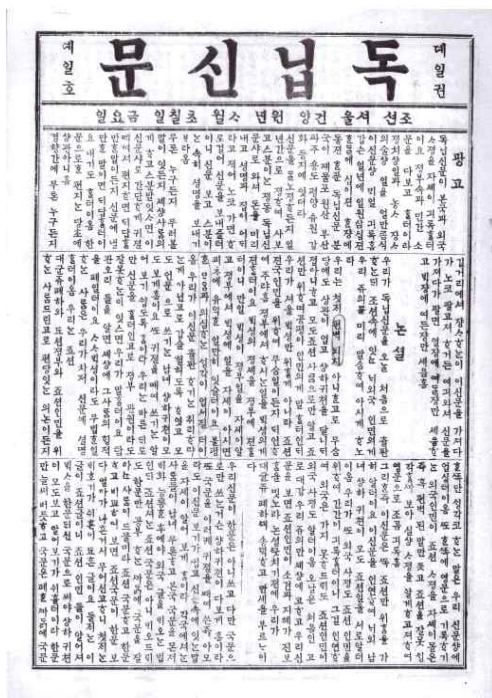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 國漢文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

즉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인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한문 번역을 붙이고 혹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이후 한글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한문혼용으로 지켜지게 된다. 정부 주도로 편찬된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1896)’ 등이 모두 그랬다.

1898년에 창간된 ‘황성신문(1898창간)’ 또한 위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국한문 혼용체였으나, 이보다 먼저인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온전한 한글 전용으로 만들어졌고 1898년과 1904년에 창간된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또한 한글 전용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 독립신문 창간호 1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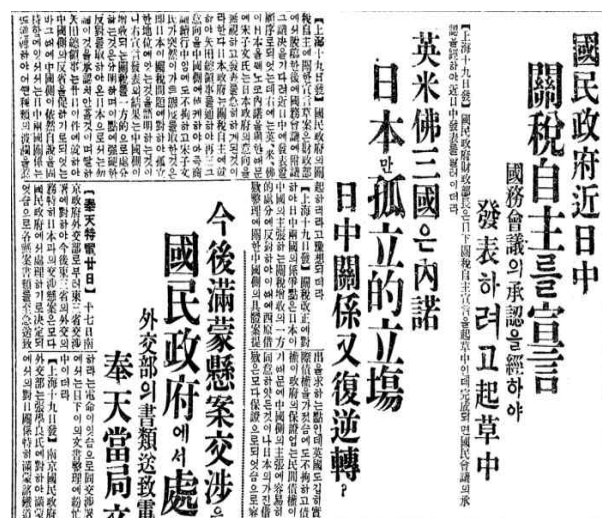
〈 황성신문 창간호 1면 〉

1) 이석주(1990), 307-309 쪽 참조.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간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대한매일신보’를 ‘매일신보’로 이름을 바꾸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였는데, 이 신문의 경우 문예물인 신소설 등 일부를 제외한 지면들을 국한문혼용으로 채웠다. 이후 ‘매일신보’는 1912년 3월 1일부터 법령 정치 등의 기사에서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사회, 문화 관련 기사에서는 한글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20년에 창간되어 1940년까지 이어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의 지면들 역시 이와 유사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1면 기사와 연재소설 그리고 사회면의 일부 기사들인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면의 주요 기사는 국한문혼용으로 적고 문예물과 일부 사회면 기사에서는 한글체를 사용하고 있다.



〈1928년 11월 21일 조선일보 1면〉



〈1928년 11월 21일 동아일보 1면〉



〈1928년 11월 21일 조선일보 5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과서의 표기를 모두 한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지켜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6호’가 공포된다.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전용의 원칙은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과 학술서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광복 후 복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대다수의 학술서에서 우리는 한글보다는 한자가 더 많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946년 창간된 ‘호남신문’의 경우 1947년 8월 15일부터 한글 가로쓰기와 함께 기사 내용 대부분을 한글로 쓴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신문이 이러한 혁신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은상 선생이 이 신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신문사에서 1956년 10월 18일부터 한동안 한글판 신문을 간행했다. 이 역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은 1961년 연말부터 한글 전용을 강제하는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등 한글 전용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68년 10월 25일 그는 ‘대통령 지시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을 당시 문교부에 보내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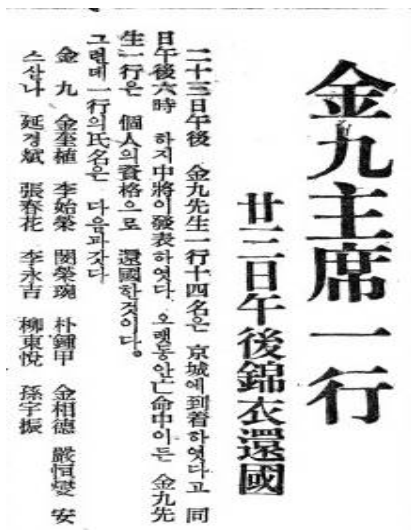
- (1) 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뿐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 (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 (5)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0년 1월 1일부터 전용하게 하고 그 단서는 뺀다.
- (6)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대통령 박정희의 위와 같은 지시 사항은 광복 이후 교과서와 공문서 표기의 원칙이 된 한글전용이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출판계의 경우 한글전용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론·출판계 또한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는 없었을 것이다.

언론·출판계의 한글 전용에는 광복 이후 시행된 교과서 한글 전용 정책의 영향이 컸다. 앞서 밝힌 미군정청 등의 한글 전용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자란 젊은 세대가 새로운 독자층으로 성장하면서 독자를 무시할 수 없었던 언론·출판계의 한글 전용화는 그 속도를 더할 수밖에 없었다.

3. 광복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한글 전용화 과정



〈1945년 11월 24일 조선일보 1면〉

앞서 밝힌 것처럼 개화기에 시작된 일간지의 국한문혼용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왼쪽의 내용은 1945년 11월 24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 그대로이다. 광복 이후 복간된 조선일보의 표기 원칙은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는 것이었으나 왼쪽의 기사가 보여주듯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한자로 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한자로 적고 한글은 여기에 토를 다는 역할에 불과한 그러한 표기로 작성된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신문의 모든 지면이 위와 같은 표기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인 1945년 11월 25일 조선일보 2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전용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1945년 11월 25일 조선일보 2면〉

물건이만타고 막우사지맙시다

만주사변으로부터 지나사변 지자사변으로부터 대동아전쟁 중에는 계획경제이니 통제경제이니하는 조리차를하는 정책을싸혀조선사람에게는 쌀한말,옷감 한자를 맘대로살수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급(配給)이란이름아래다만 인민이 간신히 생존해나가는정도밖에 안주어왔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생존을위해 살어왔지 생활을 위해살어왔다고는할수업습니다 우리는 생활을생활답게못하니만큼 우리는 남의물질이만

흔것을 볼때에는 부럽기도하였고 갖고도싶혔던것입니다 그의한가지례로는 최근일본이 대패하야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그소위통제불자라는것이쏘다져나올때에 조선의거리는장사아치로넙히 었습니다 (□女同盟補元觀氏□)

이렇게 일부 지면을 한글 위주로 표기하는 것은 앞에서 살핀 두 일간지의 문예물과 사회면 기사 일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간지 표기법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신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면의 기사들이 한자 투성이의 국한문혼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1면 기사들의 한글 전용화를 관찰하는 것은 일간지의 한글 전용화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연구인 김선래(2021)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해당 연구에서는 주요 일간지 1면 머리 기사를 대상으로 해방 이후 한글 사용 확대 과정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래(2021)에서는 1945년 이후 2020년까지 주요 일간지 머리기사의 한자 비율 변화 추이를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조사한 바 있다.²⁾ 여기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내용만을 선택해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동아	평균
1945	100.0	100.0	100.0
1950	99.2	95.6	97.4
1955	100.0	99.6	99.8
1960	96.5	98.0	97.3
1965	59.9	59.9	59.9
1970	32.3	34.9	33.6
1975	29.6	28.9	29.25
1980	11.6	20.0	15.8
1990	10.6	14.4	12.5
2000	1.6	3.6	2.6
2010	0.5	0.4	0.45
2020	0.5	0.1	0.3

2) 여기서의 한자 비율은 한자로 쓸 수 있는 글자 중에서 한자로 표기되는 비율이다.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 100%이던 한자 비율이 1960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가 1965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한자 비율이 줄어들어 2000년대에 이르면서 한 자릿수로 바뀌고 2010년 마침내 0.5% 이하의 수치가 된다. 따라서 2000년대를 전후해 일간지의 표기가 한글 전용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한자 비율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한자 비율이 급격하게 축소되었기(97.3 → 59.9) 때문이다. 다시 김선래(2021)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	동아	평균
1961	97	97.7	97.35
1962	68.9	87.4	78.15
1963	61.5	56.9	59.2
1964	57.2	65.2	61.2

위 표를 통해 우리는 1961년의 경우 광복 직후와 마찬가지로 100%에 가까웠던 한자 비율이 1962년과 1963년 사이 약 60%까지 크게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 사용 비율 변화의 이와 같은 추이는 한자 사용 축소와 한글 사용 확대 과정에 있어 1962년~1963년 사이의 시간이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일간지의 한자와 한글 표기 비율의 위와 같은 추이를 생각할 때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한자 사용 축소와 한글 사용 확대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제1기(정체기) : 1945~1961

제2기(변화기) : 1962~1999

제3기(완성기) : 2000~현재

3.1. 제1기(정체기)

이 시기는 광복 이후부터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1961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앞서서도 살핀 바 있듯이 이 시기의 일간지 주요 기사 한자 사용 비율은 거의 100%를 유지했다. 한자 축소와 한글 확대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광복 후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일간지의 주된 독자층으로 편입되기 전이기도 했고 조선 왕조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수백 년 세월 동안 이어진 한자 선호와 한자 편향의 전통을 깨기도 어려웠던 모양이다.

3.2. 제2기(변화기)

한글 위주 표기의 발전 단계를 생각할 때 제2기인 1962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62년부터 1963년까지의 2년간은 100%에 가까웠던 한자 표기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시기이다.

불과 2년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당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은 1961년 12월에 한글 표기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즉 그 다음 해인 1962년 3월부터 모든 간행물에 한글 전용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과 한글 전용의 원칙은 당시 완고한 학계와 언론계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 대안으로 1962년 4월 정부 안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신문과 잡지에 쓰이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1963년 10월 박정희 소장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리고 1968년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통령 지시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을 당시 문교부에 내려 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선거와 정권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식자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어쩌면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기인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글 위주 표기 완성에 큰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조선	동아	평균
1960	96.5	98.0	97.3
1965	59.9	59.9	59.9
1970	32.3	34.9	33.6
1975	29.6	28.9	29.25
1980	11.6	20.0	15.8
1990	10.6	14.4	12.5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의 한자 표기 비율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여 1965년에는 약 60%가 되고 1970년에는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 정도로 그 비율이 줄게 되었다. 한자 비율 축소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80년대와 90년대에는 10% 대로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한자 표기 축소와 한글 표기 확대의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이 5.16으로 집권한 군사 정권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석주(1990)은 1980년대의 경우 일간지 한글 사용 증가는 독자층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즉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중시하지 않던 1970년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일간지의 독자층으로 편입된 후 상업적인 일간지들이 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신문 표기를 한글 위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이석주(1990)의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다만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주요 일간지의 한자 비율은 15.8%였고 1990년의 한자 비율은 12.5%였다. 수치를 비교했을 때, 1980년대 10년간의 변화는 3.3%의 비율 축소였고 1980년의 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의 한자 비율은 33.6%였고 1980년의 한자 비율은 15.8%였으니 이 시기에는 한자 표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큰 변화였다. 당시의 군사 정권이 한글전용을 권장한 것은 분명하나 일간지의 한글 전용이나 한글 사용 확대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일어난 일간지 한글과 한자 사용의 큰 변화에는 군사 정권의 정책 외에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발표자는 이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본다. 즉 1945년 광복 이후 교과서의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해 이 시기 이후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한자보다는 한글에 익숙해졌고 이들이 일간지의 두툼한 독자층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신문기자 등으로도 활동하면서 한자 비율이 축소되고 한글 비율이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가 보여준 또 다른 큰 변화는 가로쓰기로의 전면적인 전환이었다. 1947년 순한글로 창간된 '호남신문'에서 가로쓰기가 시작된 이래 1980년대 들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일간지에서도 부분적인 가로쓰기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이들 일간지의 전면적인 가로쓰기는 동아일보가 199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조선일보가 1999년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아래 왼쪽은 가로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조선일보 1999년 3월 1일 1면이고 오른쪽은 전면적인 가로쓰기가 시행된 3월 2일 1면이다.



(1999년 3월 1일 조선일보 1면)



(1999년 3월 2일 조선일보 1면)

3.3. 제3기(완성기)



(2000년 1월 1일 조선일보 1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200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의 한자 비율은 모두 5%에 미치지 못했고 두 일간지의 평균은 3% 이하였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이 시기 이후 이들 일간지에서 한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2000년 1월 1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아래 기사에서는 제목이나 사람 이름 등 극히 일부에만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간행되고 있는 이들 두 신문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일부 한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현재도 온전한 한글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왼쪽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발전이라면 한글과 한자의 싸움에서 한글이 온전히 승리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앞의 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2000년 이후에도 한자 표기 비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글 표기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20년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

문 머리기사의 한자 표기 비율이 각각 0.5%와 0.1%이니 머지않아 이들 일간지의 완전한 ‘한글 전용’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4. 나오기

한글이 창제된 후 수백 년 동안 한글은 나라의 글자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한자에 눌리고 일본 글자에 짓밟히면서 보조적인 글자로만 취급되었던 것이다. 1945년 국권을 회복한 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다. 뿌리 깊은 한자 선호 의식은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힘을 발휘함으로써 한글을 억눌러왔다. 특히 언론계와 학계의 한자 선호 의식은 매우 완강했기에 일간지와 전문 학술 분야의 출판물들은 광복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변화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직접적인 한글 정책이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이 정치적 홍보를 위해 일간지 등 출판물 표기를 순화하려 했으며, 완고한 언론출판계도 서슬이 시퍼런 군부정권의 지시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기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미 군정청과 초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편수국장을 지낸 외솔 선생이 이룬 교과서의 한글 전용 원칙이다. 자라나는 신세대로 하여금 한자보다는 한글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고 일간지 등의 주된 독자층이 된 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 글자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한글 전용은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되었다. 공문서와 교과서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일간지와 잡지 그리고 심지어 학술 서적이거나 학술 논문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한자 사용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거의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꿈 큰 꿈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걸친 문자 생활의 자연스럽고도 큰 변화는 교과서의 한글전용 원칙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지켰던 분이 외솔 선생님이었다.

참고문헌

- 김선래(2021), 일간신문의 한글 전용 표기 확대에 대한 연구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1면 머리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갑수 · 이주행 · 이석주(1990),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 박광민(1998), 한글전용 중심의 어문정책 역사, 어문연구 9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안병희(2009), 「국어연구와 국어정책」, 월인.
- 이기동(1994), 갑오경장이 어문 생활에 끼친 영향,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 이성하(2017), 범언어적으로 본 문자 표기 방식의 변화와 한글 전용, 한글 315, 한글학회.
- 이영아(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 23, 한국현대문학회.
- 이용호(1994), 갑오경장과 어문정책,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일(2021),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의 한글전용 논쟁과 한문교육의 위상, 한문교육연구 57,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길남(1994), 갑오경장 전후의 문자 사용 양상,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 최현배(1937), 가로글씨의 이론과 실제, 한글 5-2(통권 42호), 한글학회.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 동아일보 기사전문 DB, 동아일보사.
-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 조선일보사.
- DB 조선, 조선일보사.

집현전 학술대회 발자취

(1회~14회)

둘째 날		
제3부	주제: 한국어 정보화의 향후과제와 원격 교육의 문제	사회: 김광옥(수원대학교 교수)
09:30 ~ 09:50	중국 조선어 정보 기술 표준화의 국내, 국제협력의 절박한 문제	현용운
토론: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배순호
10:00 ~ 10:20	나라 밖의 한국말 교육 현황과 문제	이대로
토론: 한국어 원격 교육 시스템		김성환
10:30 ~ 10:50	공병우 박사의 업적과 당면	송현
토론: 안마태 소리글판의 한글과 중국어 입력방식		안마태
쉬는 시간		
11:20 ~ 11:40	5거화 봉수에서 전화기 쪽글판까지 : 정음_ 한글 정보학의 미래 전망	진용옥
토론: 인터넷 시대에 한국어와 관련된 지역 실별자 및 통합대응		김국
12:00 ~ 12:20	한국어 기반 응용언어학과 미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	김남길
토론: 한국에서 이중언어 교육		이길원(동아대 교수)
제4부	주제: 한글의 산업화	정재환(한글문화연대 부회장)
14:00 ~ 14:20	한글디자인 -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백승정
토론		표언복
14:30 ~ 14:50	한글과 디자인	류명식
토론		석금호
15:20 ~ 15:40	한글 문화상품을 위한 제언(도자문화를 중심으로)	박선우
토론		김미형
15:50 ~ 16:10	한글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화	이건만
토론		박원길
16:20 ~ 16:40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글 디자인: 전망과 과제	신승일
토론		하재열

2010년

때 : 2010년 10월 7일(목) ~ 10월 8일(금)

곳 : 문화체육관광부 광화문 청사 5층 회의실

564돌 한글날 기념 제2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상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첫째 날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김두루한(외솔회 사무국장)
개회사	성낙수(외솔회장)	
축사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격려사	김종택(한글학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기조강연	세상과 잘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성낙수(외솔회장, 교원대 교수)
제2부	주제: 세계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조일규(평택대학교 교수)
10:20 ~ 10:50	몽골의 한국어 교육	최기호(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토론		에르덴수렝(몽골 인문대 교수)
10:50 ~ 11:20	아프리카 · 중동의 한국어 교육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숙(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중국의 한국어 교육	김성란(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
토론		이대로(전 월수외대 교수)
11:50 ~ 12:20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실태와 전망	이영숙(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3부	주제: 다문화 사회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이정택(서울여대 교수)
14:30 ~ 15:0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김선정(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육효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5:00 ~ 15:3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본 어휘 교육	이창덕(경인교대 교수)
토론		임소영(연세대학교)

15:40 ~ 16:1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김홍범(한남대 교수)
토론		박형우(교원대 교수)
16:10 ~ 16:40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최용기(국립국어원 부장)
토론		조항록(상명대 교수)
17:00 ~ 18:00	종합 토론	
둘째 날		
제4부	주제: 종교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이원승(동서울대 교수)
10:00 ~ 10:30	2005년 성경 한글번역 그 이후	강대인(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
토론		조원형(인하대학교)
10:30 ~ 11:00	불교와 만난 한글	김슬옹(동국대학교)
토론		이전경(연세대학교)
11:10 ~ 11:40	유학과 만난 한글	최봉영(항공대 교수)
토론		김영환(부경대 교수)
11:40 ~ 12:10	개신교와 만난 한글	나채운(전 장신대 교수)
토론		임희국(장신대 교수)
제5부	주제: 거례 삶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오동춘(한글학회 이사)
14:00 ~ 14:30	공공 언어의 오늘과 내일	남영신(국어단체연합회장)
토론		김형배(국립국어원)
14:30 ~ 15:00	학술 및 전문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정수(한양대 교수)
토론		이재현(동덕여대 교수)
15:10 ~ 15:40	언론 출판 용어의 오늘과 내일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토론		이경우(한국어문기자협회장)
15:40 ~ 16:10	교육 과정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두루한(경기상업고등학교 교사)
토론		염시열(전주 만수초 교사)
16:30 ~ 17:30	종합 토론	
17:30 ~ 19:00	함께 기리는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의 뒤풀이 - 외솔 최현배 선생을 추모하는 동영상 감상	

2011년

때 : 2011년 10월 6일(목) 09: 00 ~ 10월 7일(금) 17:40

곳 :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565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계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개회식	09:20 ~ 09:3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 기념사회협회 회장)		
	10:30 ~ 10:20	기조 강연	문학과 한글이 만나다(정현기: 재단법인 외솔회 이사)		
분과발표		주제 1 : 고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1부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0:20 ~ 10:50	향가와 한글 : 향찰의 한글 해독에 나타난 시적 정서		고운기(한양대)	박재민(관동대)
	10:50 ~ 11:20	한문학의 한글 해독이 지닌 가치와 문제		안대회 (성균관대)	김중서(한중연)
	11:20 ~ 11:50	고려가요와 한글 : 고려가요의 한글 정착과 서정성		조하연(아주대)	양태순(서원대)
	11:50 ~ 12:20	고전소설과 한글 : 한글 창제와 고전 소설		김흥규(고려대)	최재남 (이화여대)
12:20 ~ 13:30		점심			
2부 사회 : 김홍범 (한남대)	13:30 ~ 14:00	시조와 한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1)		설성경(연세대)	조세형(서울시립대)
	14:00 ~ 14:30	가사와 한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2)		박연호(충북대)	신경숙(한성대)
	14:30 ~ 15:00	궁중문학과 한글 : 한글 활용의 다양한 면모		이형배(고려대)	권순희(교원대)
	15:00 ~ 15:30	서간문과 한글 : 실용 문학과 한글의 만남		성낙수(교원대)	박무영(연세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분과발표		주제 2 : 현대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사회 : 박형우 (교원대)	10:20 ~ 10:50	한글 소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권영민(서울대)	오탁번(고려대 명예교수)
	10:50 ~ 11:20	시적 정서와 한글	유성호(한양대)	강연호(원광대)
	11:20 ~ 11:50	한글의 대중성과 수필 문학	윤제천(중앙대)	김성준(시인)
	11:50 ~ 12:20	평론과 우리말	김영민(연세대)	이재복(한양대)
12:20 ~ 13:30		점심		
분과 발표		주제 3 : 세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사회 : 박동근 (건국대)	13:30 ~ 14:00	영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김준환(연세대)	허정애(경북대)
	14:00 ~ 14:30	프랑스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전혜정(알리앙스 프랑세즈)	이철(전남대)
	14:30 ~ 15:00	중국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정경원(외국어대)	김현철(연세대)
	15:00 ~ 15:30	일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방교영(한국외대)	성혜경(서울여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종합 토론 사회 박동근(건국대)		
폐회식	16:40 ~ 16:5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2년

때 : 2012년 10월 5일 09: 00 ~ 18:10

곳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66돌 한글날 기념 제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류시대, 한글문학의 세계화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김슬옹(세종대)	
개회식	09:00 ~ 09:3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홍종화(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09:40 ~ 10:20	기조 강연	한류시대의 한글문학(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	토론
오전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0:20 ~ 11:00	한류를 통한 한글문학의 세계화 방안		박태상(통신대)	오윤선 (한국교원대)
	11:00 ~ 11:40	세종학당을 통한 한글문학 보급		김재욱(한국외대)	박성태(성균관대)
	11:40 ~ 12:20	향찰의 한글 해독에 나타난 시적 정서		고운기(한양대)	박재민(관동대)
	12:20 ~ 13:00	한국 한문학의 한글 번역과 문학성		안대화(성균관대)	이강엽(대구교대)
13:00 ~ 14:30		점심			
오후 사회 : 김홍범 (한남대)	14:30 ~ 15:10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		유성호(한양대)	오문석(조선대)
	15:10 ~ 15:50	한국 소설문학의 세계화		정현기(연세대)	김의규(작가)
	15:50 ~ 16:30	외국문학의 한글 번역과 세계화		다와따신이치로 (히로시마대학)	김현철(연세대)
	16:30 ~ 17:10	한글문학과 문화 콘텐츠		최혜실(경희대)	최민성(한신대)
17:10 ~ 17:20		휴식			
17:20 ~ 18:00		종합토론 사회 유성호(한양대)			
폐회식	18:00 ~ 18:1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3년

때 : 2013년 10월 11일(금) 09: 00 ~ 17:40

곳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67돌 한글날 기념 제5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아서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09:00 ~ 09:1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창덕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부 발표		주제 1 : 옛날 자료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발표	토론
1부 사회 : 김홍범 (한남대)	09:30 ~ 10:10	<삼국유사>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향가를 중심으로-	최정선(동덕여대)	길태숙(상명대)
	10:10 ~ 10:50	<악장가사> 등에 나타난 고려 시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최기호(몽골, 울란바타르대학)	고창수(한성대)
	10:50 ~ 11:30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국민 관심도	이원승 (동서울대학교)	이재성 (서울여대)
	11:30 ~ 12:10	판소리에 쓰인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손태도(한예중)	김현양(명지대)
12:10 ~ 14:00		점심		
2부 발표		주제 2 : 우리 겨레의 삶에 나타난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발표	토론
2부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4:00 ~ 14:40	일상 생활에서 명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김홍범,박동근 (한남대,건국대)	조민정(연세대)
	14:40 ~ 15:20	땅이름에 쓰인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박병철(서원대)	성희제(한밭대)
	15:20 ~ 16:00	'가사, 시조' 등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권순희 (한국교원대)	박애경(연세대)
	16:00 ~ 16:40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난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김슬옹(동국대)	박연호(충북대)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폐회식	17:30 ~ 17:4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4년

때 : 2014년 10월 7일(화) 09: 00 ~ 17:40

곳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568돌 한글날 기념 제6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사회: 이창덕 (경인교대)	09:00 ~ 09:1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부 발표		주제 1 :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 과학, 예술, 경제면에서 보는 한글		발표	토론
사회 : 김홍범 (한남대)	09:30 ~ 10:10	한글과 시각기호		안호은(연세대)	김나무(한경대)
	10:10 ~ 10:50	ICT 중심사회와 한글		이재호(경인교대)	이봉규(연세대)
	10:50 ~ 11:30	한글, 사체로의 조형성 탐색과 확산적 활용방안		박병천 (전 경인교대)	최영희 (성균관대)
	11:30 ~ 12:10	한글의 시각적 풍경		최범 (디자인 평론가)	김슬옹 (Washington Global Uni.)
12:10 ~ 14:00		점심			
2부 발표		주제 2 :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 한글의 미래와 세계화의 가능성		발표	토론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4:00 ~ 14:40	한글과 애니메이션: 한글에 생명을 불어넣다		노승관(한양대)	김정우(한성대)
	14:40 ~ 15:20	한글의 기계화와 세계 문자화		신부용 (KAIST IT융합연구소)	이재성 (서울여대)
	15:20 ~ 16:00	한글의 아름다움-한글구체시를 중심으로		고원(서울대)	김경선(서울대)
	16:00 ~ 16:40	글자,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안병학(울산대)	김두섭(홍익대)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종합토론 사회 박동근(건국대)			
폐회식	17:30 ~ 17:4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5년

때 : 2015년 10월 8일(목) 09: 00 ~ 17:40

곳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69돌 한글날 기념 제7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 생활 속의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09:00 ~ 09: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10 ~ 09:30	축사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김석득(전 연세대 부총장)	
제1부	주제1: 자연·겨레의 삶과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09:30 ~ 10:10	식물의 이름과 한글	발표: 임소영(연세대)	질의·응답
10:10 ~ 10:50	동물의 이름과 한글	발표: 김정남(경희대)	질의·응답
10:50 ~ 11:30	간판 상호 언어의 실태에 대한 고찰	발표: 김진희(한남대)	질의·응답
11:30 ~ 12:10	상품 이름과 한글	발표: 윤천택(한국교원대)	질의·응답
12:1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배움 놀이 도구와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3:30 ~ 14:10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한글, 한국어	발표: 전나영(연세대)	질의·응답
14:10 ~ 14:50	유아 단계의 매체활용 한글교육	발표: 이경우(이화여대)	질의·응답
14:50 ~ 15:30	유아 한글 교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 박심덕(한솔교육)	질의·응답
15:30 ~ 16:10	생활 속 실물을 통한 한국어 수업 사례	발표: 오경숙(서강대)	질의·응답
16:1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00 ~ 17:1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6년

때 : 2016년 10월 6일(목) 10:30 ~ 17:40

곳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0돌 한글날 기념 제8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국 고전의 현대 언어학적 해석의 의의와 문제점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0:4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40 ~ 10:5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제1부	주제1: 한글고전의 역주와 우리말의 구조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50 ~ 11:4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음운·어휘론적 문제점	발표: 한재영(한신대 교수)	질의·응답
11:40 ~ 12:3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형태·통사론적 문제점	발표: 홍현보(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질의·응답
12:3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국 한문 고전의 국역과 학문적 통섭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의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엄동명(원광대 교수)	질의·응답
14:40 ~ 15:20	과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남문현(건국대 명예교수)	질의·응답
15:20 ~ 16:00	종교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김무봉(동국대 교수)	질의·응답
16:00 ~ 16:10	휴식		
16:10 ~ 16:50	역사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백승철(연세대 국학연구원)	질의·응답
16:50 ~ 17:30	학술 전문 용어와 한글	발표: 강현화(연세대 교수)	질의·응답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7년

때 : 2017년 10월 12일(목) 10:30 ~ 17:40

곳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1돌 한글날 기념 제9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과 한국인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 회장	
10:10 ~ 10:20	축사		
제1부	주제1: 언어규범과 전통성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1:10	우리말본과 언어 이론	발표: 서상규(연세대)	
11:10 ~ 11:50	우리말본과 국어정보학	발표: 남길임(경북대)	
11:50 ~ 12:30	우리말본과 학교문법	발표: 이관규(고려대)	
12:30 ~ 13:10	우리말본과 한글맞춤법	발표: 김정태(충남대)	
13:1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 시대와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인공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발표: 이기황(다음소프트 기술이사)	
14:40 ~ 15:20	sns의 활용과 보급	발표: 전후민(구글코리아)	
15:20 ~ 16:00	빅데이터의 활용	발표: 백경혜(다음소프트)	
16:00 ~ 16:40	트렌드(관련어 검색)의 허와 실	발표: 이석우(네이버)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8년

때 : 2018년 10월 11일(목) 10:00 ~ 17:30

곳 :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576돌 한글날 기념 제10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탄생과 우리 겨레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10:20 ~ 10:40	기조강연	최기호(전 올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제1부	주제1: 한글 창제와 우리 겨레의 삶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40 ~ 11:20	한국지성사로 본 '문자와 문학'의 정체성(1)	설성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1:20 ~ 12:00	고려가요와 한글	고운기(한양대학교)
12:00 ~ 12:40	훈민정음의 한글문자 생성 구조와 서체적 응용	박병천(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2:4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글 창제에 도움을 준 이들의 이모저모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4:00 ~ 14:40	성삼문의 <훈민정음>해례본 저술과 보급 공로	김슬옹(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문위원)
14:40 ~ 15:20	집현전 학자 최항의 활동과 업적	문동석(서울여자대학교)
15:20 ~ 16:00	정인지의 생애와 훈민정음	장윤희(인하대학교)
16:00 ~ 16:40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준 왕실의 인물들	성낙수(한국고원대학교 명예교수)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2019년

때 : 2019년 10월 10일(목) 10:00 ~ 17:40

곳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3돌 한글날 기념 제11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지난 백 년의 우리 생활 · 문학과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사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10:20 ~ 10:40	기조강연	박영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1부	주제1: 생활 속의 한글		사회: 심혜령(배재대)
10:40 ~ 11:20	예술로 보는 한글	한재준(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20 ~ 12:00	국어사전(말모이)의 탄생과 발전	김한샘(연세대학교 교수)	
12:00 ~ 12:40	어문 규범의 변화	조남호(명지대학교 교수)	
12:4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문학 속의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한용운의 민족정신과 한글 사랑	김광식(동국대학교 교수)	
14:40 ~ 15:20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	유성호(한양대학교 교수)	
15:20 ~ 16:00	방정환의 민족주의와 우리말글 사랑 정신	염희경(한국방정환재단 연구부장)	
16:00 ~ 16:40	해방 이후 민주주의자 최현배의 활동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6:40 ~ 17:4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40 ~ 17:5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20년

때: 2020년 10월 6일(화) 09:30 ~ 18:00

곳: 한글회관 403호

* 비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주제: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09:30 ~ 09:4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40 ~ 10:0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강현화(세종학당 이사장)	
제1부	주제1: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10:00 ~ 10:30	이용·미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10:30 ~ 11:00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1:00 ~ 11:30	출판·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30 ~ 12:00	의복·양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2:0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13:30 ~ 14:00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4:00 ~ 14:30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14:30 ~ 15:00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15:00 ~ 15:20	휴식		
제3부	주제3: 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5:20 ~ 15:50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15:50 ~ 16:20	남·북한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20 ~ 16:50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 취소(비대면 강연 준비시간으로 대체)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2021년

때: 2021년 10월 7일(목) 09:30 ~ 16:00

곳: 세종대왕기념관 2층 강당

* 비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5돌 한글날 기념 제1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공공언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09:30 ~ 09:35	개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09:35 ~ 09:40	방송 준비, 방역		
09:40 ~ 09:5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09:55 ~ 10:00	방송 준비, 방역		
제1부	주제1: 공공언어의 이론적 논의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30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공공언어 정책의 발전 방향		조태린(연세대학교 교수)
10:30 ~ 10:35	방송 준비, 방역		
10:35 ~ 11:05	공공언어의 문제점과 현실적 개선 방안		민현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1:05 ~ 11:10	방송 준비, 방역		
11:10 ~ 11:40	프랑스의 공공언어 정책 —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권리		이현주(인천대학교 교수)
11:40 ~ 11:45	방송 준비, 방역		
11:45 ~ 12:15	한국어 공공언어를 위한 챗봇 설계 방안		이지용(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15 ~ 13:00	점심 및 전체방역		
제2부	주제2: 공공언어 순화의 실제		사회: 김홍범(한남대)
13:00 ~ 13:30	공공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정책 현황과 미래		박성민 (세종학당재단 온라인교육지원센터장)
13:30 ~ 13:35	방송 준비, 방역		
13:35 ~ 14:0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현황		박동근 (대진대학교 교수)
14:05 ~ 14:10	방송 준비, 방역		
14:10 ~ 14:40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사업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4:40 ~ 14:45	방송 준비, 방역		
14:45 ~ 15:15	방송언어의 오용 사례 분석과 순화 방안 연구		유지철(KBS 아나운서)
15:15 ~ 15:20	방송 준비, 방역		
15:20 ~ 15:50	법원 공공언어 순화의 현황과 과제		서경숙 (대법원 국어자문관)
15:50 ~ 16:0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2022년

때: 2022년 10월 6일(목) 10:00 ~ 16:50

곳: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 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6돌 한글날 기념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00 ~ 0:10	개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10 ~ 0:20	축사	김영수(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우리 글 탄생과 언어 민주화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20 ~ 10:50	훈민정음 이전 한국의 말글생활	장윤희(서울대학교 교수)
10:50 ~ 11:20	훈민정음 창제와 백성들의 언어생활 변화	김유범(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조 중세기 한글 민주화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1:50 ~ 12:20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어 및 한글 연구에 관하여	김병문(연세대학교 교수)
12:2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우리 말글 성장과 진단	사회: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3:30 ~ 14:00	국어 순화의 참된 뜻	김일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4:30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문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4:30 ~ 15:00	갈등의 말, 협력의 말	신유리(연세대학교 강사)
15:00 ~ 15:30	일간지의 한글 표기 확대 양상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5:30 ~ 16:30	종합토론	사회: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6:30 ~ 16:5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576돌 한글날 기념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펴낸 이 이 창 덕
펴낸 곳 외 솔 회
박은 곳 동방인쇄공사
펴낸 날 2022. 10.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6, 6층 우)03189

전화 02-734-5048 전송 02-734-5049

손전화 82-(0)10-9449-5048



누리집

www.oesolhoe.org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AwUNGm7V6xAu5aEGePsYxA